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연구책임자 : 서예원

공동연구자 : 이상무

길혜지

양희준

이강주

연구 조 원 : 홍성환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연구책임자 : 서예원

공동연구자 : 이상무

길혜지

양희준

이강주

연구조원 : 홍성환

머 리 말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류의 지대한 관심사였고, 학습자의 성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시험은 학교교육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최근 UNESCO Bangkok 사무소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교육 정책의 핵심 주안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업성취 증진에 애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종의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가 형성, 확산되어왔음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대해 학습자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결과와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왜곡된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다양한 국가 사례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UNESCO Bangkok 사무소의 주관 하에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홍콩), 피지, 인도, 필리핀 등 총 10개국이 참여하는 시험문화 국제비교연구의 한국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동인을 탐색하고, 학습자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전국의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표집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미치는 영향, 시험문화와 교육정책 간의 관계의 각 영역별로 의미 있는 실증적 정보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시험문화의 특성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시험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드높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현실적 요구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시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바쁜 일상과 업무 중에도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 응해주신 전국의 학생, 교사, 학부모 여러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실적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
기란 어려운 주제의 연구이지만, 부디 본 연구의 결과가 과거의 평가 담론과 시험
문화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모든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방안
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재춘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유네스코 방콕(UNESCO Bangkok),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부서(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가 수행하는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 연구의 한국 사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전체적 시험문화 지역연구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홍콩), 피지, 인도, 필리핀, 통가, 베트남,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의 총 10개국이 참여하였으며, 각 사례를 비교·분석한 종합 보고서가 유네스코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교육 정책의 핵심 주안점으로서, 또한 교육체계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를 증진하는데 애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일종의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가 형성되는 것을 주목하여 왔다. 여기서 시험(testing)이란 ‘사람의 숙련도 또는 지식의 질이나 성과를 확립하고자 하는 절차; 학습자를 평가하는 행위’로 규정되며, 진학과 선발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고부담 시험(high-stakes exam)’을 뜻하는데, 이외의 덜 중요한 다양한 시험(low-stakes exam)이나 평가의 영향도 포함된다. 이 같은 ‘시험’의 수행을 둘러싸고 시험을 치르는 학습자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 생성된 접근과 방식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이른바 ‘시험문화’로 명명되고 있다. 시험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높은 점수에만 초점을 두는 현실은 전통적으로 폄어왔던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화가 팽배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의 관련 현황을 탐색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시험문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일은 의미 있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의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동인을 탐색하고 이것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시험문화가 어떻게 교육 정책과 체제를 형성하며 이것이 다시 시험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관한 다양한 측면과 인식을 탐구하고, 시험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시험문화’와 교육정책 및 실제와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시험문화’는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과(성취,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전국의 학생, 교사, 학부모를 초(6학년), 중(3학년), 고(2학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립/공립, 대도시/중소도시로 구분하여 초·중·고 학교급별 총 31개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 2,323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에는 총 6개교의 64명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FGI와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여 시험문화에 관한 다양한 실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미치는 영향, 시험문화와 교육정책간의 관계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대부분 한 학기에 1~2회의 시험을 보며(48.9%), 수업시간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은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주일에 1~2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7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80.6%),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과 관련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모에서 친구/동료, 교사 등으로 확산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자유시간에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생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고(32.2%, 39.9%), 고등학생은 1~2시간이 가장 많았다(43.1%). 시험의 목적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험은 학습을 평가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고부담 시험의 경우는 학습을 평가하기 위해서(56.8%)와 다음 단계로의 진급을 위해서(54.9%)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과 부모들은 대부분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82%, 83.9%), 학습의 일부분으로서 공정성과 변별력을 갖춘 선발도구로서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시험준비로 인해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64.8%), 시험과 관련없는 내용이나 활동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63.4%)

둘째, 시험에 대한 기대, 동기, 영향력에 대한 조사 결과, 학생들은 누구나 최고의 성적을 받고 싶어 하는 등(M=4.33), 학업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불안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3점 초, 중반대로 나타나 학생들이 심한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는 중학생의 불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심층면담 결과는 두통, 복통, 예민함 등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들

을 알 수 있었다. 잘 보여주었다. 시험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이며(모든 응답자, 70.4%), 학생들은 부모(84.8%) 다음으로 교사(41.1%)와 친구(39.9%)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인터뷰 결과, 부모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녀들의 학습을 지원하며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와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시험 성적을 상호비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비율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다(68.1%). 시험을 잘보기 위한 동기는 친구, 형제, 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동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M=2.93) 동료가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행복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2.72). 시험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부모가 더 잘하라고 격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35.4%),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등 부정적 응답을 모두 합하면 41.7%로 긍정적 응답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셋째, 사교육에 관한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모든 응답자, 78.2%), 사교육을 받는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78.2%),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7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권유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교사가 매우 높았는데(81.4%), 인터뷰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권하는 것은 자녀들이 학습에 뒤쳐질까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초등학생은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사교육을 받고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높았으며(33.8%), 고등학생은 하나의 교과목에 집중해서(48.3%) 일주일에 3-5시간(44.4%)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모든 응답자, 71.5%),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83%). 반면, 인터뷰 결과, 교사들은 사교육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보다는 높은 점수를 얻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교육의 이익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전반적으로는 평균이 2점 후반에서 3점 후반대로 나타나 사교육이 학업성취와 성적 향상에 매우 큰 이득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역시 사교육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넷째, 학습에 대한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 학생들의 경우, 시험을 즐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68.2%). 대체적으로 시험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모든 응답자, M=3.81), 학습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모든 응답자, 4.8%) 인터뷰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일부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적

합한 사람을 골라내는 시험의 도구적 기능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보통 수준이었으며(모든 응답자, M=3.05) 많은 학생들은 시험과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69.1%). 대부분의 학생과 부모는 시험 이외에 학습을 평가할 대안적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교사들은 대안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50.9%) 대표적으로 수행평가를 제안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와 학교가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낮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68%), 그 방안으로는 시험의 횟수를 줄이거나(5.5%), 난이도를 낮추는(4.8%)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시험문화와 교육 정책 및 실제와의 관계에 관한 탐구 결과,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의 시험정책은 ‘고부담 시험’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주로 양적 팽창에, 이후에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수립, 실행되어 왔다. 시험에 관한 정책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시험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인식과 실천의 복합적 작용으로 형성된 시험문화는 다시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시험문화가 교육 실제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과 학습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에서 시험이 갖는 중요성과 그로 인한 압박감은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궁극적인 시험은 대학입시로 사실상, 이 고부담 시험이 모든 교육의 단계와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험을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개선이 일어나도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학, 진로를 결정짓는 시험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면서 입시에 필요없는 교과목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학습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시험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개입은 확대된다. 시험을 시행하는 당사자인 교사는 시험문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평가기준이 명확한 지식 관련 문제를 선호하게 되고, 다양한 대안적 평가방법을 시도할 동기와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상, 모든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각 연구문제에 대해 답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일반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시험에 대한 많은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만 시험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 특히, 학습을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 상위 단계로의 진학/진급을 결정하

는 선발의 기능을 하는 고부담 시험의 기능을 신뢰하고 공정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고부담 시험인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어, 그에 대한 찬반 양론이 모두 존재한다. 사교육의 성행은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과 교육에 대한 열망이 결합하여 나타난 독특한 한국적 현상이다. 더 나은 학습 성취를 하기 위한 높은 기대와 동기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더 많은 학습을 하도록 학생들을 압박한다. 부모들은 또한,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한다. 이 같은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은 한국의 유교문화적 전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시험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과거제도의 사회문화적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경쟁은 대학 입학을 넘어서 취업과 그 이후 삶에 이르기까지 치열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험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의 가치와 최선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고르게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한국인의 가치관, 인식, 행위는 모두 상호영향을 미치며 시험문화를 형성한다고 하겠다.

둘째, 시험문화와 교육 정책 및 실재는 상호영향을 미치며 발전하는 순환적 관계를 가진다. 앞서 다섯번째 연구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험에 관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책을 이해하고 따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시험문화가 형성된다. 그런데, 고부담 시험은 그 특성상 응시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고자 노력한다. 이 때 경쟁의 강도가 증가하면 부정확한 방법이나 편법들이 생겨나게 되고 부정적인 측면의 시험문화가 형성되어 부작용이 커지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게 된다. 한국에서는 정답을 고르기 위한 암기위주 교육방식, 사교육의 팽배, 공교육의 부실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되어왔으므로 이에 관한 시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폐지 정책, 수행평가 제도, 자유학기제 등의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 시험문화는 교육 실재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대학입학시험은 초, 중, 고등학교의 각 단계와 과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고부담 시험은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많은 학습량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시험과 관련있는 내용만 학습하는 학습불균형 현상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대안적 평가방법의 무력화 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교육의 실재도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험문화가 교육실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심각해지면 새롭게 개선이 시도되고 그에 대응하는 시험문화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양자간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시험문화가 학습자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내용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었다. 시험문화는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하고, 학부모, 교사, 행정

가 등 관련인들의 책무성을 높임으로써 학습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과는 달리, 학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영향도 미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시험문화는 또한 그에 초점을 맞추어 시험에 유리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교수방법을 바꾸는 ‘역류효과(washback effect)’를 가져오기도 한다. 시험의 중요성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은 국가 및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경제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교육불평등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은 ‘시험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및 실행’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시험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및 실행에 있어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시험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대학입시 등 고부담 시험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과 현실적으로 시험의 가치는 공정성의 가치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초, 중등교육은 대학입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내실화와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새롭게 시도되는 여러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정책과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을 보장하는 정책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

셋째, 학생들이 적성, 능력, 특성에 적합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현장의 움직임 확대하는 한편, 이것이 상급 학교 진학과 연계되도록 하는 제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들의 지나친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교육업체에서 과장해서 부추기는 내용 중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공교육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제안되었다.

첫째, 시험문화의 초점을 기존의 신뢰성에서 타당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고차원적 능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며 또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학생들의 능력을 계량화하고 서열화하는 기존의 양적 평가 체

제를 지속할 수 없다. 시험은 다양한 학습자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을 촉진하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험을 향한 한국인의 교육열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교육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된 힘이다. 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투자는 다음 세대 교육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세대간 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며, 다양한 불평등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한다. 우리가 가진 생산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으로 쏟아지던 투자가 공교육과 지역사회 등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어 이루어지도록 물꼬를 터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관해 타당성 대신 ‘변별력’, ‘공정성’, ‘객관성’ 위주로 점철된 기존의 상황을 개혁하고 교육에 대한 신념체제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담론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육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변별력 논리는 실은, 능력의 상대화를 요구하는 것일 뿐, 개인이 얼마나 교육을 통해 성장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관점에 주목하여 평가 담론의 기본 원칙을 ‘모든 학습자의 성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
3. 연구 방법	8
4. 연구 내용	11
5. 연구의 제한점	12
II. 이론적 배경	15
1.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동인	17
가. 한국의 전통적 교육문화와 시험제도의 기능	17
나.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동인과 주요 쟁점	25
2. 한국의 시험 관련 정책 현황	30
가. 해방 이후 시험 관련 정책의 변화	30
나. 고부담 시험 관련 정책의 변화: 대학수학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	35
3. 시험문화의 영향	39
가. 시험문화가 학습자에 미치는 영향	39
나. 시험문화가 학습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43
III. 연구 결과	49
1. 조사 개요	51
가. 설문조사	51
나. 심층면담	56
2. 주요 결과	62
가. 시험의 중요성	62
나. 시험에 대한 기대, 동기, 영향	72
다. 사교육	81

라. 시험에 대한 인식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89
마. 시험문화와 교육정책간의 관계	95
IV. 결론 및 제언	101
1. 결론	103
가.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103
나. ‘시험문화’와 교육정책 및 실제와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107
다. ‘시험문화’는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과(성취,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109
2. 제언	112
가. 시험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및 실행	113
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21
참 고 문 헌	129
영 문 초 록	137
부 록	147
1. 설문지 (학생, 교사, 학부모용)	149
가. 학생용 설문지	149
나. 교사용 설문지	162
다. 학부모용 설문지	174
2. 세부 응답자 특성표	187
가. 학생 세부 특성표	187
나. 교사 세부 특성표	188
다. 학부모 세부 특성표	189

표 목 차

〈표 1〉 유네스코 방콕 아시아태평양 “시험문화” 지역연구 참여국 및 연구 일정	3
〈표 2〉 한국의 시험문화: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표집 현황(수)	9
〈표 3〉 한국의 시험문화: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대상(수)	9
〈표 4〉 시험제도의 변천과 특징: 고부담 시험을 중심으로	24
〈표 5〉 시험문화와 관련된 역대 정부의 대표적 정책	35
〈표 6〉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변천	35
〈표 7〉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 내용(1994~2018학년도)	37
〈표 8〉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44
〈표 9〉 설문조사 대상 학교	52
〈표 10〉 한국의 시험문화: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표집	53
〈표 1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표	54
〈표 12〉 UNESCO 참여연구: 설문조사 문항구성표	55
〈표 13〉 심층면담 표집	58
〈표 14〉 조사 집단별 심층면담 질문지 내용	59
〈표 15〉 심층면담 지역/학교급별 면담자 데이터 코딩	61
〈표 16〉 수업 시간 중에 한 학기 평균 시험 준비 시간(설문조사)	63
〈표 17〉 수업 시간 외에 한 학기 평균 시험 준비 시간(설문조사)	64
〈표 18〉 시험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과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심층면담)	65
〈표 19〉 학기 중 평균 자유시간(설문조사)	66
〈표 20〉 일반적인 시험의 목적(심층면담)	66
〈표 21〉 고부담 시험의 목적(설문조사, 다중복수응답)	67
〈표 22〉 고부담 시험의 목적(심층면담)	68
〈표 23〉 고부담 시험의 중요성(설문조사)	69
〈표 24〉 고부담 시험의 중요성(심층면담)	69

<표 25> 시험에 준비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설문조사, 다중복수응답)	70
<표 26> 시험이 가까워질 때,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르치거나 기타 활용 여부(설문조사)	72
<표 27> 학업성취와 시험에 대한 기대(설문조사)	73
<표 28>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나 학업 성취에 관해 기대하는 것(설문조사, 복수응답)	73
<표 29> 시험에 대해 학부모가 가지는 기대와 학부모의 영향력(심층면담) ...	75
<표 30> 시험에 대한 학생의 불안감 및 동기(설문조사)	77
<표 31> 시험의 부담감(심층면담)	77
<표 32> 시험에서 나오는 동기(심층면담)	78
<표 33>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 및 만족도(설문조사)	79
<표 34> 시험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심층면담)	80
<표 35> 사교육을 받는 이유(설문조사, 다중복수응답)	82
<표 36>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및 인식(심층면담)	83
<표 37>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86
<표 38>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심층면담)	87
<표 39> 시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90
<표 40> 시험에 대한 인식(심층면담)	90
<표 41> 시험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92
<표 42>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교사/학교가 노력하는지 여부 (설문조사)	94
<표 43>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심층면담)	97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과 OECD 평균 비정규직률 비교	28
<그림 2> '미래에서 온 투표' 설문조사 사례	42
<그림 3> 설문조사 대상 학교 분포도	52
<그림 4> 학령인구 · 고교졸업자수 · 대학입학정원 변화 추이	123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방법
4. 연구내용
5.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UNESCO Bangkok 사무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부서(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가 수행하는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 연구의 한국 사례 연구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전체적 시험 문화 지역연구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홍콩), 피지, 인도, 필리핀, 통가, 베트남,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의 총 10개국 연구대표자들이 2016년 11월 UNESCO Bangkok 회의에 모여 연구의 취지, 연구문제, 연구 방법 및 내용 등을 논의하였으며, 2017년 초반부 각 국가별 사례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2017년 초반부 약 5월말까지 사례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별 사례연구가 종료되면, UNESCO Bangkok 사무소에서 이를 수합, 분석하여 2017년 중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국제적 비교연구결과를 제시할 계획에 있다. 연구 참여국가와 연구일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네스코 방콕 아시아태평양 “시험문화” 지역연구 참여국 및 연구 일정

참여국가	한국, 일본, 중국(홍콩), 피지, 인도, 필리핀, 통가, 베트남,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기간	연구활동
2016. 11. 22~23	오리엔테이션 미팅: 연구문제, 방법, 조사도구 등 확정
2017. 1 ~ 3	각 국가별 연구 수행
2017. 3. 31	1차 국가별 사례연구 초안(국가별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
2017. 5. 31	국가별 사례연구 최종안
2017. 5 ~ 7	지역연구 종합보고서 작성
2017. 7	지역연구 종합보고서 검토
2017. 8	지역연구 종합보고서 출판

UNESCO Bangkok 사무소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교육 정책의 핵심 주안점으로서, 또한 교육체계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를 증진하는데 애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일종의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가 형성되는 것을 주목하여 왔다. 여기서 시험(testing)이란 ‘사람의 숙련도 또는 지식의 질이나 성과를 확립하고자 하는 절차; 학습자를 평가하는 행위’로 규정되며, 진학과 선발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고부담 시험(high-stakes exam)’을 뜻하는데, 이러한 시험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다양한 시험(low-stakes exam)이나 평가의 영향도 포함된다. 이 같은 ‘시험’의 수행을 둘러싸고 시험을 치르는 학습자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 생성된 접근과 방식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이른바 ‘시험문화’로 명명되고 있다. 즉, 시험 문화란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각 개인을 포함한 관련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 있어서 더 나은 성취를 이루고자하는 인식과 실천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시험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높은 점수(high scores)’에만 초점을 두는 현실은 학습자의 성장을 설명하고 도와주기 위한 근본적인 시험의 특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며, UNESCO Bangkok 사무소는 이러한 문화가 팽배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 사례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 비교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하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 및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동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학습자, 학부모, 교사, 기타 전문가 및 관계자의 관점 포함)
2. 다양한 국가 시험 및 평가 시험, 대학입학시험 등 주요 고부담 시험에 대한 국가별 주요 교육정책 분석
3. 시험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과 더불어 정책입안자, 교육전문가, 기타 교육관련자 및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 도출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하는 한국의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동인을 탐색하고 이것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시험문화가 어떻게 교육 정책과 체제를 형성하며 이것이 다시 시험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관한 다양한 측면과 인식을 탐구하고, 특히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네 번째인 교육 분야 목표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특정 직업의 자격을 증명하거나 일자리의 진입 또는 졸업을 승인하는 도구로서 대부분의 현대사회에 존재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시험이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후 관리, 관료를 임명하는 수단으로 시험이 생겨나면서 이후 여러 변화, 발전을 겪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고 있다.

시험과 관련하여 형성, 유지되고 있는 일종의 ‘시험문화’ 현상은 사람들의 삶과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 시험문화는 시 맥락적 특성상 다양한 사회,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방식을 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관점에서 쉽게 해석하기 어렵다.

최근,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다 좋은 수행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점점 늘어나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것은 대학입시와 같은 고부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 고부담시험(high-stakes exam)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병기)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전국민적 관심 아래, 수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해왔다. 수능은 한국 사회의 교육열,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교육에 대한 강한 관심과 개입, 사교육의 성행 등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고부담 시험은 졸업, 대학진학, 더 좋은 학교의 입학, 좋은 직장으로의 취업 등 학습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결과가 예산이나 평판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교사, 학교, 가족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시험의 존재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합리화될 수 있겠으나 ‘고득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험에서는 종종 간과되어왔던, 적어도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방식에 있어서 학습의 본질적 측면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많은 교사와 교육자들은 공적인 시험과 국가 수준 평가의 일부로서 평가하기에 아주 적절하고 ‘시험 점수(test score)’으로 수량화하기에 용이한 ‘학업적인(academic)’ 학습의 영역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 시험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학교교육의 목적과 본질을 지배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시험에 대비하고,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업적 성공에 대해 계속 불안해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학교와 교사들도 시험에만 초점을 기울여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거나 좋은 시험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안되는 교육과정의 부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무엇이 이처럼 어떤 사회로 하여금 시험을 강조하도록 하며 어떻게 이러한 압력이 그 사회의 학습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적 맥락 내에서, 시험문화를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있겠으나 표준화된 시험 체제의 근원은 능력주의를 토대로 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했던 유교적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다(Kennedy, 2016). 유교문화는 성실과 근면을 강조하며 타고난 능력보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성취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신분상승을 이루기 위한 기저로 작동해왔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전통과 더불어, 최근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부합하는 교육 체제로의 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험과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각 국가들은 국제적인 비교 성적표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평가와 시험에서 수행결과를 높이하고자 한다. 자녀들의 학업적 수행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 또한 시험문화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인근의 많은 국가에서 사교육이 팽배해 있는데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정규교육을 보충할 뿐 아니라 대학입시나 기타 다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 계층이동(social mobility)’의 기회와 관련이 있는데,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공장이나 농장 근로자를 넘어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원하며(Mason, 2014), 높은 시험 성적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중요한 교과목이 아닌 학습이나 기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며, 학교숙제를 관리하고 학업 성적에 중요한 것만을 학습하도록 감시하는 ‘엄격한 양육(tiger parenting)’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녀들이 우수한 학업적 성취를 이루도록 부정적인 동기화로서 처벌과 수치(shaming)를 이용하며, 이러한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선택과 관점에 있어서 교사보다 훨씬 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시험문화의 형성 동인과 그것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미흡하며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세계적 교육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UN정상 회의에서 국제개발의제로 수립된 SDGs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글로벌 개발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네 번째 목표인 SDG 4는 단순히 교육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생애 전주기와 전 영역에 걸친 학습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의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육목표 중 세부목표 4.7은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 체제가 이른바 ‘비학

업적(non-academic)’ 학습 영역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팀워크 등 보다 확장된 범위의 기술과 역량을 반드시 갖추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교육 체제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일에 있어 보다 잘 준비되도록 하고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UNESCO Bangkok, 2016). 현재의 글로벌화된 경제는 더욱더 교육 체제가 이러한 역량에 초점을 두기를 바라며 이는 전통적 방식의 교수학습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Mason, 2014). 앞서 기술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험문화는 이러한 세계적 교육 흐름과는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며 교육 본연의 목적을 왜곡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시험문화와 관련하여, 먼저 그것을 형성하는 문화적 전통과 함께, 시험으로 인한 학습의 질과 관련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쟁점들을 분석한다. 또한 학습자, 교사, 학부모의 관점에서 시험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관해 탐구함으로써 시험문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조사한다. 이어 시험에 관한 교육 정책 및 실행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교육 정책적 관점에서 시험문화의 영향을 탐색한다. 여기에는 시험이 교육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역량, 특히 비학습적인 영역에 관해 어떠한 비중을 두는지 등에 관한 탐색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시험문화가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시험문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체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며 교육정책과 실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 연구문제를 다룬다. 각 연구문제는 매우 큰 규모의 포괄적인 질문으로서 시험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하위 질문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시험문화’와 교육정책 및 실제와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시험문화’는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과(성취,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관해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고유한 맥락에서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제도의 역할과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교육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학교와 교육체계가 어떻게 그러한 문화의 형성을 강화하거나 심화하는지를 고찰하여 시험문화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본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행정가 등 시험과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들이 시험의 목적과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험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어떤 학습자가 시험문화에 더욱 또는 덜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하여 시험문화가 교육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시험문화와 교육정책 및 실제와의 관련성에 관해 탐구한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이 시험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변해왔는지 아니면 교육과정에 따라 시험이 변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정책에 시험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어, 교사교육과 교사의 교육관과 시험문화와의 관계를 탐색하여 시험문화가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본다. 더불어, 시험문화가 교사의 실행, 예를 들면, 가르칠 충분한 시간의 확보,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활동과 범위,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력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시험문화와 관련된 공립과 사립교육의 차이, 사교육 또는 시험대비기관의 실태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시험문화가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먼저, 시험을 통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학습자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이어, 중요한 시험에 대한 다양한 관련당사자들의 인식과 사교육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시험문화가 학생들의 삶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조사

국내의 선행 연구, 정책 보고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시험 및 시험문화와 관련된 배경정보, 최근 정책과 실행, 사교육 관련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 아시아와 한국의 시험 및 시험문화 관련 역사
- 시험(high-stakes exam) 관련된 한국의 교육정책
- 시험문화의 형성, 강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한국의 사교육 관련 통계, 현황자료, 선행연구 분석

나. 설문조사

UNESCO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 및 시험문화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초,

중, 고등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험의 중요성, 의미, 영향력, 문제점 등에 관해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한다.

- 대상: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초6, 중3, 고2), 교사, 학부모
- 표집: UNESCO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 학교를 사립/공립, 대도시/중소도시로 구분, 학교급별로 학생, 교사, 학부모 표집, 응답자 총 2,323명

〈표 2〉 한국의 시험문화: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표집 현황(명)

학교 급	학년	조사대상 인원 수												합계
		사립						공립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학생	학부모	교사										
초등학교	6학년	104	112	61	74	55	65	113	60	94	99	74	102	1,013
중학교	3학년	53	51	64	56	39	63	55	66	39	45	39	38	608
고등학교	2학년	56	44	60	106	50	107	56	42	57	42	39	43	702
합계		213	207	185	236	144	235	224	168	190	186	152	183	2,323

- 일시: 2017년 4~5월 중
- 방법: 조사전문업체 용역에 의한 조사

다. 심층면담

설문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보다 깊이 있는 인식과 세부내용 탐색을 위해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및 시험문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전사, 분석한다.

- 대상: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교사, 학부모 등 집단별 약 20여명, 총 64명

〈표 3〉 한국의 시험문화: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대상(명)

학교 급	학생	학부모	교사	합계
초등학교	7	7	7	21
중학교	10	7	8	25
고등학교	6	6	6	18
합계	23	20	21	64

- 주요면담 내용: 시험의 종류와 중요성, 시험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시험과 수업/학습과의 관계 및 상호영향력, 시험과 관련된 압박, 사교육 참여 현황 및 관련 인식, 시험의 교육적 의미와 한계 등
- 일시: 2017년 4-5월 중
-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 개발 및 실시

라.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시험문화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 교사가 실제로 느끼는 경험과 지식에 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을 비롯하여 행정가,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가능한 여러 집단의 견해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더불어 시험문화와 관련된 중요 이슈와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 대상: 초, 중, 고 학교 관계자, 학부모, 관련 전문연구자 및 학계 전문가
- 일시: 2017년 5-8월 중
 - 제 1차: 초등학교 현장교사 FGI (5월 중)
 - 제 2차: 중학교 현장교사 FGI (5월 중)
 - 제 3차: 고등학교 현장교사 FGI (6월 중)
 - 제 4차: 초, 중, 고 학부모 FGI (6월 중)
 - 제 5차: 학계 전문가 FGI (7월 중)

마.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주제인 시험 및 시험문화와 관련된 각종 전문가,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시험문화의 사회문화적 동인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쟁점, 개선방안,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 대상: 관련 전문연구자 및 학계 전문가
- 일시: 2017년 6-8월 중
 - 제 1차 전문가협의회: 이론적 논의, 방법론 (6월 중)
 - 제 2차 전문가협의회: 연구조사결과 및 해석 (7월 중)
 - 제 3차 전문가협의회: 시험문화 개선방안 (8월 중)

4. 연구 내용

가.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의 시험문화를 이루어왔던 역사적 전통, 문화, 관습 등을 탐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시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인식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교육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시험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정리한다.

나. 시험문화와 관련된 교육 정책 및 체제 분석

학생, 학부모, 교사, 기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시험문화가 교육 정책, 체제,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시험문화가 한국의 국가적 교육 정책과 체제의 거시적 수준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실제적 수행과 교실내 교사의 역할 등 미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받게 되는지에 관해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교육(shadow education)’ 과 관련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 시험문화가 학습자 및 학습자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험문화가 실제로 초, 중, 고등학교 수준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또는 겪는 과정에 있는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해 면밀하게 탐구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 학부모의 훈육방식, 교사/교장/학교의 교육방침, 취업/성공에 대한 기대 등 학습자를 압박하는 시험문화의 다양한 유형과 요소들을 도출한다. 이어, 시험을 통한 성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각 학교급별 학생들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다. 더불어, 그러한 영향에 관해 학습자를 포함한 교사,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험문화가 학습자 및 학습자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라. 시험문화와 관련된 한계점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본 연구의 과정에서 찾아낸 시험문화를 형성,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동인들과 관련하여, 이들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교육과 학습의 본질적 측면을 촉진시킴으로써 학습자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5. 연구의 제한점

가. 국제비교 연구의 특성상의 제한점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UNESCO 방콕사무소가 주관하는 10개국 비교 연구로서 각 국가가 사례연구를 실시 한 뒤 UNESCO측에서 이를 수합, 분석하여 국제적 비교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사례연구가 따로 진행되기는 했으나 연구의 취지,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내용 등은 UNESCO와 10개국의 연구대표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시험문화가 학습 및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맥락화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면담 상황과 면담자 특성, 배경 및 맥락에 맞게 질문을 할 수 있어, 연구자의 역량 하에 우리나라의 교육체제, 역사적 배경, 정책 및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시험문화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였으나, 설문조사의 경우 문항이 10개국 공통으로 개발되어 한국의 시험문화를 더욱 자세히 알아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적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시험문화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 맥락의 문항에 있어서는 응답자가 질문을 취지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러한 응답을 포함한 조사결과가 현실을 왜곡하거나 다르게 이해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및 질적 조사 자료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개인이 가지는 시험의 의미

시험문화와 시험에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는 국가는 물론이고 지역, 세대, 학교급, 교육에 대한 입장 등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 형성되므로 사람들마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서 활용할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문화 및 시험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거나 이해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었던 보인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시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 학기 평균 시험을 보는 횟수가 학년별로 편차를 보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 시험을 더 많이 보지 않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현실과는 다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시험 현상과 다르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학교급별로 또는 학교에 따라 시험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일 수 있고 이는 시험문화가 갖는 일반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시험’이 집필식 선다형 시험인지, 다른 평가도 포함하는지를 설문조사에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설문조사에서 말하는 ‘시험’에 대해 더욱 맥락적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 심층면담 대상의 편향성

심층면담 대상자를 표집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협력교사의 지원을 통해 집단별로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편향된 선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교사의 추천 및 직접적인 섭외로 면담 대상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경우 비슷한 견해를 가진 동료들이 면담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학생 집단의 경우 수업태도가 좋거나 시험성적이 높고 여러 학교관련 활동 참여에 열의를 보이는 학생들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심층면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이미 교육에 관심이 많고 열의를 보이는 사람들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협력교사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사항과 학업 수준의 면담자가 필요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층면담 결과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심층면담 대상자에서 성별과 직업과 관련하여 심한 편향성을 보였는데, 이는 심층면담을 실시한 시간이나 우리나라 가정 내에서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접근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담은 주로 주중에 이루어졌으

며, 학부모의 경우 최대한 퇴근시간에 맞추어 실시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면담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 많아 21명의 학부모 중 단 한명만이 학생의 아버지였으며, 직장이 있거나 부업을 하는 어머니들도 종종 있었으나 대다수는 주중 오전 10시와 오후 7시 사이에 심층면담이 가능한 전업주부들로 구성되었다. 전업주부들이 교육이나 시험에 대해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러한 표집결과는 심층면담 대상에 편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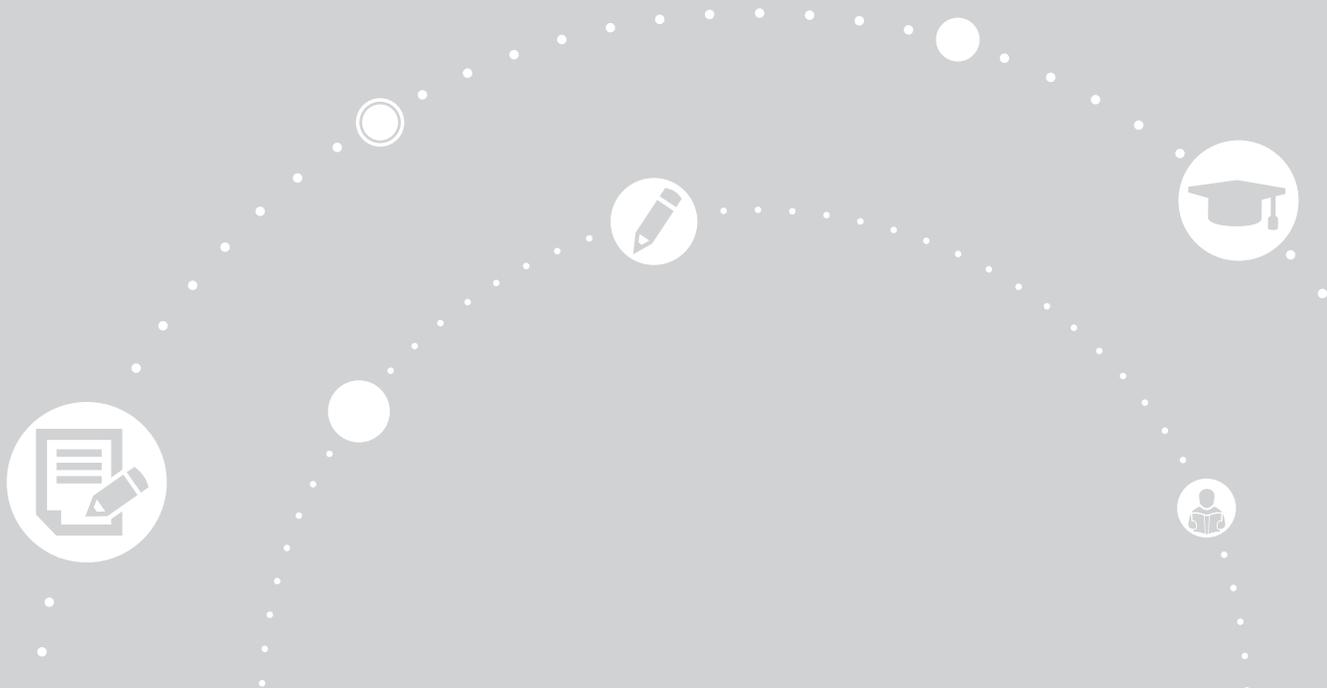
라. 대입준비 및 수능 관련 연구 참여자 제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단계의 학생 중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시험문화를 가장 오랫동안 경험해온 학생은 당연 고등학교 3학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적 조사대상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순적이게도 우리나라의 대입준비와 수능의 막대한 중요성 때문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이 불가능했다. 본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이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는 학교나 학부모를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사실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및 교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대입 및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학습 및 생활의 모든 우선순위는 수능에 두어지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은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비슷한 이유로 연구에 지역적 제한 또한 존재하였는데,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 강남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엄청난 교육열과 심화된 경쟁, 높은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 비용 등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한국의 시험문화에 대하여 조사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남에 있는 학교들을 연락해본 결과 심층면담 참여에 동의한 학교는 전무하였으며,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고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모두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강남지역 학교들이 수능에 대하여 받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험문화의 특성을 조사하는데 있어 이같이 시험문화의 최정점에 존재하는 강남 지역 사례를 포함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지나, 달리 보면 오히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 차원의 실제적 현상을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왜곡할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만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동인
2. 한국의 시험 관련 정책 현황
3. 시험문화의 영향



II. 이론적 배경

한국에서 교육은 생존의 문제와 다름이 아니다.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현재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표로 기능해왔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생존의 여부는 물론, 인생의 성공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가 되어왔다. 이처럼 시험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 하에 ‘시험문화’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험의 수행을 둘러싸고 더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 학습자 당사자,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이 노력하는 가운데 생성된 독특한 문화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본 장에서는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시험문화에 관한 다양한 면모와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동인을 알아본다. 한국의 시험문화를 이루어왔던 역사적 전통과 제도에 관해 탐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시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과 더불어 관련 쟁점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의 시험문화와 관련된 최근 교육 정책을 살펴본다. 해방이후부터 시험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을 알아보고,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실시된 문민정부 이후에 시기별로 수립, 시행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시험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로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한다. 시험과 관련하여 학습자를 압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험 결과에 기반한 성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관해 알아본다.

1.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동인

가. 한국의 전통적 교육문화와 시험제도의 기능

한 나라가 가진 고유한 교육문화는 교육에 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하고 사회적 실천을 이끈다. 강창동(2013)에 따르면, 문화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잠재해 있으며 이는 외부적 조건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관계로 발현되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욕망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 되며, 따라서

교육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망을 밝히는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교육문화는 대략 15세기도 더 전에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유교적 철학과 결합되어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지식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 인간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완벽해질 수 있으며, 가장 지적인 사람만이 국가와 사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오랜 유교적 믿음에 기인한다. 천년 이상, 공직자 또는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통해 사회적인 주요 권력을 가질 수 있었기에 시험에서의 성공은 한 가문의 명성과 운을 결정하곤 했다(Kwon et al., 2015). 유교적 철학은 한반도가 통일된 7세기 이후 국가의 핵심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 고려시대(918~1392)인 958년 공직 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인 ‘과거’ 제도가 확립되었고(Baek et al., 2011), 이 시기를 통틀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교적 가르침과 도덕적 훈련을 촉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조선시대((1392~1910)에 이르러 ‘신유교주의(Neo-Confucianism)’로 명명되면서 보다 강화되었고 국가를 다스리는 정통교리로 채택됨으로써 다른 믿음의 체계들은 2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으며(Lew, 2000), 공직 시험제도는 명실 공히 고위 관료를 선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 기관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교육이 주로 시험 준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서구식 교육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식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가 세워지고 정부가 근대 학교 체제의 기반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며(Sorensen, 1994), 일제강점기(1910~1945) 동안에는 기초 교육과 중등 및 고등교육으로의 순차적인 교육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학교교육에 있어 한국인들의 상위 수준으로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1945년 독립 이후, 한국전쟁(1950~1953) 시기에는 많은 기존의 사회적 신분체계가 붕괴되었으며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1953년부터 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중학교 보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69년 중학교 입학시험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시험은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늘날 한국교육 관련 이슈의 최정점에 있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신분 상승과 지위를 결정짓는 선발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won et al., 2015).

전통적으로 한국의 교육문화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교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는데 개략적으로는 송문주의, 입신양명주의, 문벌주의, 가족주의 등을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숭문주의(崇文主義)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유교 중심의 문치주의와 맥락을 함께 한다(강창동, 2013). 이는 문(文)을 무(武)보다 숭상하고 문신(文臣)을 무신(武臣)보다 우대하던 조선 시대의 사회적 경향을 일컫는다(교육학용어사전, 2011).

19세기 말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학문 형식은 한문(漢文)이었고 그 내용은 유교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정치가 행해졌고 국정운영을 위한 과거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신(文臣)의 지위는 날로 높아가는 데 반해 문신 이외의 지위는 저하되어 갔으며, 그 결과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하는 사상이 현저해졌다. 당시, 문자를 익히고 학문을 독점할 수 있는 계층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학문은 지배자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곧 양반의 신분을 유지해주며 동시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교육열은 그 무엇보다도 높을 수 밖에 없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94). 이처럼, 국가가 문(文)을 숭상하고 선비들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점은 바람직하였으나, 당시의 제도 상 교육의 목적이 유교적 경서를 통한 일신상의 영달에 있었기 때문에 숭문주의는 상명주의(尙名主義)·형식주의를 고취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교육학용어사전, 2011).

둘째, 입신양명주의(立身揚名主義)는 유학 사상 중 효(孝)와 관련이 있는데, 입신(立身)하여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실천원리였다. 따라서 이는 유학의 실천 사항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조선조에 이르러 좋은 취지가 변질되고 세속적 의미를 띄게 되었다(이정규, 2003). 김재영(2004)에 의하면 양명의식은 무조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관료주의적 사고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와 인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자녀의 결혼과 부모의 장례도 그 행사의 본질적인 면보다는 형식과 격식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가의 숫자를 통해 스스로 살아온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전망을 내린다.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한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반드시 입신양명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 과거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입신양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통로였고 과거 합격은 개인이나 가문의 위세를 보증할 뿐 아니라 양반 신분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이득으로 인해 과거합격을 통해 관직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치열해졌으며 출세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셋째, 문벌주의(門閥主義)에서 문(門)은 사회적 동류의식을 지녔거나 연대 가능한 집단을 의미한다. 벌(閥)은 공적이나 공훈을 뜻하며 시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벌(門閥)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나 지체 뿐만 아니라 종교나 학술, 그리고 직업 등에서 여러 대에 걸쳐 만든 공훈이나 공적 등을 세워, 높은 사회적 명망과 위세를 이룩한 세력화된 집단” (강창동, 2013, p. 229)을 의미한다. 즉, 문벌은 오랜 기간동안 여러 대에 걸쳐 이루어진 높은 사회적 권위와 명성을 갖춘 가족 또는 사회 집단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사회적 특권은 대대로 세습된다. 강창동(2013)은 문벌주의가 비슷한 신분적 지위, 삶의 유형, 문화양식, 신념체계 등 동류 의식을 통해 유기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자신이 속한 지위집단의 사회적 가치나 위세를 높이기 위해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베버(M. Weber, 1968)의 ‘지위 집단(status group)’ 개념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문벌집단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소한 3세대 이상 문과관료를 배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가진 신분적 가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제를 통한 관료 배출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해주는 효과적 수단이 바로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집착은 점점 강해졌다. 문벌로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 합격을 통해 그 능력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했으며 따라서 교육은 문벌 가문이 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교육은 문벌 가문을 지향하게 하며 문벌적 유대의식을 강화하여 그 특권적 혜택을 공유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 하겠다(강창동, 2013).

넷째, 가족주의(家族主義)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개개의 가족 구성원보다 중시하고 가족적 인간관계를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사상이다(두산백과, 2017. 5. 24). 전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은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가족의 행복이 최상의 목표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현대적 국가체제를 갖추면서도 가족이라는 집단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공동체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영복(2005)은 우리나라의 사회생활은 마치 가족적 인간관계가 확대된 것처럼 정서적이고 친숙한데,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이 가족의 보호 아래 살아왔고 가족의 책임 아래 개인생활이 영위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개인이 민족이나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역사적 경험이 누적되어 타성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가족 구성원의 수직적 위계 관계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가족의 집단적 발전을 도모하며 가족 내부의 위계 가치가 사회로 확대, 발현되도록 한다. 가족주의 교육문화 속에는 숭문주의, 입신양명주의, 문벌주의 교육문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국 교육문화의 특성이 결집되어 있다(강창동, 2013). 여기에는 숭문주의 전통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에 합격해 입신양명하면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벌화를 촉

진할 수 있었기에 가족주의는 한국 교육문화의 총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문화적 맥락은 성리학, 입신양명주의, 승문주의, 문벌주의, 가족주의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제만큼 현재 한국의 시험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제는 고려조부터 실시된 공직자 임용을 위한 국가고시로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과거제도를 통해 개인의 능력으로 지위 이동이 가능케 되었으며,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대로 들어오면서 원칙적으로 양인(良人)이고, 남성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제도는 추천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보다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 과거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문치(文治)가 정착될 수 있었다.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했으며,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학식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의 지배계층이 주로 무력을 장악한 계급이 무력을 앞세워 통치를 한 것을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인재 등용 방식은 19세기 이전에 중국, 한국(조선), 베트남 정도를 제외하면 찾기 힘들 정도로 예외적인 현상이다(이남희, 2013, 김경용, 2014). 서구에서 과거제도와 같은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국가고시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세기 중후반으로, 그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유사한 제도가 없었으며 교육제도와 공직체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김경용, 2014). 교육제도와 공직체계가 연관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적인 능력보다는 권력, 혈통, 인종, 재산 등과 같은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지위 상승의 가능성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교사회에서는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교육의 대상을 일부 계층에 한정하지 않았다. 『논어(論語)』의 「위령공(衛靈公)」편에서 공자는 ‘유교무류(有教無類)’라고 하였다. ‘유교무류’는 ‘가르침이 있으면 사람의 종류는 없어진다’는 것으로, 사람의 귀천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하게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혈통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그대로 실현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로 노력해왔다.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된 고려는 귀족제 사회를 이루면서도 과거제를 실시하여 인재 선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평등성과 공공성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층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교육을 충분히 받고 배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만큼, 일반 서민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힘들었고 현실적으로 신분에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과거제도는 관료들의 사회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정현진, 2009, 이남희, 2013). 특히 고려시대에는 아직 음서제의 영향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과거제도에서 추구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고려시대 과거제의 명목적인 평등성과 공공성은 조선조로 오면서 보다 확대되었다. 우선 음서제도의 영향력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음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은 7품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여 과거제도를 통해서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또한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성균관의 입학자격을 주었다. 이는 부모의 품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입학이 가능했던 고려의 국가감에 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방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사실상 양반가의 자제 이외에는 대소과에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용(2014)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자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한 봉미법과 할거법, 그리고 과거제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된 점 등을 들어 조선조의 과거제는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혈통적 귀속요인보다 성취적 업적요인을 존중하는 사회질서를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힘을 마련”(P.129) 하여 조선조가 동일한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문화적 성격을 500여 년 동안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과거제와 관료제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문인들에 의한 지배와 통치인 문치주의로 이어지며 과거제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부각시켰는데, 이 이유는 고려와 조선시대에서 관직은 신분 상승과 유지를 위한 장치로서 그 사회적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직 획득을 위해서는 계급 간 경쟁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인 양반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제와 관료제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문인들에 의한 지배와 통치인 문치주의로 이어지며 과거제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부각시켰는데, 이 이유는 고려와 조선시대에서 관직은 신분 상승과 유지를 위한 장치로서 그 사회적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직 획득을 위해서는 계급 간 경쟁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인 양반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과거제는

학교 제도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고려와 조선시대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가가 필요한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과거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강창동, 2013), 조선조에는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한 자에 한해서 과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체제의 기반이 굳건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김경용, 2014).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와 같은 관리 임용시험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상시적인 시험제도도 운영되고 있었다. 영조 대에 정리된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의 과시(課試)관련 규정을 확인해보면 성균관·사학·각도의 향교에 있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험의 성격과 성적에 따라 성적우수자에게는 급분(給分)이라고 해서 과거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직부(直赴)라고 하여 과거시험에서 초시 또는 회시까지 면제해주었다(최광만, 2017). 또한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교생고강을 실시하였는데, 교생고강에서 연속해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학교에 더 이상 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여 향교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이연진, 2013). 이렇듯 조선시대에 시험은 교육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이미 이 때부터 한국사람들에게 시험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한 편 교육을 통해 추구하였던 목표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1582년에 율곡 이이가 작성한 『학교모범(學校模範)』이라는 문건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모범』은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명을 받아 당시 대신들과 협의하여 성균관의 「학령」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단순히 율곡 이이의 개인적인 저작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식적인 문건이라 할 수 있다. 『학교모범』의 첫 장인 「입지(立志, 뜻을 세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독경(篤敬, 경을 돈독히 함)」에서는 ‘공부에 힘쓰기를 비록 오래더라도 그 효과를 보려 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부지런히 하여 죽은 뒤에야 그만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는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한말 교육문화 발전사를 살펴보면 근대학교 체제가 형성된 이후 과거 교육의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는 옛 과거제도를 수행할 새로운 대행 기관으로 인식되었고 외국어 교육이 출세의 도구로 여겨졌는데 이는 근현대에 들어 대학교를 입신출세의 도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는 등 교육에 대한 과거의 전통적 인식과 열망이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강창동, 2013). 정범모(이종승과 허숙(2003))는 과도한 시험준비, 시험위주 교육 등의 현대 한국의 시험문화를 ‘과거시험의 망령’이라 표현하였다. 교육적 능력은 사회적 능력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위 배분의 선별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학력이 능력주의의 이데올로

기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강창동, 2013).

이렇듯 과거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문화는 현재 교육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 과거제를 향한 인식과 현재 사회에서 학생들이 대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향한 인식, 그리고 그 뒤에 존재하는 교육열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한 예로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되는 현대 공개채용시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국가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같을 뿐만 아니라, 시험 절차 및 과정등을 비교분석하였을 때 시험에 대한 전통적 교육열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정현진, 2009). 또한 시험문화와 사회문화간의 긴밀한 연계성 또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강창동(2013)은 “과거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교육문화는 사회적 이해관계의 구현이라는 교육의 도구적 맥락 위에서 전개됐다” (p.349)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교육은 사회적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실시되었으며, 조선조에서는 과거제도가 사회적 유동성을 논하는데 필수적이었던 것만큼, 현대사회의 시험문화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현상들과 문제점들을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시험제도의 변천과 특징: 고부담 시험을 중심으로

시기	시험 제도	시험의 목적	주요 특징
고려	과거시험	관리 선발	- 제술과, 명경과, 승과, 잡과로 선발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능력주의를 제도화 시킨 제도 - 문벌귀족 사회에서 음서제도도 강력하였음
조선	과거시험	관리 선발	- 문과, 무과, 소과, 잡과로 선발 - 고려시대보다 음서제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실질적으로 관료 선발에 중심적인 제도가 됨 - 양인 남성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므로, 고려시대보다 기회에 있어서는 더 열려 있었음.
	과시(課試)	학생의 학업장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시험 - 시험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과거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초시가 면제되기도 함
조선	교생고강	학생의 학업장려	- 학교나 사학에서 불가울로 실시 - 이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학적에서 제외되고, 군역에 충정됨 - 상을 주는 시험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의 수학 자격을 박탈하는 시험
	고등문관시험	관리 선발	-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로 선발 - 오늘날 고시제도의 기원이라 일컬어짐
근현대	고등문관시험	관리 선발	-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로 선발 - 오늘날 고시제도의 기원이라 일컬어짐
현재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관리 선발	- 경쟁시험을 통해 공무원 5급, 7급, 9급 세가지 직급을 공개채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 입학에 위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암기식이었던 학력고사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대체됨 -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이미 졸업한 자,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	--------------	--

나.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동인과 주요 쟁점

한국사회에서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동인은 매우 다양하며 복잡적이다. 앞서 탐색해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전통적 교육관과 시험제도는 현재의 시험문화 형성에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관련되면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동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매우 익숙한 방식이다.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능력에 대한 검증은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학교에서부터 매우 익숙한 방식이었다. 강창동(2013)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문화는 교육적 욕망의 사회적 흐름이며 인식의 경향성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교육문화를 볼 때, ‘교육 출세주의’와 ‘교육 신분주의’에 입각한 도구적 가치는 교육적 욕망의 근원이 되어왔다. 앞서 기술한 바를 요약해보면, 과거제는 고려조때부터 조선조까지 약 1000년동안 공직자 임용을 위한 주 수단이었으며, 국가고시를 통해 신분상승이 가능한 전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나라이다(김경용, 2014). 봄과 가을에 있는 교생고장을 통해서 자신이 학교에서 수학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고, 각종 과시를 통해서 과거시험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한 것이었으며, 양인 남성이면 누구나 향교에 입학하고 과거시험에 응시할 자격은 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시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다. 즉, 양인이고 남성이면 시험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면 누구나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기에, 일정 부분 능력본위의 인재등용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최영호, 1971, 이정규, 2003 에서 재인용). 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다가왔던 것이었다. 현재에도 공무원 임용의 큰 비율이 시험을 봐서 채용이 되는 방식인 공개경쟁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고시를 통해 “개천에서 용 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이기에 가능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개경쟁 채용제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5급, 7급, 9급 등 세가지 직급의 공무원을 공개채용하는

데, 이는 공정성, 객관성,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정부수립 이후 60여년이 넘게 공직을 채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김정운, 2012). 더 나아가 현재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과거제의 현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적주의의 공무원제를 채택한 나라들과 상이되는 채용방식이다.

둘째, 한국 사람들은 다른 방식보다 시험에 대한 믿음이 크다.

시험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시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이 과연 사람의 능력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해왔고, 현량과와 같이 기존의 과거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한 채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시험의 여러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조차 결국 시험을 평가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교육에서 측정을 평가로 혼동하는 우리나라 사회적 관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평가는 곧 시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한국교육네트워크, 2011). 또한 시험 제도를 좀 더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해오면서 시험제도를 운영해왔다. 붕미, 역서, 할거 등과 같은 방식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험제도를 보완하면서 등장하게 된 산물이었다(김경용, 2014). 시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끊임없는 보완을 통해 한국 사람들은 시험제도는 최소한 공정성에서만큼은 여타 제도에 비해 낫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학교에서의 내신성적 평가체제나 진학을 위한 입학시험 평가체제는 결국 개개인의 서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타당도보다 평가의 신뢰도, 객관도가 더욱 강조되어 왔으며, 신뢰도와 객관도 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지필식 선다형 시험이 주된 평가방식이 되 온 것이다(황정규, 2000). 더 이론적으로 시험의 사회기능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공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정보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평가적 국가(evaluate state)’ 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부모라는 소비자들에게 학교라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국가적인 평가가 바로 시험이기 때문이다(한국교육네트워크, 2011).

셋째,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경쟁이 심하다.

일단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하고 있다. 최영표 외(1989)의 연구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에 대해 ‘좋은 직업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영화 외(1994)의 연구에 있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 경우 겪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인

은 직업을 46.0%, 승진을 23%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의 인식이 79%에 이른다는 이동원 외(1992)의 연구는 이같은 경쟁이 매우 배타적이며 수월주의적 양식을 띠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6)에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서는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있다는 의견이 89.5%,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4%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91.7%가 출신학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벌주의는 지속될 것이다’는 의견은 82.8%로, 지금도 여전히 학벌주의가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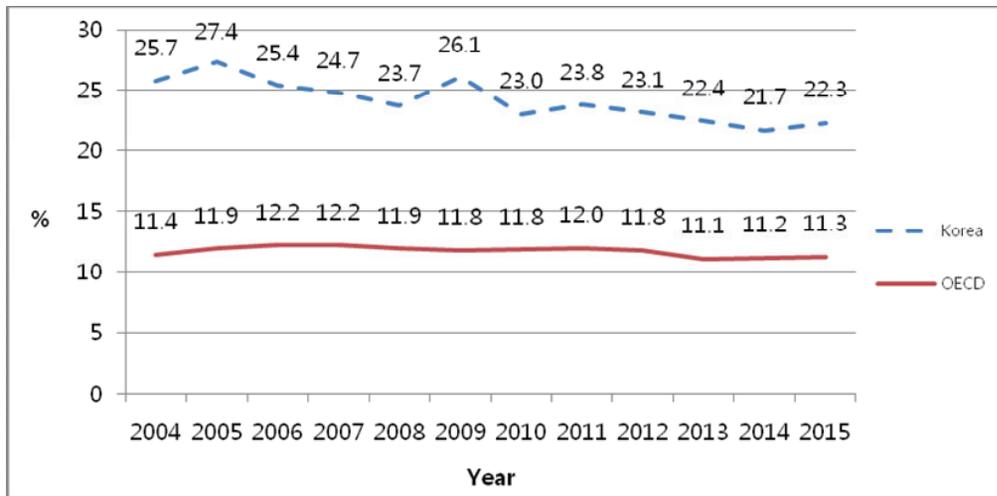
만약 경쟁이 심하지 않다면 시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경쟁이 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험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제로부터 현재의 대학입시에 이르기까지 비록 제도적으로는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해도, 과도한 경쟁은 개인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및 기타 요인들이 개입된 불평등의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시험제도에 익숙하고 시험제도에 대한 믿음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시험의 중요성과 시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진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교육열 또한, 앞서 기술된 두가지 측면보다는 ‘경쟁’이 심한 체제에서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은 교육팽창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열된’, ‘지나친’, ‘왜곡된’ 등의 형용사와 함께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교육열이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오욱환(2000)은 한국인의 강력한 교육욕구가 사회 전반에 퍼져 정상수준을 넘어서는 학력 및 학벌 쟁취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종각(2011)은 교육열이 포함하고 있는 개척정신, 진취적 요소, 도전정신 등과 더불어 전인교육적 요소와 인격적 요소가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육열을 3단계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첫째, 교육열의 근본은 자녀애와 성취욕구가 결합된 것이며, 둘째, 교육열의 핵심은 학교교육을 자녀성취욕구 충족의 수단 또는 통로로 활용하려는 동기이며, 셋째, 교육열은 자녀교육의 지원 및 투자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교육열은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행동을 이끌며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시험문화의 큰 폭을 차지하는 학력경쟁은 과거제 외에도 현재 경제와 고용불안정 상태와도 연관성이 있다.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저학력자로 이루어진 저임금계층 혹은 단순노동직계층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규직 근로자수는 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는 사용직 35.6%,

임시직 18.5%, 일용직 8.7%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이후인 1999년에는 상용직 29.8%, 임시직 20.6%, 일용직 11.3%로 비정규직이 상용직 근로자수를 증가하였다(이정규, 2003). 이러한 고용불안정 상태는 1997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을 두배 정도 웃돌며,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일반적으로 저학력자 우선의 구조조정과 실업화·비정규직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실업에 대한 불안과 고용불안정 상태는 학력경쟁과 학력인플레 현상을 촉진하게 되었다(이정규, 2003).

한국의 고용불안정 상태는 높은 비정규직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의 비정규직률(temporary employment rate)과 OECD 평균 값을 보여준다.



〈그림 1〉 한국과 OECD 평균 비정규직률 비교

출처: Temporary employment (indicator) (OECD, 2017). (2017. 7. 24 접속)

OECD는 비정규직을 미리 결정된 종료일을 지닌 근로를 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로 규정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이후 다소 간 등락을 거듭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5년 기준 OECD 평균인 11.3%에 비해 22.3%로 여전히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며 칠레,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청년 실업 또한 고용불안에 기여하는데, 2016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를 찍으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16). 또한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2016년도 전체 실업률도 현재 매우 높은 수준으로, 6년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연합뉴스, 2016). 한국의 전년대비 청년실업 증가율은 2.5%로 OECD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OECD에서 청년실업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보다도 8배 이상 높

은 수치이다(Kim, T. 2017). 현재 노동시장의 불안정설과 높은 청년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중은 대학 졸업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고용을 추구하게끔 만들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시험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유발하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동인 중 하나로는 시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들 수 있겠다. 최근 들어 시험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신뢰는 예전 같지는 않다. 시험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은 항상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시험제도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교육비 경감이 교육 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되면서,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시험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 역시 신뢰도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 즉, 시험이 학생들의 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 줄 세우기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시험제도로 인해 한 가지 잣대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각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인식에 따라 대학 입시의 경우 전형 방식이 매우 다양화되었다. 학생,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전인교육에 대한 요구, 다양한 교육내용에 대한 선택권, 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교육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여 왔으며(이종각, 2011), 이는 그러한 측면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전형 방식이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운다는 비판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전형 방식을 다양화 하였으나, 입시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현재의 전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복잡한 전형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정보력에 따라 입시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면서 현행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는 대학 입시의 전형 방식이 다시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이다.

사람들이 익숙했던 시험제도에 대해서 믿음이 이전 같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시험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고 여긴다. 시험제도가 여전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시험제도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다소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혼란이 정리되면 대학 입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의 시험 관련 정책 현황

가. 해방 이후 시험 관련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교육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중요한 시험 관련 정책이 수립, 추진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시험문화도 새롭게 형성, 변모하여 왔다. 이러한 시험 관련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방 이후 일제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교육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험 관련 정책’이다. 관련하여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초등 6년간의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이후 중등교육에 대한 강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극심한 입학경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험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둘째, ‘고등교육 보편화시기에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참된 교육적 성취(Authentic achievement)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 관련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된, 과열된 점수 경쟁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들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시험 관련 정책에서의 변화 또한 예고되고 있다.

먼저, 해방 이후 교육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험정책으로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1968년 7월 발표)’와 ‘고교평준화 정책(1973년 2월 발표)’에 주목할 수 있다. 오성철(2015)에 의하면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조선인들에게 교육열은 근대교육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해방 직후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사회계층 구조가 개편되었고, 단선형 학제의 도입으로 학력을 통한 사회이동이 명백히 가능해졌기 때문에, 학력경쟁에서 성공하여 사회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과잉교육열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더욱이 1970년에 이미 초등학교 진학률이 95.3%에 도달하였기 때문에(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초등학생의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재수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즉, 이 시기 교육기회 확대의 초점은 어느 정도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이동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박환보, 2015), 이에 1969학년도부터 중학교 입시를 폐

지하고 무시험 추천제에 의한 학군제가 실시되었다(일명 중학교 무시험제). 1970년의 중학교 취학률은 36.6%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73.3%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1985.3.1. 대통령령 제11626호)」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1990년에 이르러서는 90% 이상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중학교 무시험제 시행으로 인해 중학교 진학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중학교 입학단계에서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된 경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 도입이 시급해짐에 따라 1974년부터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학군별 인문계고 추천 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영 외, 1998). 결론적으로 1970년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20.3%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48.8%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이르면 89.4%에 도달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윤정일 외(1996)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고교평준화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고등학교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추구를 위하여 과학고(1982년)와 외국어고(1992년)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김성열, 김훈호, 2015). 그리고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설립 등과 같은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이어졌다(오범호, 김성열, 오세희, 2013).

한편, 오성철(2015)은 해방이후 시험관련 정책들은 과열된 경쟁의 장을 초등교육에서 중·고등교육 단계로 점차 순연시킨 것에 불과하며, 이는 입시경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즉, 중등교육 이수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입시경쟁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 입학자 선발을 위해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년), 대학입학예비고사제(1969년)가 시행되다가, 군사정부에 이르러 ‘7.30 교육개혁 조치(1980년)’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대학 입학자 수는 30% 확대하고 졸업자 수는 입학자 수의 70%에 맞추는 ‘졸업정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채재은, 한승희, 2015). 이에 실질적으로 대학입학 정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1982학년도부터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력고사의 영향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학력고사에서 고득점을 얻어 명문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나 이해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남명호 외, 2005). 따라서 1993년 8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수능은 학력고사와는 달리 대학교

육에 필요한 수학능력, 즉, 단순한 암기력이 아닌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등 정신 능력을 갖춘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양길석, 20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최근에는 어느 정도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향후 학령기 인구 규모가 대학정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학진학 자체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 소위 명문대에 누구나 진학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바, 명문대 진학을 둘러싼 대입경쟁은 여전히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상급학교로의 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행된 시험정책들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생태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본래 평가의 순기능은 학생들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형성적으로 지원하여, 총괄적으로 그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시험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학생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곧 ‘시험을 치른다’는 것과 동일시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에,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학생들 간 서열 중심의 지나친 경쟁의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고,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에의 관심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입제도의 영향 하에, 중등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참된 교육적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험정책을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삼 정부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력고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능의 도입과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돕기 위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다년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기록한 장부라고 할 수 있다(박균열 외, 2015: 83).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사에 의해 작성되는데,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비교과활동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입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예컨대, 이명박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하면서 학생부를 학생들의 다면적 평가를 위한 정성적 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

며,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대입전형에 있어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부 작성 및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통적인 선택형·표준화 검사의 대안적 평가방법으로서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수행평가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답을 작성(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평가방식”(백순근, 1997)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면밀히 관찰·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며 성과를 이루어내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과정 중심으로 피드백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택형평가와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과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아닌,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험문화는 수행평가의 본질적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또 다른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행평가의 강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나, 학교 내신 등이 상급학교 진학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수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교사의 평가권이 침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수행평가를 자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면적 자료의 하나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험의 일환으로서 여기고 여기에서도 배타적 경쟁을 내세우며 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서술형평가 및 수행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고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였다(교육부, 2011.12.13.일자 보도자료).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에는 학년 단위로 교과목 별 석차를 매겨 9등급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중시되어 왔다. 더욱이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창의적인 교수·학습이 권장된다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기존의 지필위주의 평가 관행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대평가 하에서 학생들은 지나친 점수 경쟁 하에 놓이게 되었고 자신의 잠재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개발된 성취기준에 따라 A부터 E까지(혹은 Pass/Fail)의 절대 등급을 받게 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일종의 절대평가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반영은 현 시점에서도 계속 유예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특목고 및 자율고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였고, 대학입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다. 다시 말해서, 수능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소질, 환경, 교육과정 이수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다면적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다양화를 배경으로, 학생 잠재력 위주 선발을 목표로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대학 고유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간 이명박 정부에 반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은 ‘자유학기제(Free Semester)’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등장배경으로는 첫째,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둘째, 중학생 행복에 대한 교육적 관심 필요, 셋째, 진로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요구, 넷째,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현, 다섯째,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 개혁 흐름의 영향을 들 수 있다(신철균 외, 2014). 여기에서 자유학기제란 시험으로부터의 자유(free from exams/testings)를 의미하는데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참여를 강화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정책이다. 이처럼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하며,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교육부, 2013).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2015)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 6가지를 설정하고, 교과별 핵심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및 과정중심평가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개정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수능 개편안 도입이 요구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잡한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절대평가 확대를 전제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제시하고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학생부전형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여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게 되었다(연합뉴스, 2017.8.31.일자 기사). 이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에도 불

구하고 학생들은 기존의 수능체제로 대입전형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우리사회에서 시험체제 개편에 대한 전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5〉 시험문화와 관련된 역대 정부의 대표적 정책

정부	중점 정책	목표
김영삼 (1993~1998)	-학교생활기록부제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학습자의 개성 존중
김대중 (1998~2003)	수행평가	고등사고능력 함양
이명박 (2008~2013)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성취평가제)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제 -EBS와 수능연계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학생 잠재력 위주 선발 사교육 절감
박근혜 (2013~2017)	-자유학기제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핵심역량 평가	학생 행복 핵심역량 함양

출처: 신철균 외(2014)의 p. 32~33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제시함.

나. 고부담 시험 관련 정책의 변화: 대학수학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시험 관련 정책들은 정책 시행과정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드러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가장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정책은 바로, 대학입학 전형과 관련된 시험, 즉 수능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6〉은 수능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변천

기간	분류	세부내용
1945~1961	대학별 단독 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시관리의 운영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짐 • 대학별 고사는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이 병행됨
1962~1963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대학에 대한 사회적 불신 팽배 • 5.16 군사정부는 교육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고시제 도입
1964~1968	대학별 단독 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고시제 방법이 대학의 자율성 침해 및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변화

1969~1980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대학의 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닌 예비고사제 시행 • 입시위주 교육과 과열과외의 성행 등과 같은 문제점 발생
1981~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병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교육개혁 단행 • 대학본고사 폐지,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에 의한 입학전형 실시
1988~1993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도부터 ‘선지원 후시험 방식 채택 • 논술고사 폐지, 대학별로 면접고사 실시
1993~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대학별고사 병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도부터 학력고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체

출처: 국가기록원, 대학 입학제도 변천 자료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73>)

한편,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에 가장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부담 시험이 수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능은, 기존의 학력고사가 단편적 지식 및 이해력 측정 중심의 출제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단순 지식의 암기나 이해 수준으로 획일화한다는 비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1994년도부터 도입되었다(남명호 외, 2005). 수능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별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국립교육평가원, 1993, 박경호 외, 2016에서 재인용)’에 해당한다. 초창기 수능은 수준 높은 학업적성검사로서 당시 중등교원이나 수험생들에게 암기력에 의존하던 이해 수준의 학력고사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수준 높은 학력평가로 인식되었다(배호순, 2008).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수차례 시험영역 및 출제과목, 점수 보고체제 등이 달라져 왔고, 결론적으로 초기 성격에도 다소 변화가 나타났다(<표 > 참조). 즉, 수능이 ‘통합교과적인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 보다는 개별교과 중심의 학업성취도 검사’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신영, 2009). 이러한 양상은 수능 출제와 EBS 수능강의 간 70% 연계정책(교육과학기술부, 2010) 및 2014년도 수능 개편방안이 적용되면서 ‘쉬운 수능’을 기조로 하는 교과 중심의 출제(교육과학기술부, 2012)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 내용(1994~2018학년도)

학년도	시험 영역	성적 표기	비고
1994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어)		연 2회 실시 3개 영역 공통시험
1994-1998		원점수, 백분위 점수	복수 시행 폐지(연 1회 실시)/ 수리탐구 일부문항 계열별 출제
1999-2000	언어, 수리탐구(I)-수리탐구(II), 외국어(영어)		제 6차 교육과정 적용 수리탐구(II) 출제 범위에 인문계, 자연계 선택과목 도입
2001	언어, 수리탐구(I), 수리탐구(II), 외국어(영어), 제 2외국어	원점수,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제 2외국어 영역은 선택 과목으로 도입
2002-2004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제 2외국어	원점수,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영역/종합)	총점제 폐지→등급제 도입
2005-2007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제7차 교육과정 적용 2005학년도부터 계열구분에 따른 응시폐지
2008	언어, 수리탐구(가형/나형), 사회 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외국어 (영어), 제 2외국어/한문	등급만 제공	2011학년도부터 EBS-수능 70% 연계 실시
2009-2013			
2014	수준별 시험(국어, 수학, 영어 A/B형),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 2외국어/한문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2015-2016	수준별 시험(국어, 수학 A/B형),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어, 제 2외국어/한문		영어 수준별 시험 폐지
2017	국어, 수학(가형/나형),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한국사는 등급만 제공)	한국사 필수과목화 국어 수준별 시험 폐지 수학과목 문이과 과목 유지 (가/나형)
2018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한국사와 영어는 등급만 제공)	영어 절대평가 실시

출처: 박경호 외(2016)의 p. 12 〈표 III-1〉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 내용(1994학년도~2018학년도)을 재인용함.

이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나 아직도 한국 교육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대입제도가 변화될 때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신영(2009)은 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제로는 학생의 능력수준에 따른 변별력이 없음,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와 대학 학점간의 낮은 상관, 시험기회의 일회성으로 인한 시험의 실효성의 부재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를 주 목적으로

하여 평가의 결과가 대학 선발이나 배치와 같이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서 고부담 평가로 작용한다(김소현, 2014).

참고로, 한국의 대학입시전형은 크게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나누는데, 정시전형은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방법이다. 반면, 수시전형은 수능 점수, 내신, 특기, 논술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정시선발 이전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에, 수시전형에 수능은 정시와는 달리, 지원을 위한 최저등급 정도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수시전형의 경우 도입 초기에 비해 현재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입학사정관제도의 확산과도 무관치 않다.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학들은 수시 비율을 대폭 늘렸으며,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교는 수시 비중을 70%에서 80%로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수시모집 정원이 처음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60%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수시선발전형에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이후 정시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대학의 ‘Early Decision’ 입시 제도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수시제도는 시험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전형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나 각 수시 유형에도 하나의 전형요소만을 활용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능이 반영요소로 활용되는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내신과 비교과활동 관리, 논술시험 준비, 면접, 수능공부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이기혜, 최윤진, 2016).

한편, 한국의 시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외에도 어떠한 시험이 존재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외에도 학교 밖에서 치러지는 고부담 시험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각종 직업별 공개채용 시험이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되기 위한 역량 평가 시험은 많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고시, 의사국가고시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고부담시험은 공무원시험인데, 이는 1966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정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틀이 유지되어 왔으며, 임용계급에 따라 5급 고등고시, 7급 공개채용, 9급 공개채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무원 임용은 학력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공무원시험 및 면접을 통하여 이루는 것과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며,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정 등의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승태, 2006).

3. 시험문화의 영향

가. 시험문화가 학습자에 미치는 영향

고부담 시험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해외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고부담 시험은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더 나은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시험을 잘 본 학생에게는 학위, 졸업, 장학금, 입학 등의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책무성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힘쓰게 한다. 실제로 고부담 시험은 학생들의 성적을 단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Bishop, 1998; Rosenshine, 2003; Braun, 2004) 고부담 평가제도는 또한 공정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 및 교육정책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Ryan & Weinstein, 2009, Madaus et al. 2009). 고부담 시험의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시험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등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고부담 시험문화와 이로 인한 사교육은 아동의 문화자본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변수용, 김경근, Schofer, 2012).

이처럼 고부담 시험제도는 좋은 의도로 시행되었으며 시험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나, 고부담 시험제도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학생들이 고부담 시험에 반응하는 것도 천차만별인데, 어떠한 학생들에게는 공부 및 학습을 향상시키는 약으로 작용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에게는 학습 의지를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독으로 작용한다. 교사들도 시험에 통과하거나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집중하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Madaus et al. 2009).

시험문화는 단순히 학습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Clarke et al., 2005; Madaus et al. 2009). 강선모와 심혜숙(2010)은 초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높은 수준의 시험불안을 경험하며 이는 학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학생의 탄력성(resiliency: 개인에게 중요하고 위협적인 평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낮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시험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PISA 학생웰빙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학

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8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였으며, 비 OECD 국가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였다(OECD, 2015). 학업 성적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과 반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고 싶다는 응답률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공부 시간에 있어서는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방과 후 스포츠를 하는 학생의 비율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한국의 실상을 나타내는데 교육열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앞서 언급된 시험 및 고부담 평가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하였을 때 시험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영호(2002)의 청소년 학습 문화에 대한 분석은 비록 ‘시험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이른바 ‘입시경쟁교육체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험’에 관계된 학생들의 문화 즉, 시험 문화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문화는 ‘일탈학습문화’로 변질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이를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진단하며, 청소년들의 학습참여방식을 ‘학력·학벌 취득’이라는 학습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으로서의 학교교육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학교교육의존 입시집착형’, ‘사교육의존 입시집착형’, ‘무기력 학습기피형’, ‘도피반항 학습거부형’, ‘새로운 학습체제구축형’이 그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표출하고 있는 청소년 학습행동의 실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입시집착 학습행동’이다. 여기에는 입시에 관련이 없는 수업을 회피한다거나 수업시간에 학원공부나 학원 숙제를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둘째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공부 기피 행동’이다. 여기에는 수업과 상관없는 딴 짓 하기, 수업시간 잠자기,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 보내기, 잡담하기, 옆 친구와 장난치기 등의 행동과, 수업의욕상실 행동(수업준비 안 하기, 빈 가방 들고 학교등교, 무기력한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기 등), 등교거부 관련 행동(지각, 조퇴 혹은 무단조퇴, 무단결석 등)이 포함된다. 셋째, ‘반항·심약 행동’으로 자퇴, 가출, 자살 등이 해당된다. 넷째, ‘대항적 탈학교행동’으로 탈학교모임을 통한 학습, 홈스쿨링, 학력·학벌철폐 연대 참여 등이다.

지연정·김병주(2015)는 여고생들의 입시준비와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여고 1, 2, 3학년생 각 1명씩을 연구참여자로 하고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여고생들의 삶을 ‘장거리 운동선수의 삶’에 비유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했다. 그들은 마라톤 운동선수의 삶에 있음직한 여러 요소들 즉, ‘준비운동’, ‘완주를 위한 전략

과 목표’, ‘달리기 자세’, ‘출발점’, ‘훈련 및 연습’, ‘음식물 공급소’, ‘체력관리 및 영양섭취’, ‘페이스 조절’, ‘마라톤 즐기기’, ‘결승점’의 요소들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여고생들의 삶의 특정 요소들과 대응시켰다. ‘준비운동’은 ‘공부 준비’에, ‘완주를 위한 전략과 목표’는 ‘공부전략과 미래 목표’에, ‘달리기 자세’는 ‘공부만 해야 하는 고등학생의 모습’에 대응되는 식이다. 출발선에 선 마라톤 선수가 긴장하고 불안에 휩싸이듯 여고생들에게 시험이 긴장과 불안을 일으키는 존재이며,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기록이 심적인 고통과 동기를 주듯, 시험결과 역시 여고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고통 역시 안겨 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학진학’이라는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이미 내면화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 속에서 학업성취수준은 또래 관계는 물론 부모나 교사와 같이 의미있는 타자에게 주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또한 이들에게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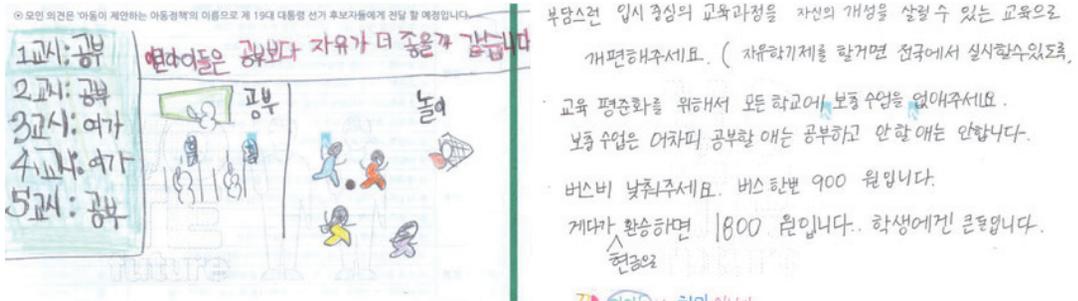
대학입시라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삶은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입시 관문’을 통과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 경험의 의미화 방식에 대해 탐구한 이민경(2008)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지난 입시교육경험을 “학습과 성장의 시간”(p. 91)으로 긍정적으로 상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강요와 기대, 성적을 둘러싼 학교와 친구들 사이의 경쟁적 분위기로 인해 ‘상처’ 입고 ‘억압’ 받은 시간으로 정리하면서 부정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 외(2010)에 따르면, 대학입시를 앞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은 심각한 상태다. 시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충격이나 우울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6%가 ‘상당한 스트레스’,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울함의 분포는 절반 남짓이 ‘약간 우울’, ‘상당한 우울’, ‘매우 심각한 우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시험이나 시험 성적에 관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청년 자살로도 이어진다. 전부터 공부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자살생각 등의 여러 병리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관찰되어 왔다. 중학생의 경우 남들의 기대나 시선을 의식하여 시험 결과로 인해 좌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을 경험하였으며, 이것이 손떨림 등의 신체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시험불안이 증가하였는데, 중학생들에게 시험불안과 자살생각은 매우 높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선이, 1997).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고학년일수

록 학업 스트레스를 높게 겪고,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수록 학생들의 우울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자살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박해정, 2009; 고정석, 2011). 또한 중학생의 경우 학교수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보다는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경쟁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 높으며(고정석, 2011),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의 하위변수 중 시험 및 성적 스트레스와 학습내용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재욱, 2013).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 사망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학업스트레스와 시험문화를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18세 미만의 학생 8,600명을 대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실시한 <미래에서 온 투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제안한 개선 분야는 ‘교육·학교’ 분야였던 만큼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행복하게 공부하기’, ‘교육시간의 축소’, ‘사교육 폐지와 공교육 강화’, ‘일반시험 및 중·고·대학교 입시제도 개선’ 등이 원하는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7).



〈그림 2〉 ‘미래에서 온 투표’ 설문조사 사례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모두 시험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물론 시험문화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회전반적인 관념과 문제들이 더욱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시험문화의 여러 가지 폐해들이 드러나고 현재의 시험 위주 평가의 교육방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임을 생각하였을 때, 현재의 시험문화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시험문화가 학습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으로 시험은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에서 명시된 학습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도구로서의 시험은 대개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기술을 토대로 출제되고 실시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시험이 교육 및 학습 과정 이전 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시험에 따라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구성됨으로써 일종의 ‘역류효과’ (Washback Effect)를 갖기도 한다. 한 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영어듣기평가가 추가된 이후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교육자료, 그리고 교수활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Jung(2008)은 이러한 학교내 시험의 영향이 학생들의 영어공부에 동기를 부여하고 더욱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인 반면, 시험을 위한 교육이 성행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라 평가하였다. 시험의 역류효과 중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이종승과 허숙(2003)은 한국에서 교육과 시험이 완전히 본말전도되어 교육을 잘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교육이 목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험선수’ 들을 배출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측정 주도 수업(measurement-driven instruction) 현상이 일어나며, ‘시험 점수를 높이는 수업’(teaching to the test)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고부담 시험인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나타난다(배호순, 2008).

사실, 고부담 시험이 시험 위주의 교육과 시험에 맞춘 교과 범위 축소 등의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전부터 많이 제기되었다(Suen & Yu, 2006; Ryan & Weinstein, 2009). 이렇게 시험을 중시하는 문화 및 교육제도에서는 체육과 미술같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들에 투자되는 시간이 적어지거나, 학생들의 휴식시간 감소 또는 없음 현상이 일어나며, 사교육 및 선행학습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비판가들은 고부담 시험이 평등을 제고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이것이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소수인종,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소외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Hursh, 2005, Peters & Oliver, 2009).

한국의 경우,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중요성과 높은 의존도 때문에 교육은 물론,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볼 수 있는데, 시험을 보기위해 성찰 없는 ‘진도 떼기’와 시험에 맞춘 교과 시간 운영, 학교와 학원에서 교과서 대신 EBS 교재 사용, 공부에 대한 본질적인 동기의 부재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었다(양윤희, 장진혜, 성열관, 2005; 권서경, 이문복, 신동광, 2015). 김소현(2014)의 연구에서는 단 1회로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능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부담 평가, 특히 수능에 대한 부담은 사교육 활성화의 주 요인이 된다(권서경, 이문복, 신동광, 2015). 사교육에 치중하는 주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의 만연, 입시제도의 압박감, 어려운 수능 난이도 등을 들 수 있다(배호순, 2008; 교육부, 2014).

이처럼 사교육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교육개혁 정책도 수립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구분	교육 정책	교육 방송
1980년	과외 전면 금지	TV가정교과
1989년	과외 부분 허용	TV가정학습
1997년	과외과령 완화 및 과외비 경감 대책	위성교육방송 전면 실시
2000년	과외금지 조치 위헌 결정	EBS 교육방송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출처: (열린사회참교육학부모회 인용, 2013, p.20)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정부 정책은 교육방송 활성화 및 법적 규제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의 측면에서 실행되었으나 이러한 정책들 이후에도 사교육은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어 2008년에는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창립되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사교육비에 대한 국민 참여 통계 조사를 실시하거나 사교육 줄이기 등의 대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2)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8.2%였으며, 초등학생은 77.7%, 중학생은 81.8%, 고등학생은 75.1%로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사교육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보면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 기준 약 18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을 웃돌았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7.8%였다. 사교육 참여학생 중 월평균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비중은 17.1%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를 위주로 5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사교육은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 경향, 특히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지위와의 연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여유진, 2008). 사교육비 지출은 학부모 가정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가 더욱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쓰였을 때 발생할 사회발전과 개개인의 인적자원 개발을 생각하였을 때 그 기회비용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입시제도로 인해 만들어지는 학력지향의 사회풍조는 선행학습으로도 이어지는데, 이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높은 연관성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학습이란 정규 교과 과정을 미리 앞당겨 배우는 행위로, 2012년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수학 선행학습 참여 비율이 70.1%이며, 선행학습 이유로는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미리 배워두면 학교수업을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으로는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한 반면, 선행학습으로 인한 폐해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시제도 등이 바뀌어 선행학습이 감소되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2). 열린사회참교육학부모회(2013)는 선행학습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학부모의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이기심이며, 더 나아가 이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된 내신제도가 오히려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을 촉발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대입 수시전형에만 내신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능에서도 일정한 등급을 확보해야 수시입학이 가능하므로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은 가중되었다. 또한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의 주된 평가요소는 내신과 논술인데,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성적의 등급 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는 논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술 전형의 비중은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다른 형태의 사교육, 소위 ‘논술 학원’의 탄생을 가져왔다. 논술 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공교육에서 실시되는 논술교육은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서울지역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의 논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불만족스러운 반면 학원에서의 논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래, 2005).

배호순(2008)은 한국 교육평가의 문제에는 입시 위주 교육,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의 부재, 획일적인 평가방법, 목표중심평가모형에 입각한 평가문항 출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차적 정신기능이나 창의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대두되는 창의

성을 평가하려면 입시제도와 시험위주의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이외에도 학업성취도평가와 같은 일상적 시험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해 전국 및 지역 석차가 공개되면서 이는 일반인들에게 좋은 학군과 나쁜 학군,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구분하는 강력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조대훈, 2011). 학업성취도평가는 1)우수, 2)보통, 3)기초, 4)미달 4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수 학생 비율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나쳐 학교 서열화 및 경쟁을 부추긴다(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2011).

입시위주의 교육은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윤성관(2012)은 전국의 교사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는 ‘업무 과다’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각각 30.2%와 23.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꼽은 교사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은 16~20년차의 중참 교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경력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은 넘어섰으나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교사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시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입시위주 교육은 교사들의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 나아가 교육의 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영어중점교육(영어몰입교육)과 교육여건이 더 좋은 해외에서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이로 인한 유학열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을 늘린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선행학습이 한국의 시험 문화 때문이라고만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사교육의 원인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제도의 압박감과 수능의 어려움, 초·중등학생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되었으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학벌주의·대학서열화는 학력간 임금격차, 학벌위주의 평가방식, 고착화된 대학 서열 등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교육부, 2014).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적고 있는 교육부의 보고서에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수능 준비 부담 완화,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대한 대응 등을 위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예방차원의 정책이 아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연상시키는 사후대책마련 식의 정책 제언사항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핵심전략 중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으로, 첫째,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둘째, 학부모 교육 등 범사회적 인식 개선, 이 두 가지의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나 다른 핵심전략들에 비해 구체화되지 않고 비중이나 분량도 작은 점 등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시험은 교육적 기능 이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김영화(2010 : 392~)가 인용한 김신일(2009)에 따르면, 시험은 사회적 선발,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사회통제, 사회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문화의 형성과 변화 등 다섯 가지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먼저 시험은 선발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 성적이 좋으면 이른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높은 직업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시험은 지식을 공식화하고 위계화한다. 시험에 나오는 지식은 가치있는 지식으로 간주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식은 지식의 위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 공식적이고 영향력이 큰 시험일수록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셋째, 시험은 사회질서와 문화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가부장적 성 역할관을 담고 있는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묻는 문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에서 찾으려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는 시험이 기존 질서 혹은 지배문화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시험은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수험자로 하여금 특정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 통제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시험은 문화의 재생산을 넘어 문화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 시험의 내용이나 형태가 인간의 의식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국사(國史) 과목이 필수 시험 과목이었던 세대는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 객관식 문항은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독선적, 감정적 사고, 흑백논리에 사로잡힌 사고를 배양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화(2010)는 시험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권력이 발휘되는 방식, 시험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김영화, 2010 : 399)

첫째, 시험은 훈육 도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험자는 시험결과가 자신의 삶에 미칠 결과를 의식하여 시험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둘째, 시험은 지식을 정의하고 특정 과목의 지위와 위상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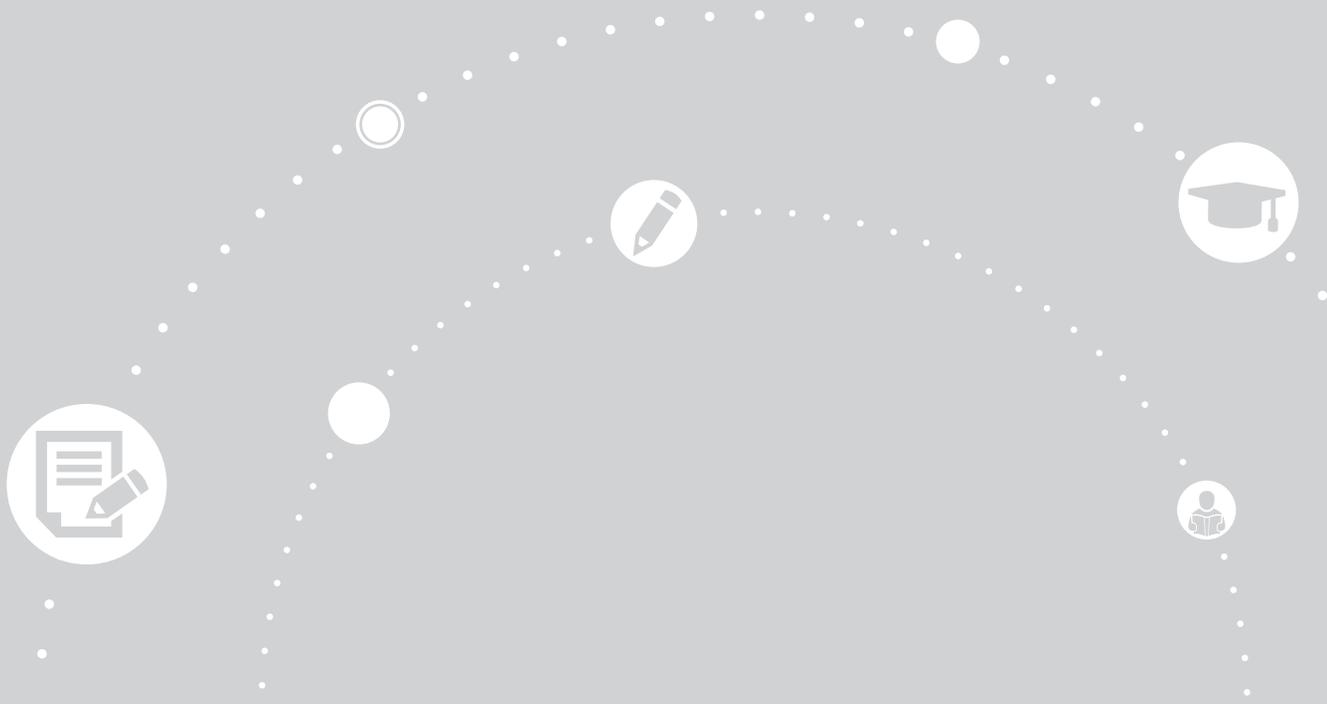
셋째, 시험은 교육의 질, 학생과 교사의 보상체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육 가치를 형성한다. 예컨대 정책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험은 객관성, 사실적 지식, 정답의 가치를 중시한다. 반면에 주관성, 감정, 반성, 성찰, 통찰 등의 가치는 경시된다.

넷째, 시험은 기득권층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시험과 시험으로 인해 형성된 문화는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의 새로운 인식을 생성하고 공고화하며 직, 간접적으로 복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III. 연구 결과

-
1. 조사 개요
 2. 주요 연구 결과



Ⅲ. 연구 결과

1. 조사 개요

UNESCO Bangkok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험문화 연구에 참여하는 10개국 연구자들과 UNESCO측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설문조사지와 심층면담지를 공통으로 개발, 검토, 완료하였으며, 각 국은 이를 공통으로 활용하여 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시아지역 시험문화 비교연구의 한국 사례인 본 연구는 초·중·고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험문화가 학습자 및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양적, 질적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각 분석의 내용들을 다각도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설문조사는 학교 교육과정 상 한국의 시험문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실과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시험에 관한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는 한편, 시험문화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 쟁점을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에 가장 적합한 집단을 대상으로 각 학교급별 학년을 설정하고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선표집을 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시험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을 실제로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학생들 못지않게 직, 간접적으로 시험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인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핵심적인 연구내용이므로 이들도 설문조사 대상자로 포함, 선정하였다.

2) 설문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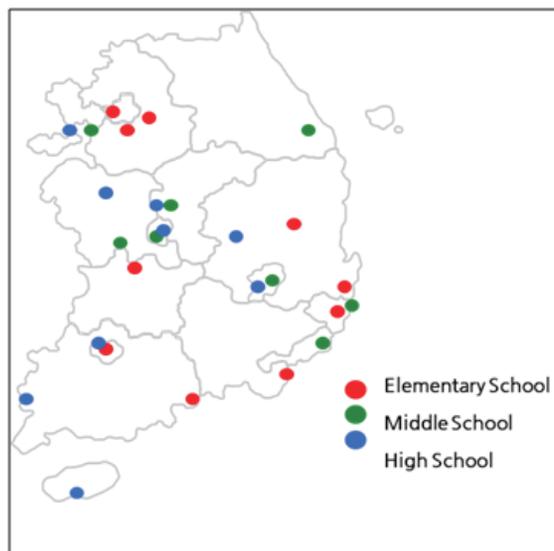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 학교는 UNESCO의 가인드라인에 따라 도시유형(대도시-urban/중소도시-rural/small cities)와 학교유형(사립/공립)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31개 학교를 무선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모집단은 교육통계서비스의 '2016년 초중등교육기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휴교 및 폐교'는 제외하였다. 학교

모집단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모집단 6220개교
 - ① 국립 17개교/공립-대도시 1743개교/공립-중소도시 4385개교
 - ② 사립-대도시 59개교/사립-중소도시 16개교
- 중학교 모집단 3238개교
 - ① 국립 9개교/공립-대도시 817개교/공립-중소도시 1772개교
 - ② 사립-대도시 236개교/사립-중소도시 404개교
- 고등학교 모집단 2353개교
 - ① 국립 19개교/공립-대도시 412개교/공립-중소도시 973개교
 - ② 사립-대도시 443개교/사립-중소도시 506개교

〈표 9〉 설문조사 대상 학교

학교급	학년	설문조사 대상 학교 수				합계
		사립		공립		
		대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초등학교	6	3	4	3	3	13
중학교	3	2	2	3	2	9
고등학교	2	2	3	2	2	9
합계		7	9	8	7	31



〈그림 3〉 설문조사 대상 학교 분포도

본 설문조사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조사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 맞추어 설계된 설문조사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시험문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집단을 초·중·고 단계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먼저 상위 교육단계로의 진학을 앞둔 관계로 시험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학생 집단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¹⁾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들의 학부모들 역시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부탁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학생 및 학부모 집단에 비해 각 학교 내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선표집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수와 비슷한 정도가 되도록 대상 수를 조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0〉 한국의 시험문화: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표집

학교 급	학년	조사대상 인원 수												합계
		사립						공립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학생	학부모	교사										
초등학교	6학년	104	112	61	74	55	65	113	60	94	99	74	102	1,013
중학교	3학년	53	51	64	56	39	63	55	66	39	45	39	38	608
고등학교	2학년	56	44	60	106	50	107	56	42	57	42	39	43	702
합계		213	207	185	236	144	235	224	168	190	186	152	183	2,323

설문조사 대상 학교가 선정된 후, 각 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한 결과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 집단이 재학 중인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전문 조사업체에서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를 학교 교사들에게 전달하여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조사 업체 담당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실시를 통해 연구참여의 안정성 및 위험성, 개인정보 보호 대책, 설문문화의 특성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 이후, 조사 업체에서 방문 일자를 잡은 후 직접 방문하여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어려울 경우 교사의 협조 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수능시험과 대학교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보다 시험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우 중요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학생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시험준비 외에 사용되는 시간에 매우 예민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함.

〈표 1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표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2,283	100.0%
집단별	학생	822	36.0%
	학부모	836	36.6%
	교사	625	27.4%
학교급별	초등학교	977	42.8%
	중학교	604	26.5%
	고등학교	702	30.7%
도시	대도시	1,189	52.1%
유형별	중소도시	1,094	47.9%
학교	공립	1,099	48.1%
유형별	사립	1,184	51.9%
성별	남성	805	35.3%
	여성	1,456	63.8%
	모름/무응답	22	1.0%

각 집단별 세부 응답자 특성표는 부록에 추가하였다.

3) 설문조사 조사 내용

설문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에 이르기까지 총 5개 영역으로 나뉜다.

기본정보는 연구대상자(교사의 경우에는 담당 학급,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년, 연령, 성별, 가족유형, 가족에서 응답자의 위치, 사회경제적 계층(부모/보호자의 직업, 학력), 종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사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과목, 학기당 평균 수업 수, 가르치는 학급의 규모, 교수 경력, 교수 이외의 업무 및 역할 등을 포함하였다.

시험의 중요성(Importance of exams and testing) 영역은 학기당 학습교과목 수, 학급 교수 준비기간 등 전반적인 학교의 교육 상태부터 학기당 시험의 평균 횟수, 시험을 위한 준비시간, 시험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 등 일반적인 시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우 중요한 시험’의 목적이나 중요성 등 고부담 시험에 대한 인식 및 관행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험의 영향(Expectations, motivations and influences) 영역은 시험에 대해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 시험의 동기, 그리고 시험이 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시험에 대한 만족도, 시험에 대한 우려 및 시험 결과에 대한 타인과 사회의 대응 방식 등에 관한 것이다.

사교육(Private tutoring) 영역은 사교육의 실태와 사교육에 대한 집단별 인식에 대한 내용을 구성되었다. 사교육 참여에 관한 기본 정보와 관련하여, 사교육 참여 여

부(비율), 목적, 시간, 과목 수, 사교육 지출비(주당, 학습자당) 등에 대한 문항이 있으며, 사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시험에 대한 도움 정도, 성적 향상 정도, 이해력 제고, 학습동기화 도움 정도, 학업적 성공을 위한 필요성(이유)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영향(Perception of exams and impact on learning) 영역은 시험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시험이 학습과 부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시험에 대한 인식은 시험을 좋아하는 정도, 학습에 대한 도움 정도, 필요성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시험 결과가 미치는 영향과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제언, 그리고 학습을 평가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 등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지의 구성과 문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 UNESCO 참여연구: 설문조사 문항구성표

영역	변인	조사항목				
		학생	교사	학부모		
기본 정보	학년, 연령(생년월일), 성별	1, 2, 3	1, 2, 3	1, 2, 4		
	교수 과목, 학기당 평균 수업시수, 학급 규모, 교수 경력, 교수 이외의 업무/역할	-	4-8	-		
	가족 유형(함께 사는 사람, 보호자 등)	4	-	9		
	형제, 자매의 수, 자신의 위치(외동 등)	5, 6		3		
	사회경제적 계층(부모/보호자의 직업, 학력)	7-9		5-7		
	종교(선택)	10		8		
시험의 중요성	일반적인 시험	학기당 학습 교과목 수, 학급 교수 준비시간	11	9	10	
		학기당 시험의 평균 횟수	12	10	11	
		학기당 평균 시험 준비 시간(학교 내/외)	13, 14	11, 12	12	
		학기당 한 수업시 수업내 평균 시험 준비시간, 준비 방법	-	13, 14	-	
		시험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력자	15	-	13-15	
		비정규 학습활동 참여, 비학교활동 참여시간/활동 종류	-			
	중요한 시험	하루 학교 생활 동안 자유시간	16		16	
		시험의 목적	17	15	17	
		시험의 중요성	18	-	18, 19	
		시험대비 여부 및 방법	19, 20		20, 21, 23	
		시험 준비 시간(학교 내/외)	21, 22		16-18	22
		시험대비 보충학습 여부, 참여 여부, 참여 시간	23-25		19-21	24, 25
시험의 영향	시험에 대한 기대	시험 후 결과(최상위, 최고득점), 졸업 후 기회 획득	26-28	22, 23	26-28	
		나쁜 성적에 대한 우려, 시험 및 문제풀이에 대한 걱정	29-32	24, 25	29-31	
		시험 결과/성적에 대한 타인의 기대, 기대의 근원	37, 38	31-33	32, 33	

영역	변인	조사항목			
		학생	교사	학부모	
시험의 동기화	학습자가 기대를 다루는 방식	-	-	34	
	시험이 주는 긍정적 동기화, 경쟁심, 긍정적 영향	33-36	27-30	-	
	시험의 영향	시험결과 비교(학급내)	39	-	-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도(급우와의 점수 비교)	40-42	-	-
		타인의 기대에 대한 우려(학부모/가족, 교사)	43, 44	-	-
성적(고/저득점)에 대한 타인의 반응 및 대응방식, 시험결과의 공개 및 축하		45, 46	34, 35	35-37	
사교육 참여 기본정보	사교육 참여 여부(비율), 목적, 시간, 과목 수	47-50	36-41	38-41	
	사교육 지출비(주당, 학습자당)	-	-	42	
	사교육의 효과	시험에 대한 도움 정도, 성적 향상 정도, 이해력 제고	51-54	42-45	43-46
		학습동기화 도움 정도, 학업적 성공을 위한 필요성(이유)	55, 56	46	47, 48
시험에 대한 인식	시험의 횟수, 좋아하는 정도	57, 58	47	49	
	학습에 대한 도움 정도, 적절성	59, 60	48-50	50-52	
	시험의 필요성(이유)	61	51	53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및 제언	시험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62	52	54
		시험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	-	55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	63	53	56
		시험에 대한 압박을 낮추기 위한 학교/교사의 도움	64	54	57
		과도한 시험의 압박 방지를 위해 학교/교사에게 하고 싶은 제언	65	55	58

4) 설문조사 분석 방법

한국의 시험문화가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양적 조사를 통해 나온 각 문항과 관련하여 집단유형별 차이검증과 조사유형별 차이검증 및 교차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세한 변인별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거나 한국의 시험문화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10개국 공통으로 설계된 설문 문항에 제한이 있었으며, 각 국가별로 조사대상 학년 등이 매우 상이하여 공통 분석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클 것으로 사전합의가 있었다. 국제연구의 특성 상 각 국가별 시험문화의 전체적 경향을 탐색하여 공통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을 위주로 제시하였다.

나. 심층면담

1) 심층면담 목적과 필요성

본 심층면담은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의 효과, 학습에 대한 시험의 영향력 등 시험문화와 관련된 조사 영역에 대해 양적 자료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심층면담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 각 학교급별로 위의 4가지 영역에 있어 설문조사의 단답형 질문으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 보고, 참여자들이 속한 맥락(지역장소, 학생/교사/학부모 집단,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시험문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각 집단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기억, 참여자의 성향, 특성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견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조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김영천, 2006; 조영달, 2005).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설문조사가 10개국 공통으로 설계되어 한국 맥락이나 특수한 교육환경에 적합한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힘든 경우, 심층면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난 시험문화 현상의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심층면담 조사 방법

심층면담 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장 및 교감에게 심층면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학교별로 협력교사를 선정하여 연구 참여에 의사를 밝힌 교사들을 통해 심층면담 대상자를 추천 받거나 교사들이 직접 섭외하고 연락처를 전해 받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개별 면담이 아닌 소집단 면담으로 실시하였는데, 집단 면담은 참여자의 대화를 자극시킬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추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반박하는 등 개인 면담에 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김영천, 2013).

심층면담 참여학교의 표집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선표집하여 심층면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측이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설문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학교들을 포함하여 무선표집하였다.

둘째, UNESCO 공통 기준에 따라 학교급과 도시 유형별로 무선표집한 학교 중 순서대로 연락을 취하여 면담 실시에 동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학교급별로 동일하게 각 2개교씩 총 6개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다만,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동일하게 표집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대도시

소재 4개교, 중소도시 소재 2개교의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학교급마다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표집할 경우 심층 면담에 참여할 수 있거나 면담에 동의할 교사 및 학부모의 수에 제한이 있다는 학교 교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심층면담 대상자는 학교급별로 한 학년에 국한하지 않고 표집을 실시하였다. 집단별로 표집된 총 심층면담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3〉 심층면담 표집

학교급	학생	교사	학부모	합계
초등학교	7	7	7	21
중학교	10	7	8	25
고등학교	6	6	6	18
합계	23	20	21	64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할 학교가 정해진 후 각 학교 내에서의 표집은 학교 소속 협력교사의 지원을 받았다. 협력교사는 사전에 연구내용, 방향 및 목적 등 연구에 관한 정보를 받고 다양한 배경과 학업 성취 수준을 보이는 학생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추천할 수 있도록 안내받았다. 이에 따라 협력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심층면담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집단 면담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표집된 심층면담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연락하여 면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고, 본 연구진이 정해진 시간에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협력교사의 협조 하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 학교가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만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세 집단(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심층면담은 최대한 같은 날에 실시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은 집단별로 나누어 1~2시간 정도를 실시하였으며 1~4명의 연구자가 참석하여 대략 3~4명의 대상자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 과정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기록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사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은 연구자에 의해 준비된 반구조화 심층면담지에 근거하여 실시하되, 면담 대상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진행하고 면담 대상자의 응답에 따라 부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가 질문과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심층면담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질적 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지 내용은 설문조사지와 마찬가지로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집단에 따라 차별화하였다. 비록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크게 5가지 영역인 개인 특성,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어 조사의 틀을 잡았으나,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을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면담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조정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지에서 확인하지 못한 시험 문화의 다양한 방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14〉 조사 집단별 심층면담 질문지 내용

대상	심층면담 내용	
학생	개인 특성	자신의 가족 형태 및 가정환경(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부모의 학력 및 교육방식 등
	시험의 중요성	학교생활에서 시험이 갖는 의미, 시험에 대한 준비방식 및 소요 시간, 시험의 목적에 대한 생각 등
	시험의 영향	시험에 대한 다양한 기대(긍정적/부정적)와 걱정,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시험이 주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시험결과에 대한 우려와 그 원인 등
	사교육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태, 사교육 참여의 동기와 효과,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
	학습에 대한 영향	시험과 학습간의 관계, 시험의 적절성/유용성/필요성, 시험결과가 자신, 교사,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시험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생각, 시험 및 시험결과에 대한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 과도한 시험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기타	시험과 장래희망/직업과의 관계, 시험성적에 대한 친구/부모/교사의 기대와 그에 대한 대응방식 등
교사	개인 특성	전공, 교육관 및 교육철학, 교사 경력 등
	시험의 중요성	학교생활에서 시험이 갖는 의미, 교사로서 시험에 대한 준비방식 및 소요 시간,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태도와 방식, 시험의 목적에 대한 견해 등
	시험의 영향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다양한 기대(긍정적/부정적)와 걱정, 시험으로 인한 교사로서의 스트레스와 부담감, 학생이 시험으로 인해 갖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의 정도, 시험이 주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학생들의 시험결과(성적)를 다루는 방식 등
	사교육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태, 사교육 참여의 동기와 효과,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등
	학습에 대한 영향	시험과 학습간의 관계, 시험의 적절성/유용성/필요성, 시험결과가 자신,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시험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생각, 시험 및 시험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 과도한 시험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기타	시험과 관련된 다양한 최근 이슈, 시험이 학생의 진정한 학습과 행복에 미	

		치는 영향,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시험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
학부모	개인 특성	자신의 가족 형태 및 생활 수준, 학력, 직업 등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에 대한 교육관 및 교육철학 등
	시험의 중요성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시험이 갖는 의미, 부모로서 자녀의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내용 및 방법, 자녀 및 자신이 시험을 대비하는 태도와 방식, 시험의 목적에 대한 견해 등
	시험의 영향	자녀의 시험에 대한 다양한 기대(긍정적/부정적)와 걱정, 시험으로 인한 부모로서의 스트레스와 부담감, 자녀가 시험으로 인해 갖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의 정도, 시험이 주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자녀의 시험결과(성적)를 다루는 방식 등
	사교육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태(해당학교/학년, 주거지역 관련), 사교육 참여의 동기와 효과,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 사교육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등
	학습에 대한 영향	시험과 학습간의 관계, 시험의 적절성/유용성/필요성, 시험결과가 자녀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시험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생각, 시험 및 시험결과에 대한 자녀의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 과도한 시험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기타	시험 및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최근 이슈, 시험이 자녀의 진정한 학습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시험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

4) 심층면담 분석 방법

심층면담 결과는 Creswell(2014)의 질적 방법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분석을 위한 자료구성 및 준비: 분석을 위해 녹취된 심층면담 자료 및 현장에서 적은 기록을 모두 텍스트로 전사하였다.
- 모든 내용 읽기: 심층면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사 자료를 모두 읽었으며, 특히 학교 급(초·중·고)과 집단별로 나온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 데이터 코딩: 각 심층면담의 내용 영역별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커다란 문장이나 구, 절 등으로 덩어리를 나누어 유사한 것끼리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표 15〉 심층면담 지역/학교급별 면담자 데이터 코딩

지역/학교급	집단	응답자 수	코딩
서울/중학교	학생	5	AS1~5
	교사	4	AT 1~4
	학부모	4	AP1~4
경기도/고등학교	학생	3	BS 1~3
	교사	3	BT 1~3
	학부모	3	BP 1~3
광주/초등학교	학생	3	CS 1~3
	교사	3	CT 1~3
	학부모	3	CP 1~3
대전/중학교	학생	5	DS 1~5
	교사	3	DT 1~3
	학부모	4	DP 1~4
서울/고등학교	학생	3	ES 1~3
	교사	3	ET 1~3
	학부모	3	EP 1~3
경기도/초등학교	학생	4	FS 1~4
	교사	4	FT 1~4
	학부모	4	FP 1~4

각 학교는 A부터 F 까지 차례대로 코딩하였다. 학생은 각 학교 코드 뒤에 S(Student)로 코딩하였으며 차례대로 1~5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교사는 각 학교 코드 뒤에 T(Teacher)로 코딩하였으며 차례대로 1~4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각 학교 코드 뒤에 P(Parents)로 코딩하였으며 차례대로 1~4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제(theme) 도출: 코딩 프로세스를 통해 구체적인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심층면담 내용에 맞게 크게 6가지 범위로 나누었다.
- 주제의 상호 관련성: 주제/범위가 학교급이나 집단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를 확인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 주제의 의미 해석: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범주화된 주제를 설문조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상과 관련시켜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응답 내용을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 결과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제시한 모형을 토대로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을 통해 얻어낸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위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UNESCO와 연구참여 10개국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개발한 설문조사 5개 영역 중 기본정보를 제외한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영역을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심층면담 결과를 위주로 한 시험문화와 교육정책간의 관계를 추가하였다.

가. 시험의 중요성

1) 일반적인 시험에 대한 통계

한국의 시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치러지는 전반적인 시험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학교별 평균 시험 횟수, 수업시간 내/외 평균 시험준비 소요시간, 시험준비에 가장 도움을 주는 가살, 하루 평균 자유시간 등의 문항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시험이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정의와 같이 ‘개인의 지식이나 능숙함의 질 또는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학습자를 평가하는 행동’이며, 일반적인 시험은 고부담 시험이 아닌 모든 시험을 의미하는데, 고부담 시험이란 진학, 입학, 채용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어 시험자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의미한다(The glossary of education reform, 2014).

한국 학생들의 대다수는 한 학기에 평균 9개 이상의 수업(82.1%)을 듣는다. 시험 횟수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결과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한국 학교에서의 시험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학생의 48.9%는 한 학기에 1-2개의 시험을 본다고 대답하였다. 시험빈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응답자의 30.3%가 ‘월 2회 이상’ 시험은 본다고 응답하여 시험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한 학기에 1-2개의 시험을 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6.1%와 71.5%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고학년이 될수록 오히려 시험의 횟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 조사 결과는 ‘시험’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차이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FGI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형적인 형태의 객관식 지필고사 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험의 횟수가 많지 않으며 대신 다양한 방식의 수행평가나 간단한 테스트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데 학생들이 이를 시험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보는 시험 및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중간에 수행평가가 간간이 있는 형식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학교가 시험 횟수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에²⁾ 따라 다르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리고 수업 시간 외(방과 후)에 시험 준비에 소요하는 시간은 학년에 따라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 시험 준비에 소요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51.6%),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각각 29.2%와 36.9%가 일주일에 7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주당 3~4시간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도 중·고등학생의 경우 28.2%와 31.5%로 높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 간에 시험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시간 외에 시험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1~2시간이 4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4시간으로 24.4%인 반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7시간 이상이 각각 33.5%와 3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3~4시간으로 각각 28.7%와 28.8%였다.

〈표 16〉 수업 시간 중에 한 학기 평균 시험 준비 시간(설문조사)

		1~2 시간	3~4 시간	5~6 시간	7 + 시간
전체		34.1%	24.6%	9.2%	25.3%
학 년 별	초6	51.6%	17.3%	4.8%	14.4%
	중3	23.0%	28.2%	14.8%	29.2%
	고2	19.2%	31.5%	10.8%	36.9%
도시 유형별	대도시	42.8%	24.3%	9.2%	15.1%
	중소도시	24.2%	24.9%	9.4%	36.9%

2) 설문조사지에 문항은 일반적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험은 ‘개인의 지식이나 능숙함의 질 또는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학습자를평가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어 있어 집필 형식의 시험과 수행평가를 모두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

〈표 17〉 수업 시간 외에 한 학기 평균 시험 준비 시간(설문조사)

		1~2 시간	3~4 시간	5~6 시간	7 + 시간
전체		31.0%	26.9%	13.3%	25.4%
학 년 별	초6	45.3%	24.4%	10.5%	14.2%
	중3	21.1%	28.7%	14.8%	33.5%
	고2	19.6%	28.8%	15.8%	34.2%
도시 유형 별	대도시	34.3%	26.5%	13.3%	22.0%
	중소도시	27.3%	27.3%	13.2%	29.4%

수업 시간 중 한 학기 평균 시험 준비 시간은 도시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 학교 학생의 경우 42.8%가 일주일에 1~2시간을 공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의 학생의 경우 1~2시간을 공부한다는 응답률은 24.2%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15.1%의 대도시 학생들이 반에서 7시간 이상을 시험 준비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는 36.9%였다. 수업 시간 외(방과 후) 한 학기 평균 시험 준비에 소요한 시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대도시 학생들은 34.3%가 평균 1~2시간을 시험 준비에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는 7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9.4%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학교 수업시간 내 시험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과 학교 밖에서 사용하는 시간 모두 대도시 학생들보다 중소도시 학교의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문헌조사나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충되는 결과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이 대도시 학교 학생들보다 시험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교사가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으며, 과외교사와 학원이 이를 뒤따랐다. 시험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묻는 다중선택문항을 살펴보면 6학년 응답자 중 79.9%가 학부모에게서 시험 관련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은 41.1%, 고등학교 2학년은 30.8%가 학부모에게 시험 관련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시험 관련 도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80.8%는 친구/또래가 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답했으며, 이는 교사(83.8%)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고2 학생들이 저학년 학

생들보다 친구와 또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간자율학습인 ‘야자’ 나 집, 학교, 학원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인 ‘자습’ 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의 독특한 학교 학습 현상이나 공부 습관, 그리고 자습과도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시험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과 시험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 주로 학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개별 학습을 선호하고 대부분의 공부시간을 혼자서 복습하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사용한다고 응답한 점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시험 준비 소요시간과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보기 2주전부터 시험을대비하며 주로 어머니가 공부를 도와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2~3주 전부터 하루 3~4시간씩,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압기위주로 더 많이 공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한달전부터 시험에 대비해 공부함 • 밥을 새우기도 함 • 부모님이 직접 도움을 주시는경우는 없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간이 되면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문제지를 풀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따라 시험대비 시간에 편차가 큼. 비경쟁지역은 그다지 많이 공부하지 않는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학원, 독서실을 가서 준비하고 휴식시간은 거의 없음. 대략 취침시간은 새벽 2시임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공부할 때 문제풀이 등을 도와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2~3주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이 전적으로 관리함. 시험 한달 반 전부터 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까지 시험대비 공부를 시킴

설문조사 안내문에서 정의한 ‘하루 평균 자유시간’ 이란 학교, 학교활동 또는 사교육과 관련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유시간 또한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다수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평균 3시간 이상 자유시간이 있다고 하여 비슷한 반응을 보인 반면, 43.1%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의 자유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학생 및 학부모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응답은 하루 1-2시간의 자유시간이었다.

〈표 19〉 하루 중 평균 자유시간(설문조사)

	0~1 시간	1~2 시간	2~3 시간	3 + 시간
합계	14.6%	31.5%	21.3%	32.2%
초6	11.3%	26.1%	22.1%	39.9%
중3	12.0%	26.3%	25.4%	36.4%
고2	21.2%	43.1%	16.9%	18.5%

2) 시험의 목적과 중요성

시험의 목적에 관한 인식은 일반적인 시험과 고부담 시험의 경우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 설문조사지는 응답자들이 일반적인 시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응답자 대부분은 시험의 목적이 배운 것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수준과 위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있다고 답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일반적인 시험의 목적(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배운 것을 되돌아보게 되고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지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이해도와 습득 정도 파악, 스스로 자신의 수준 및 위치 파악, 부족한 부분 파악 • 성실한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며 이를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은 주어진 동일한 조건 동안 얼마나 학습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방법임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학생, 교사 모두에게 학습의 수준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을 정리해보는데 의미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실력 향상을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을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함(DT3) • 배운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인위적 계기 마련. 시험을 통해 목표가 생기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을 통해 공부할 수 있고 점수에 따라 학습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이 없으면 생활이 게을러지고 교사도 열의있게 가르치지 않음. 시험으로 인해 목표가 생기고 성취감도 있게됨

심층면담 내용은 시험의 목적에 관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수단이 시험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가, 기말고사만 있다가, 이

제 또 (시험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러자나요. 저희 엄마들끼리는 아주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애들은 말 그대로 평가를 해야 긴장도 하고 그러자나요.” (CP3)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한번 쭉 랩업[wrap-up] 할 수 있는 인위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목표가 생기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DT2)

고부담 시험의 목적에 대한 응답은 ‘학생들이 배운 것을 평가하기 위해’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교육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가 54.9%,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가 31.0%로 뒤따랐다. 따라서 고부담 시험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시험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 평가가 주요 목적으로 인식되나, 학교 입학 및 취업을 위한 보다 실용적인 도구라고 보는 점에서 일반 시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다르다. 이것은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우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고부담 시험을 상위 단계로의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표 21〉 고부담 시험의 목적(설문조사, 다중복수응답)

		학생들이 배운 것을 평가하기 위해	상위 교육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 내에서 학생의 학습상황/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을 하거나 학위 및 증명을 받기 위해	장학금에 지원하거나 수혜받기 위해	Other
합계		56.8%	54.9%	31.0%	24.4%	15.6%	4.1%	1.2%
학생	전체	49.8%	55.8%	38.4%	25.7%	22.3%	7.2%	2.1%
	초6	62.6%	45.6%	43.3%	19.5%	21.8%	7.4%	4.0%
	중3	42.6%	60.8%	36.8%	23.4%	23.4%	4.3%	0.0%
	고2	38.1%	65.8%	33.1%	35.8%	21.9%	9.2%	1.2%
교사		71.4%	43.7%	15.5%	23.5%	8.6%	2.2%	0.6%
학부모		52.9%	62.3%	35.2%	23.8%	14.4%	2.4%	0.8%

한편, 이러한 정서는 저학년일수록 낮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62.6%가 고부담 시험의 목적이 학생들이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이러한 응답 비율은 각각 42.6%와 38.1%였다. 마찬가지로

로, 60.8%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65.8%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의 목적이 상위 교육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45.6%에 미쳤다. 이는 학생들의 고부담 시험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데, 고학년일수록 수능 등의 고부담 시험의 목적이 대학 입학 등의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용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 응답을 비교해보았을 때, 교사의 71.4%가 고부담 시험의 목적이 학생 학습을 평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생(49.8%)이나 학부모(52.9%)보다 높은 것이다. 즉,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해 시험을 진학, 입학이나 진로결정 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보다는 학생의 학습상태나 배움의 정도를 평가하는 교육적 의의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일반적인 시험과 고부담 시험의 목적에 대한 인식 차이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발견되었다.

〈표 22〉 고부담 시험의 목적(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함	•대학을 가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의 모든 시험과 노력은 결국 대입을 위해서임
교사	•대입을 통한 선발과 이후 직장을 얻기 위해	•특목고 진학을 위한 내신등급 산출을 위해	•대학입시를 위해
학부모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과 그이후 취업을 위해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대학서열화와 입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험을 대체할 방법이 없음. 모든 문제의 최정점은 대학입시에 있음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학습의 점검과 이해도에 관한 평가에 있지만 상위 단계로의 진학, 특히 대학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보다 현실적인 시험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부담 시험의 중요성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두 집단에게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상위 단계 학교에 진학하거나 합격하는 것에서부터 진로결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들의 경우 ‘시험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없다’, ‘시험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시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표 23〉 고부담 시험의 중요성(설문조사)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학생	82.0	17.3
학부모	83.9	15.1

고부담 시험이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심층면담 결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24〉 고부담 시험의 중요성(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대학입시에 필요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직장 등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시험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추변별력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은 평가의 공정성을 지님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은 배운 것을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을 알아내는 공부의 과정이며 학습의 일부로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는 점에서 후에 공부와 관련없는 일을 하더라도 할지라도 중요한 학습의 과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을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함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의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시절 겪는 시험 역시 삶의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은 필요한 제도이며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기 싫더라도 함으로써 참을성과 인내심을 키우는 학습과정으로서의 중요성도 있음 꾸준한 자기관리와 학업유지를 위해 시험이 필요함

이상의 응답내용을 보면 시험은 학습과 따로 분리된 독립적 과정이 아니라 떼어 놓을 수 없는 학습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주로 학업의 성실성과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며, 시험은 변별력과 공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학업수준을 평가하고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잘 보여주는 관련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험은 필요해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있잖아요. 시험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박감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압박감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걸 겪어야만 나중에 자기의 생각도 다양해지고 펼쳐진다고 생각해요. 인생 중에서 학생의 삶의 부분 중 하나가 시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CP1)

“시험이 단점이 많으면서도 봐야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다른 잣대를 들이밀면서 평가하면 공정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만약 두 아이를 비교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기준이 다를 때 어떤 점을 가지고 이일에 더 적합한지 이런 걸 판단할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AS1)

3) 고부담 시험이 교육 실제에 미치는 영향

시험문화에 대해 논의할 때 거론되는 큰 부분 중 하나는 시험이 교육 실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고부담시험이 역류효과를 통해 거꾸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해외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이며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경우 전형요소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과 방식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듯 시험이 교육 및 학습방법과 그 정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시험의 중요성이 어떻게 교육 실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려 하였으며 고부담 시험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과 시험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문항을 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생들(74.4%)은 학교 교사들이 고부담 시험을 위해 학생들을 특별히 준비시킨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시험에 준비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설문조사, 다중복수응답)

		추가적이거나 보충적인 수업을 제공함	수업 중에 시험 연습에 시간을 더 많이 씀	전년도 시험 제출문제를 알려줌	숙제를 더 내줌	기타
전체		63.4%	53.2%	41.5%	26.7%	6.9%
학년	초6	45.7%	59.8%	41.3%	41.3%	14.1%
	중3	58.1%	48.7%	41.9%	30.8%	3.4%
	고2	75.5%	52.7%	41.3%	16.8%	5.4%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들의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것과(63.4%) 반에서 시험 준비와 연습문제 풀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53.2%)을 가장 빈번하게 응답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록 교사들이 보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학습의 실태를 확인해보면, 학생들의 54.0%가 학교에서 고부담 시험을 대비하여 보충학습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충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학생의 전체 비율은 80.6%인 것을 보면, 학생들은 고부담 시험에 대한 준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충학습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학생의 80.6%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충수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90%의 교사들은 이러한 보충 수업을 지도한다고 응답한 반면, 42.0%만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보충 수업에 참가한다고 응답하여, 학부모와 학생 및 교사 간에 보충수업의 정의나 학생들이 이에 할애하는 시간에 대해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답만 가지고 해석해본다면,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보충수업 시간을 공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험준비를 위해 보다 접근성이 높고 평등한 시험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험문화가 교육실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시험이 일반적인 학습상황과 교육 내용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관한 문항을 분석하였다. 교사들의 ‘나는 이 시험의 출제범위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에 대한 동의는 평균 3.32, ‘시험 준비 때문에 반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에 대한 동의는 평균 3.01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시험이 가까워질 때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르치거나 기타 활동을 하는 교사의 비율은 32.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응답 간 가장 큰 차이는 학교급 별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50.6%, 중학교 교사의 77.5%, 고등학교 교사의 66.7%가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중학교 교사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인데, 이는 고부담 시험 준비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중학교 교사들에게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에 더욱 가까우며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왜 중학교에서 고부담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비율이 고등학교보다 높은지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6〉 시험이 가까워질 때,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르치거나 기타 활용 여부(설문조사)

		예	아니요	모름/무응답
전체		32.3%	63.4%	4.3%
학년	초6	44.9%	50.6%	4.5%
	중3	17.3%	77.5%	5.2%
	고2	31.6%	66.7%	1.7%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과 진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서’ (15.8%),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서’ (12.4%) 등이었으며,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르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 출제범위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11.9%), ‘시험이 중요하므로 집중하여 대비하기 위해서’ (7.3%)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르치거나 기타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 출제범위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11.9%), ‘시험이 중요하므로 집중하여 대비하기 위해서’ (7.3%),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범위 외의 영역에 집중하지 않아서’ (6.8%)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르치거나 기타 활동을 한다는 응답한 교사들의 가장 높은 이유는 ‘교과 진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서’ (15.8%),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4%), ‘시험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많아서’ (9.4%) 등이었다. 이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시험 관련 내용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시험의 중요성과 시험이 다른 학생의 학습 및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험과 관련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과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우선시하기 때문이었다.

나. 시험에 대한 기대, 동기, 영향

1) 시험에 대한 기대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이 가지는 인식과 기대,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결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학업성취와 시험에 대한 기대(설문조사)

문항	학생	교사	학부모
모든 과목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4.33	3.80	4.02
최상의 기회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52	4.15	4.25
반에서 최고의 학생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3.91	-	3.85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까봐 걱정한다	3.80	-	3.28
학교에서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걱정한다.	-	3.26	3.24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 교사, 학부모 세 집단은 모두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들은 자신의 학급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길 원하며, 졸업 후 최상의 기회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부모보다 학생이 더 나쁜 성적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학생들의 경우 학문적 우수성과 성공을 기원하는 욕구가 학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강해진다.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걱정한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는 교사가 3.26, 학부모는 3.24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응답 비율로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43.1%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걱정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및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가지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아래 표는 시험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을 보여준다.

〈표 28〉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나 학업 성취에 관해 기대하는 것(설문조사, 복수응답)

	높은/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없다	성적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바란다	좋은/안정적인/경쟁력 있는 직업을 가지길 바란다
전체	21.6%	7.1%	6.2%	3.7%	3.1%	2.6%
학생	29.2%	7.7%	10.8%	3.9%	2.9%	3.0%
교사	20.2%	6.6%	0.3%	6.7%	1.6%	2.2%
학부모	15.2%	7.1%	6.1%	1.2%	4.4%	2.5%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21.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학생의 29.2%로 교사(20.2%)나 학부모(15.2%)에

비해 높았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세 집단 모두 6~7% 정도로 비슷했으나, 학생의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3.4%), 중학교 3학년(9.1%)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12.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 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 (85.8%), ‘학교/교사’ (78.6%), ‘친구/또래’ (73.2%), ‘형제자매’ (33.9%)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의 70.4%가 부모를 시험 관련 영향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응답은 약간 차이를 보였는데, 시험과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영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부모’ 라고 답한 학생들은 84.8%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교사’ 는 41.1%, ‘친구/또래’ 는 39.9%, 그리고 형제자매는 21.0%로 나타났다. 학부모 및 교사 집단과 학생들 간에 인식의 차이는 학생들이 학부모가 학업성취 및 시험에 대한 기대와 영향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나 교사와 친구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교사 및 학부모 집단 대상 설문조사 문항이 학업성취를 언급하지 않아 학생 설문조사 문항과 차이를 보였기 때문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31.7%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친구/또래에서 기대 및 영향이 비롯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각각 45.0%와 46.9%가 친구/또래라고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 문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공부에 친구/또래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던 발견과 유사한 경향성이다.

시험에 대한 기대와 영향에 대한 가장 큰 원천을 부모로 응답한 것은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시험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은 수준임이 드러난다.

〈표 29〉 시험에 대해 학부모가 가지는 기대와 영향력(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을 잘 보았을 때 부모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뒤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시험과 관련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믿어주시지만 관심이 많고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집착이 덜한 경우에 시험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이 확실히 적음. 생각보다 점수가 낮아도 크게 실망하지 않음(현 재 학교). 부모의 관심이 지나친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엄청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이 어느 학교를 지원했으며 어떤 성취를 보였는가는 부모의 체면 문제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녀로 본인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함 •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관심과 기대수준이 달라짐. 자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마인드가 다르며, 중하위권 수준일수록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성공지향적, 경쟁지향적 풍토에서 교육받지 않은 경우 자녀들에게도 과도한 노력을 기대하지 않음 • 학부모가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 하며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생각함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서 예전에 가져 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최대한의 성취를 기대하는 보상심리를 가짐 있음. 최대한의 성취를 위해 원하는 성취를 기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은데 억지로 공부하게 하지는 않으며 아이들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고자 함 • 아이의 시험대비 학습에 불만족이며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람 • 아이는 절제된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설움을 주지 않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꿈을 이룰수 없다고 설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도 일종의 기술이며 부모가 이끌어 준 만큼 성과가 있음.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주어야 함

이상의 결과를 보면, 부모들의 시험에 대한 관심도는 극도로 높으며 최대한 할수 있는만큼의 지원을 통해 자녀의 성취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녀의 성취를 곧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높은 성취를 기대하는 등의 응답은 ‘교육열’ 과 관련된 한국적 특수성으로 눈여겨볼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에 관한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이 공부하는 걸 보면요 만족이 안돼요. 항상 부족해요. 왜 이렇게 놀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공부했던 마음이 안들어요. 시험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아 너가 공부를 안했구나.’ (라고 생각하죠) 앉아 있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그래 너 수고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 딱 나와서 보면 애가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고 이제 화가 나죠.” (AP2)

“시험을 잘 보면 칭찬해주세요. 근데 칭찬 뒤에 아쉽다고 하세요. 4학년 때 딱 하나 틀렸는데 칭찬하고 뒤에 “아쉽다.” 이렇게... “(CS2)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죠. 자신의 자녀로 본인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일이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건데 그게 잘 안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유학을 보냈더라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BT3, 화학 담당)

다만, 이러한 응답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달라질 수 있으며, 계층이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기대치도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더 깊이 있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연구결과이다. 관련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험을 잘보고 싶다는 건 아이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강남 아이들은 절박해요. 내 인생의 가치라던지 성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어요. 근데 이 학교 아이들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사셨거든요. 대학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가게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가게 물려줄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로 성공하신 분들이 똑같이 자녀에게 공부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님의 가치관이 그대로 전수돼요.” (BT1, 국어 담당)

시험에 대한 기대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학생들(69.1%)은 시험 및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장에 동의하지 않은 반면, 교사들은 59.4%가 동의하여 시험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불안, 걱정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자기저하와 공부에 대한 관심 및 열의를 상실하게 되고 자존심도 낮아지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기대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41.0%가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4%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학생들의 3%는 그러한 기대에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나 학업 성취도를 공개적으로 축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73.5%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도입 이후 학교로 하여금 학생 순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학생 성적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학생의 사생활 보호의 일환으로 성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시험에서 나오는 불안, 스트레스

시험 불안과 동기에 관한 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시험 때

문에 점점 더 초조해하며 또래들과의 경쟁에 더욱 동기를 부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중학교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불안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해 평균 점수가 3.7점을 초과하지 않아 시험불안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마다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초등학생은 시험 불안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서 중고등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들이 시험에 대해 압박감과 불안감을 덜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0〉 시험에 대한 학생의 불안감 및 동기(설문조사)

문항	초6	중3	고2	전체
나는 과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초조해진다	3.33	3.62	3.74	3.53
나는 시험이 어려울까봐 자주 걱정한다	3.45	3.92	3.63	3.62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매우 긴장된다	2.94	3.47	3.28	3.18
나는 시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더라도 매우 걱정이 된다	3.14	3.63	3.46	3.37
시험은 나에게 공부를 더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3.47	3.54	3.47	3.49
시험은 나에게 학우들과의 경쟁을 부추긴다	3.00	3.53	3.63	3.33
시험은 내 관심사와 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준다	3.55	3.31	3.24	3.39

시험의 부담감에 관한 심층면담 결과를 보면 시험에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의 유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31〉 시험의 부담감(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결과에 대해 부모님이 크게 개의치 않으심 • 시험을 못봐도 스트레스는 받지 않지만 공부를 하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때 스트레스로 머리와 배가 아프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부담은 있지만 시험이 아주 싫지는 않은 정도이며 실수를 할까봐 긴장됨 •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큼. 대학입시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며 점수가 안나올 때 초조하고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김 •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음(성적우수자의 경우)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성향이 매우 경쟁지향적이며 자녀의 시험결과에 세세히 관여하고 압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가 높음 • 학부모 중 소수는 노골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시험을 못보면 밥을 안주는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실제로 아픈 경우도 많음. 아피지는 않더라도 극도로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음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통, 복통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남 • 이후에 더 큰 경쟁과 압박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을 앞두면 날카로워짐. 가족모임이나 여가시간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음. -시험기간 동안에는 가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주의함 • 성적상위자일수록 스트레스와 시험불안도가 큼

고등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 응답은 다음과 같다.

“여차하면 내 진로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계속 압박감으로 오고 그래요. 시험을 앞두고 2주전부터는 엄청 예민해져서 애들끼리도 유명해요.” (DS1)

“엄마가 진짜 집에서 애한테 뭐라고 하면 안되는 게, 본인 자체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거 같더라고요. 큰애가 이번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경련이라고 해요.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무 말도 안하고 애가 고3 이죠? 이게 고3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유 없이 식은 땀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하니깐 이걸 부모가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렇다기 보다 자기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 굉장히 큰 거 같더라고요.” (DP1)

초등학교 6학년의 53.0% 중학교 3학년의 59.8%, 고등학교 3학년의 68.1%는 다른 학생들과 시험 결과를 비교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적을 친구들과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심층면담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학생들의 시험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성적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누가 우수한 성적을 받는지는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적을 비교하는 행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증가 및 경쟁의 심화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시험의 동기와 영향

시험에 있어서 경쟁적 분위기는 인터뷰 결과를 통해 보다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다.

〈표 32〉 시험에서 나오는 동기(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들과의 비교, 경쟁 •형제, 자매간의 비교, 경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능력개발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을 다니면 경쟁자들이 있어서 동기부여가 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한 분위기 속에서 학부모들끼리 아이들 점수로 경쟁을 함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시험의 결과, 성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결과에 따른 사회적 지위상승의 욕구, 자식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들의 학구열이 높고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에 관여함. 상위권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며 부모에 의해 동기화됨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향후 직업 및 생활의 안정성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심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시선과 비교를 통해 은연중에 동기화됨 •내 삶의 불만족,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의 노력, 목표 성취를 통한 자신감 •미래의 안정적인 삶 •친구와의 경쟁 •교사로부터의 인정, 칭찬

인터뷰 결과를 보면, 시험에 대한 동기부여와 경쟁적 분위기 형성은 친구, 형제, 부모, 교사, 타인 등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인 것으로 보인다.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 좋은 성취를 보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적 안정성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은 경쟁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관련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이랑 비교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 못 한다 잘한다 그런 말 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해요.” (CS2)

“학부모들끼리도 아이들 점수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제가 2학년 저학년 담임을 할 때 인데 그 당시에는 저학년이 지필고사가 폐지된 상태라서 단원에 대한 평가만 수행평가처럼 하는데 그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선생님이 알려주기도 전에 그걸 엄마들이 알아내서 얘기가 도는 거예요. “(CT3, 영어 담당)

“지금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불만족, 내 자식은 그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중략) 제가 학교를 시골에서 다녀서... 제가 꿈을 못 이뤘을 때 오는 그런 거 때문에 (아이 공부에 대한) 방향을 잡았어요.” (EP2)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 및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또래의 점수가 높을 때 가장 낙담하며 시험결과가 좋지 않으면 학부모를 실망시킨다고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설문조사 응답이 보인 경향성과 정반대이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의 점수가 자신보다 낮을 때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학생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2.72였으며 세 학급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 및 만족도(설문조사)

문항	초6	중3	고2	전체
나는 내 학업 성취도에 만족한다	3.78	2.89	2.58	3.17
나는 내 학우들의 성적이 나보다 높으면 낙담한다	2.68	3.08	3.13	2.93
나는 내 학우들의 성적이 나보다 낮으면 행복하다	2.61	2.83	2.76	2.72
나는 낮은 성적을 받으면 내 가족과 부모님을 실망시킨다고 느낀다	3.20	3.52	3.70	3.44
나는 낮은 성적을 받으면 우리 선생님을 실망시킨다고 느낀다	2.64	3.15	3.09	2.90

설문조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시험 결과가 좋거나 나쁜 경우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좋은 시험결과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유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나쁜 시험결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응답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응답은 ‘부모가 자녀가 더 잘하도록 격려한다’ (≈35.4%) 였으며, 다음은 ‘부모가 실망한다’ (≈ 17.5%), ‘부모가 화를 낸다’ (≈12.6%),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한다’ (≈11.6%) 순이었다. 학생들의 시험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학부모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특히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심층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시험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을 못보면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해짐 	-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에게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며 과격한 성향이 나타나며 학교폭력이나 왕따현상도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결과에 모두가 불행함 • 부모에 대한 반항, 게임 중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 	-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성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 결정되므로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부모 아이들 모두 경쟁적이 되고 고통스럽음 • 공부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다 들어주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성적을 알고나서 상대적 박탈감 또는 자괴감이 심할 듯함. 서열화로 인한 친구들과의 위화감이 문제임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험은 학생들의 행복과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심, 이기심 등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왕따, 게임 중독, 상실감, 무기력증 등이 시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주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한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만점을 받는 10%외에는 전부 불행해요. 그리고 만점 받은 애들도 행복하진 않아요. 나만 받아야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나만의 백점을 지향해요.” (AT2, 국어담당)

“시험이 하나라도 더 틀리면 엄마 눈치를 봐야하고 뒷감당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눈치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부에 치중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고, 날카롭고 신경질 적이고 과격한 성향이 있고요. 실제로 학교 폭력, 왕따와 따돌림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선생님한테 대드는 학생 교권 침해 이런 건 꼭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하긴 어렵고 섞여서 나타나요. (저희 학교는) 가정형편이 윤택하고 탈북학생, 편부모 가정도 전혀 없지만 상담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어요.” (CT3, 영어 담당)

다. 사교육

1) 사교육을 받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시험의 중요성이 만들어낸 독특한 시험문화 중 하나는 사교육의盛行이다. 사교육은 수업시간 외에 추가적인 시험 준비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과 비슷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나 과외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8.2%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흥미롭게도 73.8%의 학생과 72.7%의 학부모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교사의 경우 91.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교사의 반응은 사교육의 현실을 나타낸다고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수준에 대해 인식하는 바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의 양을 실제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사교육의 이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학생의 학교성적 향상’과 ‘시험에서 높은 점수 획득’ 순으로, 각각 응답자의 78.2%와 75.4%를 차지하였다. 사교육의 이유는 학생집단에서 학년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성적과 시험성적의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학년에 비해 부모의 권유가 사교육의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집단별로는 학생의 44.6%와 학부모의 32.6%가 사교육의 이유를 ‘부모의 추천/권유’라고 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 그 비율이 81.4%에 육박하여 교사 집단이 인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이유 중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가 부모의 추천과 권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5〉 사교육을 받는 이유(설문조사, 다중복수응답)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부모님의 권유/격려	졸업 시험이나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선생님들의 권유/격려
학생	초6	73.1%	69.3%	70.6%	53.4%	40.1%	9.4%
	중3	90.5%	87.8%	63.3%	42.9%	50.3%	11.6%
	고2	93.4%	94.7%	56.3%	28.5%	48.3%	4.0%
	전체	82.4%	80.1%	65.2%	44.6%	44.6%	8.6%
교사	79.3%	79.5%	38.9%	81.4%	35.4%	4.9%	
학부모	73.0%	66.8%	74.5%	32.6%	42.9%	4.1%	
전체	78.2%	75.4%	60.0%	52.3%	41.1%	5.9%	

이러한 학부모·학생과 교사간의 인식의 차이는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났는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학생들의 내적 동기에 인한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다수의 교사들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수학, 영어, 논술, 피아노, 태권도, 과학 등 매우 다양한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부모님이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발적인 의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학원에 다니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모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그들의 높은 교육열과 학원에 보내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 비용이 가계의 부담을 주더라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의 관련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및 인식(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과목에 대해 교육 필요 의사를 어보고 사교육을 시킴 • 학부모들 간의 만남을 통해 정보를 얻고 뒤처지기를 원함 • 부모로서 내 아이만 안시켜서 뒤떨어지거나 망치지 않으려 하는 불안감, 초조함으로 인해 사교육을 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은 심적 안정용으로 엄마가 직접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줌 • 사교육도 본인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함. 좋아하고 원하는 분야를 아이가 요구하면 지원함 •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중학교와서 성적이 안나와 학원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함. 지금이라도 시키길 잘했다고 생각함 • 사교육을 시켜보고 그 효과를 절감함. 100%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편이 넉넉지 않으나 사교육을 시키고 있음. 학원 및 교육비로 인해 빚이 있음 • 개인과외가 아닌 학원의 경우 우도 한과목에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음. 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너무 불안하고 아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학원을 보냄 • 중학교때는 매우 강도 높은 학원을 보내고 새벽1시까지 하는 학원에도 보냈음. 주변 친구들이 모두 하니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할수없이 다 보냈음

이처럼, 부모들은 한편으로는 자녀의 의향과 의지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 학원에 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적인 교육문화 속에서 혼자만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안정감과 위안을 얻으려고 학원을 보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감으로 인한 부모들의 사교육 참여 동기를 잘 보여주는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 주관대로 하기 참 힘들어요 주변도 보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지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 마음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하기 때문에... 저보다 사회생활하는 남편 쪽에서 더 ‘이렇게 가야한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된다는 의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AP2)

“엄마들 중에 주변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다 학원가는데 우리 애만 안가면 친구를 못 사귀고 학교에서 비주류로 밀려날까봐, 자기 위안 삼아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해서 부모로서 역할을 한다는 안도감을 위해서요.” (ET1)

한 주당 사교육에 평균적으로 할애하는 시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 집단은 ‘8시간 이상’ 이 33.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3~5시간(30.6%)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 6학년(43.4%)과 중학교 3학년(49.7%) 학생은 사교육을 받는데 8시간 이상을 소비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22.5%만이 8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대답하였다. 44.4%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주당 3-5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사교육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가장 많

이 받았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사용한 것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들은 보충 학습이나 스스로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교육을 받는 과목 수에서도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48.3%가 한 가지 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학교 3학년의 49.0%는 두 과목, 초등학교 6학년의 33.3%가 세 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를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일수록 예체능 위주의 다양한 학원을 다니며 따라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하고 학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교육이 더욱더 세분화, 다양화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좋은 소위 ‘명문’ 학원에 다니기 위해 학원입학을 준비하는 학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은 줄어들고 대학입시에 초점을 둔 영어, 수학 위주의 사교육이 행해지고 따라서 사교육 과목수와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국에서 행해지는 사교육의 최종목표는 대학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교육의 내용과 형식, 과목수와 보내는 시간 등은 모두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이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경우 어리고 학습이나 이해도에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더욱 효과적이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을 이미 상당 부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적을 수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시기는 대입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과 공부보다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판단이 내재해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이 갖는 가장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선행학습일 것이다.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상위 단계에서 다룰 내용들을 미리 배운다. 심층면담에서 학부모들은 특히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에서의 더 어려운 과정을 준비하게 위해 사교육을 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미 학습된 내용들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숙달함으로써 대입 시험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저희 반 30명 정도 되는데(고3) 거기서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는 친구는 5명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학생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하느냐 하면, 이미 1, 2학년 때 사교육을 충분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애들이에요.” (DT3, 영어 담당)

“제가 선행학습 도움을 받아서 선행학습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 는거 같기는 해요. 당장 그 학년에 배우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할거 같아요. 미리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갈 수 록 배우는 양이 많아지니까 미리 해놓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DS2)

“아이 성향에 맞추다 보니까 선행을 좋아하지 않아서 선행은 안했어요.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여서 선행에 거부가 많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와서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서 선행을 안 한거에 대한 후회가 들더라고요. 물론 학교 교육 만으로도 결과가 좋으면 사교육을 안 하겠지만 환경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EP4)

2) 사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 세 집단 모두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71.5%는 사교육이 학생들을 시험에 대비시켜준다고 답했는데, 학생들의 83.0%, 학부모의 76.3%, 그리고 교사의 55.7%가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2.1%는 사교육이 특정 과목의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집단별로 보면 학생의 79.1%, 학부모의 80.1%, 교사의 57.6%가 동의하였다. 사교육이 학생의 학습과 과목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지에 대한 질문에도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75.8%, 82.2%로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 반면, 교사는 26.7% 만이 동의하였다. 또한 학생 그룹은 위의 세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사들은 사교육의 효과에 회의적인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학생 및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부재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전문성과 책임감 또는 직업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자분을 통해 움직이는 사교육의 번성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는 학습으로 통한 성장과 발달보다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철저한 학습관리가 학생 및 학부모의 현실적 필요에 부합함으로써, 이들의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실태는 다음의 인터뷰 사례를 통해 잘 엿볼 수 있다.

“학교공부를 잘하려고 학원을 다니는 건데 이거는 학원을 잘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거 같아서... 이러면 시험은 더 어려워지고 학원은 더 많은 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보다 더 힘들어진 거 같아요. 언니, 오빠도 학원으로 바빠서 거의 만날 시간이 없어요.” (AS 5)

“예전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거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부모의 인식도 커요. 학원은 돈을 지불했으니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얻어오라고 압력을 가하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ET1, 물리 담당)

다른 한편으로, 교사 집단과 학생·학부모 간의 인식의 차이는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입장이고 사교육의 영향이 학생의 시험점수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더 크게 와 닿기 때문일 수 있다.

〈표 37〉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학생				교사	학부모	전체
	초6	중3	고2	전체			
사교육은 학생들을 시험에 대비시켜준다	4.05	4.40	4.25	4.19	3.61	3.90	3.90
사교육은 특정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준다	4.00	4.21	4.19	4.10	3.62	3.97	3.90
사교육은 학생들의 전체 성적을 올려준다	3.34	3.34	2.93	3.24	2.77	3.29	3.11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과 과목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3.95	4.09	3.94	3.98	3.01	3.97	3.67
사교육은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3.72	3.68	3.49	3.65	-	3.65	3.65
사교육은 학업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3.41	3.66	3.32	3.45	2.21	3.28	2.99

심층면담 결과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는 교사들이 사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들은 사교육이 학생들을 시험에 대비시켜주고 특정한 과목에 대해 성적을 높여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학업성공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학생들의 전체 성적을 올려준다는 의견에는 매우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사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고, ‘사교육은 학생들의 전체 성적을 올려준다’라는 문항에 있어 학생은 평균 3.24, 학부모는 평균 3.29로 동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학업 성공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보충학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할 수 있다’ (10.2%), ‘성적 향상이 가능하다’ (7.7%), ‘사교육을 받으면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다’ (7.7%) 등을 들었다. 사교육이 학업 성취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성공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11.3%),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다’ (7.5%), ‘자기 주도학습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이다’ (6.6%) 등을 그 이유로 답했다.

사교육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긍정, 부정 의견은 역시 인터뷰 결과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38〉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Pos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에서는 문제를 많이 품. 심화문제도 풀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위주로 뽑아주기 때문에 점수가 오름 • 혼자서 공부하면 모르는 걸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숙제도 내줌. 공부를 더 잘하게 됨 • 과외를 받고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고 쉬워졌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에서 지도도 잘해주고 수업내용 자체를 다시 설명해주고 문제풀이도 해줌. 쉽게 공부할 수 있음 • 학원이 시험대비에 도움이 되며 관리해 주기 때문에 편리함 • 매일 영어와 수학학원을 다니며 시험대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은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됨. 학교에 걸 못다한 것 보충하고 개별수업도 가능함
학생	Neg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수업에 집중해도 지루함 • 부모의 권유로 하고 있으며 해보니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자신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못함.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숙제도 내주고 관리를 해줌 	
교사	Positive		
	-	-	-
	Negative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이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다보니 타인을 배려하거나 의사소통하는 측면이 미흡하고 무기력이 심함(경쟁이 심한 지역에서의 경험) • 사교육은 아이들의 배우고 싶은 동기와 호기심, 의욕을 빼앗아가므로 학습에 악영향을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은 학생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게해서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게 훈련시킴 • 질문과 개념을 다루지 않고 시험결과를 잘 받는데 집중하는 암기 위주의 교육을 시킴.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학습으로 인해 흥미도 및 효율성이 저하됨 • 학교보다는 학원 공부를 중요시하고 대부분이 학원을 다님. 학력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싼 과외, 학원을 다니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경향임.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큼 • 학원은 선행학습에 주력함 •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으므로 불평등을 초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틈없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숙제 할 시간만 있고 생각할 시간은 없음

학부모	Pos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은 확실히 효과가 있으며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중학교와 학원을 통해 선학을 습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함. 학원을 통해 성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 • 사교육을 시켜보고 그 효과를 절감함. 100%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함
	Negativ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에서 내신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학원에서 해준 것 이상의 공부는 하지 않으려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 아이들(강남)이 좋은 대학을 갈 수 밖에 없음 • 고비용으로 가계에 부담이 됨

인터뷰 결과를 요약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육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은 공부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훈련과 관리’를 해준다는 응답이 많았다. 흥미롭게도 사교육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부정적인 측면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 학원의 훈련과 관리로 인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렵고 의존적으로 변하며, 학습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지향함으로써 학습에 흥미와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진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계의 부담이 되고, 학습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결과에서 또한 눈여겨 볼 한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는 긍정적, 부정적 견해를 모두 나타낸 데 반해, 교사는 사교육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대부분 사교육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사교육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학원에서는 점수를 억지로 올리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 방식이 인간적이지 않아요.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죠. 하지만 그걸로 아이가 향상되었다고 보면 오류인게, 아이가 점수로 나타나는 실력과 학업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실력의 갭이 커요. 단순히 결과만 보고, ‘못 풀던 문제를 풀었다’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빼앗고 미리 문제를 풀게 해서 모르겠는걸 억지로 끌어가면서. 그래서 아이들 무기력도 심화되고 집중력도 저하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CT3)

“실수를 줄여야하고, 반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교육이 영향을 줄 거 같은데 근데 그 이외의 조금 더 자기 사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를 본

다면 이거는 확실히 떨어져요. 본인이 뭘 모르는 지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잘 구조화된 체계적 지식을 클릭만 하면 되는 걸로 습관이 되다보니까 내가 왜 부족하고 모르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되고...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고등학교 3년이 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유목적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가 편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DT2)

라. 시험에 대한 인식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1) 시험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응답자들에게 시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학생 집단의 경우는 평균 3.48로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를 나타냈으나 부모와 교사는 각각 평균 3.28과 3.00으로 보다 중립적이었다. ‘나는 시험 보는 것이 즐겁다’ 라는 문항에 68.2%의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 중 37.7%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했다. 지역차에 있어서는 62.5%의 대도시 학교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에 비해 74.8%의 중소도시 학교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더 컸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3학년 (75.8%), 고등학교 2학년 학생(75.6%)들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57.8%)이 가장 적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중소도시 학생들과 고학년 학생들일수록 시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도시 학교 학생들은 이미 경쟁 환경에 익숙해 있고 시험을 좋아하지 않아도 봐야 한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 있다.

학생들은 ‘나는 시험 덕분에 더 많이 배운다고 느낀다’ 는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시험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사는 시험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3.53, 학부모와 교사). 응답자는 ‘나는 시험이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는 문장에 대부분은 중립적이었다(3.05).

〈표 39〉 시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학생	교사	학부모	전체
시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3.48	3.28	3.00	3.25
학생들은 시험 덕분에 더 많이 배운다	2.81	3.20	3.19	3.05
시험이 수업시간에 배운/가르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3.64	4.01	3.82	3.81
시험은 학생들이 배운 것을 측정하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3.52	3.54	3.53
시험은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15	2.91	3.06	3.05

성공을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학생들이 배운 것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8%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가 4.1%로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시험이 성공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시험점수는 성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25.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은 성공에 대한 많은 요인이 있으며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등 비슷하였다.

시험의 인식에 대해 물어본 인터뷰 결과는 각 대상자들이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표 40〉 시험에 대한 인식(심층면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을 자주 보는 건 부담스러움. 한 학기에 1번은 괜찮음 •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부모님들의 기대 때문에 부담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음 •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함 •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어 대학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유용함 • 점수를 내고 등급을 맞추려고 ‘틀리기 위한 문제’를 내는 것은 불필요함 •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몰아서 하므로 시험이 싫음. 시험이 끝나면 늘 수 있음 • 시험보는 날 일찍 끝나는 거 이외에 좋은 점이 없음 • 시험결과에 따라 너무 미래 인생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지금 방식이 최선은 아닌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 학생들의 학습은 교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시험을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음 • 시험결과 성적으로 사람의 전체적 능력과 가치를 판단함. 정답을 찾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능력이라고는 생각지 않음 • 시험을 통해 대학을 가기 때문에 시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겠지만 왜 그렇게 중요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됨 • 시험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인데 진짜 노력이 아니라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은 부정적임 • 수능은 학문적인 내용으로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해진 유형으로 공부한 것을 평가하므로 진정한 평가라고 보기에 어려움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적인 면에 치중함으로 경쟁 영역을 유발하고 실제적인 양을 파악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함 • 시험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과정 속에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치열한 지역(강남)의 경우 시험을 잘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박하며 인생의 가치는 성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음

<p>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필요함 • 시험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음. 상급학교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 때 시험이 없어야 하고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함. 특히 대입 시험이 있는 한 아래 학교 등급에서 시험이 없어지는 걸 반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시험 자체를 즐김 (성적우수자의 경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암기위주로 준비해야만 함. 진짜 실력과는 상관없는 공부로 되어버림 • 시험에 대비한 공부는 머릿속에 전혀 남지 않음. 투자한 시간, 돈, 노력이 아까움
------------	--	---	---

위의 결과와 같이, 면담 대상자들은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는데, 시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더라도 현재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시험을 싫어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생들은 시험이 학습자의 진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고 보다는 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순히 도구로서 쓰인다거나 대학입시를 통해 적절한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로서 활용되는 면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교사들 역시, 지식적 측면에만 집중된 현재의 시험으로는 한 사람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과 시험결과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교육풍토와 관련하여 시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부모들은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시킬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인 경우, 시험을 위한 암기위주 학습의 악영향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어 같은 거 보면은 본문을 그대로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실제 회화에 사용되지 않는 고전적인 문법 문제들도 많고 틀리기 위해 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점수를 맞추고 등급을 나누기만을 위한 게 문제예요.” (AS1)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으로 뭔가를 많은걸 평가하잖아요. 개개인마다 잘하는 게 다른데 공부라는 걸 두고 잣대로 두고 성적이 낮으면 낙오자 판단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우리나라는 답을 정해놓고 안 쓰면 틀리다고 하는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BS2)

“초등학교 시험을 많이 없애고 있는데, 이런 전면적인 시험 폐지는 찬성하지 않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이는지, 많은 시험보다는 일 년에 한 두번 정도 시험이 있으면 내 아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교사 입장으로서 시험이 전혀 없으면 애들이 학업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험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지만, 이젠 일 년에 두 번 정도 보다가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대신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수행평가 보다는 한꺼번에 보는 시험이 준비도와 노력을 하는 게 더 보여요. 그게 없어지니까 학습에 대한 열심히 하는 정도는 좀 사라지고 있어요. 객관적 지표가 사라지는 것도 아쉽구요.” (CT1, 체육 담당)

2) 시험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시험이 교육과정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교사 집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주요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시험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대비 사교육이 많아지면서 수업에서 지식전달의 측면보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인성과 정서적인 면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욱 신뢰하고 의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요과목 등 고부담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목은 학교학습에서 중요도가 엄청나게 떨어짐 • 모든 반에게 똑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가르쳐야 함. 수업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학생, 학부모가 항의함. 중요 내용을 언급할때도 시험과 관련이 있으면 다른 반과 차이하지 않도록 해야함 • 시험결과에 모두가 민감하기 때문에 교사의 사고가 경직되며 평가의 범위나 문제가 획일적이고 수렴적 사고를 요하는 방식으로 출제됨 •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형식에 맞추어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생기지 않을 문제를 출제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부모의 기대도 낮은 경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며 평소 학교생활도 소홀히 하게 됨 • 대학입시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매우 무기력하고 학습의 의지가 없음 • 가르쳐야하는 지식의 양은 방대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도 지식적 측면을 측정할 수 밖에 없음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교급별로 조금 다른 논쟁점이 있다.

첫째,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필평가의 형식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걱정과 교권의 약화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결국은 이제 과정중심평가, 학생중심평가, 역량중심평가로 바뀌니까 원론적으로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로는 평가주체권이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의 위치(수준)을 알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만 써주고 객관적인 점수를 안주니까 점수를 알려주는 학원으로 가는거예요. 무한경쟁 무한스펙 사회자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총론에 입각해서 해도 현실 사회에서는 느끼는 건 이미 평가 주체권을 쥐버렸다. (공교육을) 무시하는 거죠.” (FT 7, 부장교사)

둘째, 중학교 단계에서는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시험의 공정성이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이며, 따라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민원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극도로 난해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 미술 등 주요교과가 아닌 경우 즉,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예 학습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학생들을 평가해주기를 원하지만 학교에서 선발을 위한 시험들은 결국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시험을 낼 때 오류가 적고 이의제기가 적은 것을 추구하니까요. 결국 정제되고 선이 뚜렷해지더라고요. 다양한 생각이 맞고 다양하게 평가 될 수 있는데 성적을 똑같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명할 때 설득 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료한 지식을 위해 시험을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BT1, 국어 담당)

“(시험이) 너무 정형화 되어있다고 할까요? 외우면 풀리니까 외워라 이렇게. 넓은 사고를 못보고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문제를 주니까 창의적 사고는 안 되는 그런 문제만 주는 거 같아요.” (DS1)

“시험 기간이 되면 제 담당 과목에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책 밑에 영수 과목을 깔고 있어요. 반 정도 10명 정도 이상은 그런 과목 책과 문제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제가 ‘그건 아니다. 뭐든 제때 제 장소에서 하는 게 공부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음악에 대한 수행평가 결과는 좋은 학교를 가든지 그러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전혀 영향이 없어요.(AT3, 음악 담당)

셋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평가가 다양한 방면의 능력보다는 지식적인 측면에만 더욱 더 집중하게 되고, 희망하는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들은 거의 학습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에 안 들어가는 과목은 애들이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혀 안 해요. 사실은 심지어 공부 잘하는 아이도 기술, 가정은 안 해요. 골라서 안 해요.” (BT3, 화학 담당)

“아예 옆드려서 자는 아이도 있죠. 대학에 안가겠다고 하는 것도 대학에 관심이 없다거나 필요 없어서 안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성적이 안되니까... 잘 알잖아요. 어차피 난 대학을 못 가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기대가 없다보니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중략) 자기의 역량이든 환경이든 부족한걸 아니까 자포자기해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 같아요. “(BT2)

3)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 방법

설문조사는 또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한 반면, 교사의 50.9%는 대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38.6%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응답자가 제안한 다른 대안적 평가 방법에는 성과평가, 발표, 또는 토론을 통한 평가 등이 있었다.

〈표 42〉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교사/학교가 노력하는지 여부(설문조사)

		예	아니요	모름/무응답
학생	초6	47.0%	48.4%	4.5%
	중3	11.5%	85.2%	3.3%
	고2	14.2%	80.8%	5.0%
	전체	27.6%	68.0%	4.4%

학생들의 68.0%는 학교/교사가 시험의 압박감(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비율은 48.4%였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은 85.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80.8%였다. 응답자들은 시험 빈도 및 시험 횟수를 낮추는 것(5.5%), 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것(4.8%),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2.7%)과 같이 시험의 압박감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했다. 응답자의 2.6%는 시험을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1.9%는 다양한 대체 평가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 시험문화와 교육정책간의 관계

시험문화와 교육정책 및 실제와의 관련성은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련성은 설문문항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응답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분석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한국의 시험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1945년 광복이후 약 70년 동안 시험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당시의 시대상황적 맥락에 따라 복잡, 다양, 정교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주로 공평한 교육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평준화’ 정책 등이 시행되어 과열된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등교육 단계에서 취학율은 상당 수준 해소가 된 반면, 대학입시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급속도로 팽창하는 고등교육의 수요를 시험을 통해 걸러내고 능력별로 대학에 배치하기 위해 1982년부터 ‘학력고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대표적 고부담 시험이었다.

이러한 고부담 시험의 경우, 일단 시험의 내용과 형식의 결정되면 시험을 잘보기 위한 응시자들은 그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예를 들어, 1982년부터 1985년까지 학력고사에서 영어가 필수과목이 아닌, 외국어 선택과목 중 하나로 지정되자, 학생들이 영어 대신 점수획득이 쉬운 일어, 독어, 불어 등을 선택하였고 이는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결과지향적인 경쟁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는 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객관식 위주의 학력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의 과목별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교과서를 암기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단편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시험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학습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데 미흡하다는 수많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암기력보다는 분석력, 문제해결력 등 보다 높은 차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입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학력고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교과로 출제 과목수를 줄이고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94년 도입되었다. 수능은 도입 이전,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7차례의 실험평가를 거쳤는데, 이는 무척 이례적인 것으로 이 시험이 가진 중요성과 새로운 개선에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 하겠다. 수능이 실시된 이후에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시험의 성격과 체제도 함께 변화해왔는데, 수시모집, 특별전형 강화, 내신반영 확대,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등 시험이 가진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타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대학입시전형은 크게 수시선발전형과 정시선발전형의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전자는 접수, 내신, 특기, 논술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수능시험 이전에 대학에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일년에 한번 치루어지는 수능시험을 국가가 출제, 시행, 채점하는 방식이다. 수시전형은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의 모든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정시전형은 동일한 조건, 즉 한정된 시간 동안 교육과정에 근거한 동일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전국규모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최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형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수시의 다면적 평가가 오히려 학습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과 정시의 일회성 시험으로 인해 지나친 점수경쟁이 지속되고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복합되면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 중, 고 학교급의 모든 학습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고 부담 시험인 수능의 개선책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관련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 학습자의 성장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목적, 분야별 사회적 인적자원개발 수요 등 관련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러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험문화가 초, 중, 고의 교육정책과 실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시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면, 한국 교육부는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2017. 6. 14 교육부 보도자료).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기초학력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평가를 실시해왔으나,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 및 학교간 등수경쟁,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전국 학생 중 총 3%의 표집대상만이 이 시험을 치르게 되며 초등학교는 표집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일제형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교육청은 2016년 시험을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부산교육청은 2017년부터 객관식 문항 출제를 금지하고 서술형, 논술형 문항만 출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처럼 초등학교 수준에서 시험을 폐지하는 획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클 것 같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행평가로의 전환으

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부각될 것이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다. 수행평가에 관한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심층면담)

	Elementary	Middle	High
Stu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평가는 교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주관이 심하게 반영되므로 시험의 비율이 더 늘어나야 공정한 학생 평가가 가능함 수행평가는 교사가 웬만하면 점수를 잘 주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통해 실력을 잘 측정할 수 있음 협동을 하는 수행평가의 경우, 참여 정도와 능력의 차이가 나도 같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불공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함께 해서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은 좋음 	
tea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평가로의 전환, 초등학교에서의 무시험 등이 오히려 학교교육을 무력화시키고 학원교육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평가방식의 획일적 개선보다는 교과와 특성에 맞게 변화시켜야 함 교권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전문가로서 교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민원 발생시 표준절차가 확립되어야 함 (FT7) 우리나라 교육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서양의 화와는 다른 풍토속에서 선발제도를 무조건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음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새로운 정책의 시도는 중단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평가를 통해 적용력, 이해력, 창의력 등 다양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수성, 협동능력 등도 함양할 수 있음. 그러나 모든 내용, 과목을 수행평가로 할 필요는 없으며 학습의 수준, 방법, 내용 등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해야 함. 일괄적인 지침이 문제임 수행평가라 할지라도 학습내용 중 평가할 부분을 미리 질문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그것만 준비함. 딱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함 수행평가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수행평가는 변별력을 갖기는 어려움 현실적 대안으로 수행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확한 지침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 및 충분한 시간 확보 등 관련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인식의 전환없이 시험제도만 개선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으로 인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함 지식 비중이 100%가 되는 평가는 지양해야 함. 평가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량과 정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평가로의 방향 전환은 좋지만 그것이 부모에게는 더 많은 사교육 부담으로 다가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잘하도록 해야하므로 고민스러움 		

수행평가는 지식중심의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고차원적 사고력과 다방면의 능력을 전인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수행평가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보완책이 없는 획일적인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크다.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행평가를 본래 의도에 따라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

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상의 지침이나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교과목이나 내용에 따라 수행평가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행평가는 지필고사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보기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적인 수행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로는 학부모님들이 전체 수준에서 자신의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수행 평가를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여력이 없어요. 실제로 수업하고 수업하는 시간 외에는 공문 처리하고 계획서 쓰고 보고서 쓰는 게 정말 많고, 담임선생님은 아이들 상담하고 친구관계 조절하고 이런 거 때문에 평가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ET2, 사회 담당)

둘째, 수행평가는 학습자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사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경쟁지향적인 현재 교육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면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만 하게 된다면 매일매일 평가하니까 더 숨 막힐 거 같아요.” (AS2)

“소름끼칠 거 같아요. 선생님이 항상 감시하고 있는거 같아서 수행평가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식이면 소름끼칠 거 같아요.” (AS4)

“학원은 다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입장에서는 주어진 거만 하면 되고 그 양도 많으니까 양질의 학습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겠죠.” (DT3)

셋째, 기존의 지필고사에 비해 변별력이 떨어지며, 교사의 주관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진학, 선발이 목적인 시험일 경우에는 매우 사소한 점수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수행평가로는 그러한 구분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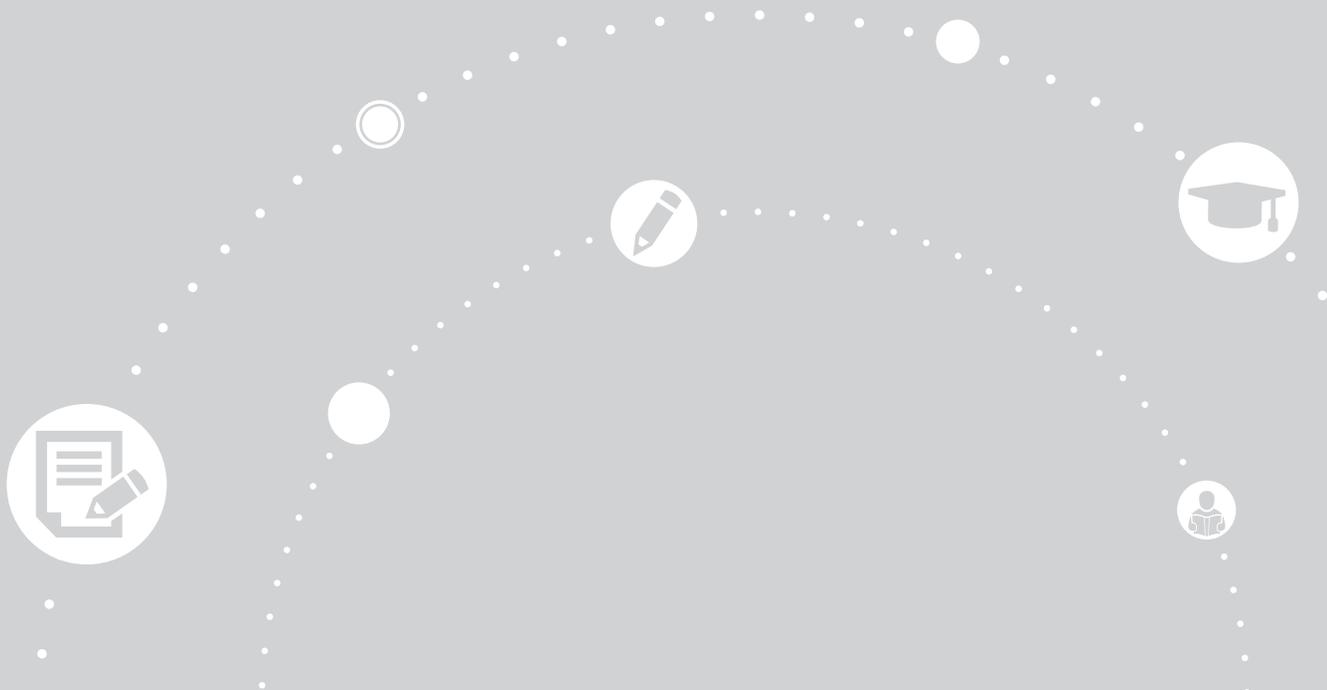
“수행평가는 종합적 평가는 되지만 사이평가는 안되더라고요. 1점간 차이를 내려면 지필고사 말고는 없어요. 수행평가를 하면 극간이 5점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건데 지필고사는 0점부터 100점까지 신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발을 위한 거는 지필고사 말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력을 가르는 정도에 극간을 여유 있게 두는 건 수행평가로 되지만 합격여부를 위해 정밀하게 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필고사 만 한 건 없어요.” (AT2, 국어 담당)

“대입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1점이 큰 점수가 되거든요. 거의 사활을 걸거든요. 죄송한 말이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그냥 점수가 오르면 좋고 틀리면 틀리는 거라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0.1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별의 별 수를 다 써요.” (DT1)

“교과서대로 진도가 나가야하고 평가에 제한점을 두니까, 평가를 했을 때 신뢰도와 타당성이 떨어질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싫어하세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오롯이 교사에게 평가를 하는 자로서 권한을 인정하기 보다는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평가할 때도 위축이 되죠. 서술형에 있어서 창의적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때 평가표라는 게 사실 다양하잖아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때, 결국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라 그러다 보면 답안의 폭이 좁아져요. 결국 취지와 다르게 되는거고 모순이죠.” (ET1, 물리 담당)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2.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험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습자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함의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험’은 UNESC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 사람(개인)의 숙련도 또는 지식의 질이나 성과를 확립하고자 하는 절차; 학습자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응답자가 시험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응답자는 시험을 표준화 된 지필식 시험으로 한정하여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은 수행평가 또는 다른 대안적 평가 방법이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 시험 및 고부담 시험에 대한 인식 역시 응답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국제비교연구의 한 사례연구로 행해진 본 연구의 특성상, 공통된 기준과 내용을 따르다보니 보다 상세한 개념적 구분과 그에 따른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추후 더욱 세밀한 관련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1)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2) ‘시험문화’와 교육정책 및 실제와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3) ‘시험문화’는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과(성취,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의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시험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험은 어떤 이유로든 모든 과목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능력을 비교 평가

하는 기준으로서, 교사는 학습의 일부로서, 부모는 삶의 일부로서, 각각 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응답자의 인식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교육의 한 과정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험의 목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시험의 주목적은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고부담 시험의 주목적은 상위 단계로의 진급, 즉 선발에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시험횟수는 한 학기에 1~2번으로 답하였으나 학생들은 시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은 약 70%가 시험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과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학생의 학년 및 학습 유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시험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학년에 관계없이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학년이 높은 학생은 학부모보다 친구 또는 동료에게서 도움을 받는 비중이 더 컸다. 이는 학습 수준이 높아졌거나 자율적인 학습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학년이 높을수록 학습 강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공부나 사교육을 받는 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자유시간은 평균 하루에 1~2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결과들은 학생들을 비롯한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시험의 결과가 개인의 성취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리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험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인해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나 인식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시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시험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특히 ‘공정성’을 시험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시험을 통해 개인의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수용하겠다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긍정적이건 또는 부정적이건, 시험은 한국 사회에서 학교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생, 교사 세 집단 모두가 학생들의 학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듦으로써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다.

사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은 사교육이 중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연구결과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약 3분의 2 이상이 학교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얻고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은 상당 수의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듯하다.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모두 보였지만 교사들은 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교사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시험준비를 도와주고(M=3.61) 특정 과목의 득점을 향상시킨다(M=3.62)는 응답결과를 보면,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회의적인 입장은 이들이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에 의미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교육이 단순히 높은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면 이는 학습자의 발달과 자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 목적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의 성행은 한국인의 특성, 특히 교육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근면하고, 보다 풍족하고 나은 삶을 갖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 교사, 학부모는 모두 학습과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정신은 흔히 교육열로 묘사되는데, 이는 종종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힘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크고, 따라서 이것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전략을 통해 분출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자녀의 성취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관점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을 활용하는 방식과 교육열의 표출 역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의 결과는 시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선발과 상위단계로의 진학이 시험, 특히 고부담 시험의 주된 목적이며, 시험이 중요하고 공정하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시험에 압박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교육에도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은 한국의 시험문화를 구성하는 결정적 동인이다. 이는 앞서 문헌에서 탐구한 바와 같이 역사적인 전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문화는 지식과 평생 교육을 존중하는 유교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

왔다. 이 유교 철학은 네 가지 주요 문화현상, 즉 승문주의, 입신양명, 문벌주의, 가족주의와 상호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천년 이상 지속된 과거제의 수립과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 사회에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특정한 계층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이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신분체제가 무너지고 일본강점기를 겪으면서 시험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시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험문화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으며,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열과 사교육 성행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사회 내 경쟁은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험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한다.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률이 높은 현재의 경제 상태 및 고용불안정은 학교교육을 넘어서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다수, 특히 교사와 학부모들은 한국 사회의 경쟁이 무척 심하고 명문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학입학시험의 결과가 학생들의 미래 삶의 질과 취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명문대 입학에 대한 시험 준비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도록 사람들의 행위를 이끈다. 이처럼, 학업적 성취와 그로 인한 대학입학, 그 이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치열한 경쟁은 한국인 삶의 전체적 수준에서 시험문화를 만들어내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오랜 역사동안, 한국인의 삶에서 교육은 언제나 최상위권의 가치를 가져왔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생의 요소이다. 교육을 통해서 나은 삶을 개척하고자하는 진취적인 정신은 한국 사회가 가진 특징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 문화의 맥락에서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한 한국인들의 성취지향적인 특성은 시험을 통해 최선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으로 가시화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수월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가치관은 한국적인 고유한 시험문화를 형성하는 기본틀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시험문화에 있어서 공정성은 대체불가능한 핵심적 가치로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정할 수단을 통해 기회를 획득하거나 성취를 얻는 행위를 차단하는 준거로 작동하고 있다.

나. ‘시험문화’와 교육정책 및 실제와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시험문화와 교육 정책 및 교육 실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해방이후 한국의 시험 정책, 특히 고부담 시험 관련 정책이 초기 단계에는 교육의 양적인 팽창에 그리고 이후에는 학생들의 성장을 질적으로 돕기 위한 피드백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수립, 개선되어왔음을 살펴보았다. 고부담 시험의 주 목적은 결과 그 자체보다는 결과를 활용해서 적절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험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능과 같은 고부담시험에서는 객관적 점수 부여를 통해 ‘우수 학생을 어떻게 변별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수립-실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물론 논술, 면접, 인성 및 적성 검사, 실기 등도 모두 시험의 범주에 포함되고 각 시기별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수단들이 생성되었지만 근본적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일단 시험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교육현장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험문화가 형성된다. 우선, 시험이 어떤 형식과 내용과 방법으로 시행되는가에 관한 정책은 시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한다. 본 연구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시험은 자신이 가진 견해와 생각을 표출하기 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당사자들에게 학습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점수’의 획득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 일종의 학습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이해당사자들의 행위와 실천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책이나 제도를 수용하고 그 틀 안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강도가 커지면 유리한 입지를 갖기 위한 다양한 방식과 더불어, 편법이나 불공정한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몇 년 이후에 배울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선행도 거침없이 이루어짐을 본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정적인 측면이 점차 늘어나고 당초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면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문화로 인해 과도한 경쟁과 그로인한 스트레스의 가중, 초중등 교육의 비정상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되었을 때 수행평가 도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초등학교 일제 고사 폐지 등 새로운 시험 관련 정책이 수립되며, 그 같은 정책이 수립

되면 그에 대응하는 시험문화가 형성되는 일종의 패턴이 생기게 된다. 시험문화와 교육정책은 이처럼 순환적 구조를 이루며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부담 시험정책은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거나 누가 상위 단계로의 진학 또는 진급을 위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을 최적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측면이 있다. 어찌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사한 역량을 가진 경쟁자들을 변별하기 위한 시험의 도구적 가치가 학습 및 교수법 개선을 위해 의미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평가 본연의 가치보다 보다 더 유용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습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려는 요구와 시도 역시, 항상 존재해왔으며, 입학사정관제, 자유학기제 등 보다 바람직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험관련 정책에 대한 탐색과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정책 뿐 아니라 교육실제의 측면에 있어서 시험문화는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에서 시험이 갖는 중요성과 그로 인한 압박감은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궁극적인 시험은 대학입시로 사실상, 이 고부담 시험이 모든 교육의 단계와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험을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개선이 일어나도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학, 진로를 결정짓는 시험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면서 입시에 필요없는 교과목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학습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시험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개입은 확대된다. 시험을 시행하는 당사자인 교사는 시험문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평가기준이 명확한 지식 관련 문제를 선호하게 되고, 다양한 대안적 평가방법을 시도할 동기와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부 학생들은 아예 학습을 포기하는 일탈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시험문화는 이처럼 교육 실체에 크고 작은 수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앞서 교육정책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험문화가 교육실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심각해지면 새롭게 개선이 시도되고 그에 대응하는 시험문화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양자간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체감되는 대학입시의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되는 크고 작은 시험관련 변화는 현실개선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정책을 개발하여 보다 긍정적인 시험문화를 조성하도록 이끌고, 시험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의 능력과 적성을 확인, 발전시킬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노동 시장과 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 시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함께 제시되고 실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시험문화’는 학습자와 학습자의 성과(성취,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시험 문화가 학습자, 학습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선행연구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시험, 특히 고부담 시험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이 학습자와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Jung(2008)의 연구는 고부담시험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교사와 학교 행정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단기간에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험은 학생에게는 평가받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자, 학교, 정책입안자, 정부 등에게는 교육의 수준 및 질에 관한 모니터링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담 시험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시험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문헌조사에서 검토된 Suen & Yu (2006)와 Ryan & Weinstein (2009)의 연구에도 잘 드러나 있다. 본 설문 조사 결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초6, 중2 학생들에 비해 학교 공부 및 사교육에 할애하지 않는 자유시간이 적었고 면담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시험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며, 2015년 PISA 웰빙 보고서에서 한국 학생들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운동을 하는 시간이나 자유시간이 적어서 OECD에서 최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조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시험에서 비롯된 과도한 학업적 스트레스와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험에만 집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특정 학생에게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시험을 잘 못보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습동기를 저하시켜 불안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는 또한 우리나라 초·중·고 학습자들이 학업적 수월성과 성공, 시험성적을 높게 받는 것 등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갖고 있음

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고부담시험을 통해 학습에 강력하게 동기화되는데, 그러한 동기화와 기대에 대한 영향은 교사, 형제자매, 친구 등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가장 큰 영향은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모로부터였다. 학생들은 또한 경쟁과 꿈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내적인 열망으로 시험을 잘 보고자 동기부여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을 잘 보았을 때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보상과 반응에도 동기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문헌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Bishop, 1998; Rosenshine, 2003; Bruan, 2004). 본 연구 결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만족할 확률이 가장 적었고 또래집단이나 친구들의 점수가 자신보다 높을수록 낙담하거나 점수가 낮으면 가족을 실망시킨다고 느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학생들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시험으로 불안해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적게 동의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불안을 느낀다는 강선모와 심혜숙(20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시험문화는 또한 학습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교수법, 교육과정 및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시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시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과목을 다른 과목보다 더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을 시험에 대비시키기 위해 교과 과정이나 교수법을 변경시킨다는 Jung(200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 수능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노력하고 중요한 시험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과목, 학습 또는 활동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교사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불만으로 표현되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대신 단순한 지식만을 평가하는 암기식 시험을 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험의 공정성, 즉 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만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소위 역류효과 (washback effect)로서 우리나라 학교의 학습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 한국의 시험문화는 대다수 학생들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반영하고 있다.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6년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총 사교육비는 18,2조로 이는 같은 해 국가 총예산의 약 4.7%를 차지한다. 과중한 사교육비는 국가경제면에서 볼 때, 가용한 교육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학부모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이는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은 학생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면,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건설적인 경쟁을 촉진하며, 직업 선택을 도와주는 등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시험이 갖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심층면담 결과, 학부모와 교사가 학습 동기 부여 능력 때문에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험의 부재가 학습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수차례 확인되었던 바이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유도된 학습 동기 부여가 바람직한지의 여부와 시험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쟁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학습자의 이탈행동이나 비정상적인 학습활동, 무력감,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험문화가 학습자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2. 제언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서부터 현재의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능력시험에 이르기까지 천년 이상 지속되어온 독특한 시험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험과 시험 관행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선발, 승진, 평가 및 사회적 계층화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험이 본질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심층면담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동기와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쟁에서부터 기인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사회이며, 시험에 대한 견해는 개개인이 경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경쟁과 고부담 평가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 및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경쟁은 만족감과 행복의 감소,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 무력감,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우울증과 자살 등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시험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발견되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조차도 시험이 가지는 선발 및 변별을 위한 도구로서의 유용성과 사회에서의 유의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시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성찰이 요구된다. 천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견고하게 형성된 시험문화의 개선은 바꾸기도 어렵고, 그러한 시도 자체가 여러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국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으며 열정이 강하다. 더욱이 더 나은 학업성취에 대해 학생 본인이 가지는 기대와 남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높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연구 결과, 이해 관계자들은 시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었지만 시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있었다. 사람들이 시험에서 부담감을 느낀다고 할지라고 부담이 더욱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표출된다면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고부담 시험에 대한 불안은 주로 선발과정에서 탈락하는 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실패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구축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계획도 필요하다. 또한 부정적

인 측면에서, 시험과 경쟁은 사교육의 심화로 이어져 공교육에 대한 관련인들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또한 공교육의 실행 및 교육 내용에 수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험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및 실행’ 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언들은 본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여 포괄적 수준에서 기술되었다. 이들은 실제로 정책화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있고, 서로 중첩되기도 하며, 상호모순되어 보이는 것들도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맥락에서 시험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및 실행

1) 고부담 시험 정책의 부작용 분석에 기반한 새로운 제도 및 정책 수립

시험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대학입시 등 고부담 시험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과 현실적으로 시험의 가지는 공정성의 가치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더라도 이것이 대학입시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당초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초등학교에서는 표준화된 시험 대신 수행평가나 기타 대안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시키는 등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완화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실적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차피 대학입시라는 고부담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위 학교급 단계에서의 시험 폐지나 헛수의 경감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인들의 회의적 태도와 더불어,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생기면 이해당사자들의 개입이 증가하고 불만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정성의 가치를 잘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시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한 중학교 교사는 외고 진학 시 별도의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TOEFL 등의 영어성적을 반영하던 몇 년 전의 경우,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교과서 밑에 TOEFL 문제집을 깔고 몰래 학원숙제를 하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공인 영어성적 제출을

없애고 영어내신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시정책이 바뀐 후부터는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분위기로 바뀌었던 경험을 상기하며, 입시정책은 비단 최상위권 학생 뿐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의 수업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에 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00구의 한 중학교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매우 높고 영어교육에 대한 비용 투자가 많은 지역인데, 최근 1~2년 사이 영어 사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중학교 1학년이 수능 모의고사를 푸는 식의 과도한 선행은 필요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학부모들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외고 입시에서 중학교 3학년 영어성적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반영한다는 정책이 알려지면서 그 대상인 중 1, 2학년 학생들은 예전보다 시험성적에 덜 집착하고 수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영어 이외의 과목, 특히 수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기는 하나, 수능에서의 절대평가 과목 확대는 과도한 경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로 평가하지 않지만, 중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가 평가의 주를 이루어오다 2012년 ‘성취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중학교와 특목고 전문교과부터 절대평가가 실시되어 왔다. 기존 석차 9등급제에서 성취기준에 도달한 개인 성취율 정도에 따라 일반과목은 5단계로, 예체능과목은 3단계로 개인 성적이 제공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996~2004년까지 절대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내신 과대평가 현상에 대한 지적에 따라 상대평가(석차 9등급제)로 전환되어 형식적으로는 석차등급제와 성취도를 혼용 병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석차등급제를 반영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학생평가의 경우 대입의 영향으로 내신의 신뢰도와 평가의 객관성이 강조되어 상대평가 체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현장에서의 준비가 미진하고 교사 평가권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낮아 현 정부의 절대평가체제로의 전환은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이다. 시험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평가 프레임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의 전면 실시는 상당 기간 시행착오와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식 처리 능력에 기반을 두고 ‘수능 한 문제를 맞고 안 맞고’의 차이로 대학의 레벨이 달라지는 입시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성 교육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2) 대안적 시험 정책·제도의 현장 착근을 위한 교육 여건의 개선

새롭게 시도되는 여러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서술형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모든 학교급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단답형,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지식의 습득과 그 양을 평가하는데 최적화 되어있다. 기존의 지필평가가 갖는 문제점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첫째, 결과중심의 평가로 선다형의 경우 그것을 푸는 과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즉, 어떻게 그러한 답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 둘째, 단순암기식 공부로서 고등사고능력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 등을 측정하고 피드백하는데 한계가 많다. 셋째, 시험기간이 정해져 있어 단시간의 암기식 공부로 준비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시험 종료 후에는 잊어버리게 된다. 넷째, 시험범위가 많아 학업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라는 흐름이 역류하게 된다(역류효과). 결과적으로 수업도 지필평가를 위한 내용전달/정리/암기/문제풀이식의 수업으로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창의적인 수업이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지필평가는 정말 불필요한 평가인가? 지필평가는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식 정시평가를 의미한다(교육부 훈령 제169호). 학습과목에 따라 또는 학습주제에 따라 선다형평가, 서술(논술)형 평가 등의 지필평가 역시 필요하다. 즉, 획일적인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기 보다는 교과나 학습주제의 평가 목적에 따라 선다형 평가,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포트폴리오, 구술시험, 토론법, 실기시험,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평가 보고서법, 동료평가 보고서법, 연구 보고서법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부 훈령에서 지필평가(정기고사)와 수행평가(수행과정 및 결과의 관찰에 대한 평가)로만 구분하는 것은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살펴보면, 사실상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과 학습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평가도구 및 방식은 학교에 이미 확산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어평가의 경우 영어 말하기 평가가 필요성이 높아 비교적 타당한 평가 도구로 인식되며, 다른 평가보다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일, 2010).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의문에 여지가 있다. 대안적 평가가 안정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학습의 질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 수업의 개선과 더불어 평가의 목적, 내용, 준거가 확립되어야 하며,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교사의 역량과 교권의 강화를 위한 지원도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1999년 수행평가 도입이후, 아직도 교육현장은 수행평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현장교사들 사이에는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많다. 원래의 수행평가는 수행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평가라는 의미인데 초기에 현장의 반발이 심하자 서술형/논술형 평가까지 수행평가로 분류되어 실시되어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흔히 수행평가는 평상시에 보는 지필평가(서술/논술)나 수업시간이외에 부과되어 작성되는 과제로 시행되곤 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에 따르면, 이는 흔히 ‘엄마평가’라는 혹평을 받고 있으며 초중등에서 수행평가 대행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수행평가가 당초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신동일(2003)은 우리나라에서 수행평가가 적절하게 운용되지 못했던 것은 수행능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장 전문가들은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평가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질적(qualitative) 평가의 개념들을 새롭게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행평가의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평가 정보의 보관, 복수의 평가팀에 의한 상호교차적 평가 도구 검증, 제3의 집단에의 신용도 분석 업무 의뢰 등이다.

대안적 평가의 현장 안착으로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방법을 꾸준히 개발하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원연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교사 1인 당 연간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긴 하나, 전공과 상관없는 취미활동을 통해서도 연수 이수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전문성 연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한 현장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성향이나 요구사항은 한 해 한 해 변하는데, 교사가 임용고사에 합격한 후 받는 1종 연수를 제외하면 정년까지 별도의 교과 관련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도 물론 다수이지만, 과거 대학 때 배운 지식에 안주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교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전공 관련 추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다 유연한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이 보장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경숙(2017)은 초중등학교의 평가는 가르치고 배우는 이들이 서로 함께 탐구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평가 자율권, 교사의 평가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제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학습진도와 시기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가 바뀌면 수

업도 바뀌게 되므로, 교사가 자율적인 신념에 맞추어 각 교과나 내용에 적합한 수행평가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평가의 본질은 서열화를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교사가 자율적인 교육기획력, 즉,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구성권, 교사별 평가권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하다. 물론 입시와 같은 고부담 경쟁시험의 경우 공정성과 변별력이 담보된 표준화된 시험 고안도 필요하다.

교사별 평가는 학급별로 수업을 담당한 교사별로 문항을 출제하고 직접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별 평가가 도입되면 해당 영역과 단원이 끝날 때마다 반마다 평가시기를 달리하여 평가의 즉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상시평가(수시평가)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교과별(학년별) 평가 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의 창의적 수업 시도나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사의 의욕적인 시도가 때로는 동료교사에 대한 민폐로 인식되기도 하고, 공동출제/출제유형의 보편타당성 유지 압력으로 인해 교사의 창의력과 전문성이 수업에 반영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은 사실이다. 교사는 소위 지식의 단순 전달자일 뿐 지식의 촉진자가 되지 못해왔던 것이다.

교사별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과목 담당 교사마다, 초등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마다 다른 방식, 다른 시기, 다른 내용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 수업활동을 성실하게 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교수학습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사마다 다른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상대평가 체제하에서 효과적인 평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교육 안정성의 근간을 흔들만한 민원의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안적 평가방법을 개발, 적용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이 소위 ‘평가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 년 내내 다양하고 고부담인 시험이 계속 되면 학교는 평가지옥이 된다. 평가지옥에 빠지느니 ‘차라리 한번 시험치고 마는 게 편하지’라는 편의주의적 유혹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서 생길 수 있는 심리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을 전체 학교 차원에서 함께 조율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초중고 교육과정 변화와 대학 진학 간의 연계성 강화

현재, 학생들이 적성, 능력, 특성에 적합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현장의 움직임을 확대하는 한편, 이것이 상급 학교 진학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꿈을 찾고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실시 이후, 평가의 축은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찾아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충분한 준비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예산부족이나 교사 수급 부족 문제로 인해 기존 교사들이 자유학기 연수 몇 십 시간을 수강한 후 해당 교육과정을 지도하도록 권고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작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직업군은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현장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유학기 동안 시험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자유학기 과목이 아닌 다른 교과 수업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사교육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대충 놀더라도 학원에서는 진도를 계속 나가는데 비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대충 시간을 때우다 2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큰 실력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비교한다면, 사교육 열기가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자유학기를 거친 이후 학력차이가 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원과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진학과 연결되도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 및 입시 제도가 진실로 인적자본이 뛰어난 창의적인 인재를 가려내고 있는가? 국가적 수준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단순 직업선택이 아닌 생산성이 보다 높은 창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로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결 높아지고 있다(김세직, 2014). 2017년 새 정부의 수능절대평가, 고교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 등의 교육정책 기조도 그 목적은 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 같이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는 ‘겉보기 인적자본’이 아닌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재 변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시험제도를 바꾸고, 창의성과 협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절대평가, 과정중심 평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는 있지만, 절대평가 역시 결국에는 변별력 강화를 위한 또다른 형태의 평가와 사교육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기존 평가방식보다 더더욱 예상하지 못한 교육불평등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평가 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영향 받는 요소들을 가능한 배제하고, 학생 자신의 치열한 노력과 잠재력을 통해 쌓은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평한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것이 대학 입시와 유리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하게 시도되는 좋은 정책들이 대학입시와 연계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시험문화의 특성상, 현장에 변용 또는 오용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고부담 시험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의식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들의 지나친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며 다양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다양한 능력과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어떤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시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고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1990년대만 해도 학원은 학교 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교육이 본격적으로 공교육을 흔들기 시작했다. 암기능력 위주의 학력고사에서 대학에서 수학하기에 필요한 사고력과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수능체제로의 개편은 변화에 경직되어 있던 공교육의 교육주도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위기의 공교육은 사교육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강조하였고 입시에서 수시 모집 전형 확대, 입학사정관제 신설 등 다양한 전형이 도입되며, 교사들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 사교육 팽창의 중심에는 이른바 ‘특목고 신드롬’이 있었다. 특목고, 특히 외고에 진학하면 내신성적 면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발된 집단 안에서 공부함으로써 내신이 중요한 서울대까지는 아니어도 명문대 진학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특목고 열풍은 중학생들 나아가 초등학생들까지 사교육, 선행학습에 몰려드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특목고 입시에서 수학, 영어 시험의 단계적 금지 등 사교육 억제책이 등장하

였지만 소규모 맞춤형 사교육 체제는 이미 정책적 조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사교육 확산에 맞서, 2010년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상시평가와 교사별 평가가 도입 확산되어졌다. 과거의 평가방식이 지나치게 지식 암기중심적이며 경쟁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해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선택형/단답형/결과중심 평가를 서술형/논술형/과정중심 평가로 개선하고자 상시평가가 실시되었다. 또한, 학급 담임교사의 지도 내용에 따라 평가 문제를 다르게 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게 교사의 창의적인 교과과정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교사별 평가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 취지에 반하여,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부모의 영향력, 평가기준의 불명확성, 민원소지에 따른 문제수준의 하향 평준화해지는 지식중심 출제경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평가의 기본 목적인 학업성취도 측정의 객관성, 변별력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일부 교사들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의 평가권이 약화되고 학부모들의 불만과 의심이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 관련 신뢰는 사교육 시장으로 이전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업성취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한 정보를 원하며, 공교육에서 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사교육, 즉 학원을 통해서라도 서열화된 양적 측정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맹목적 신뢰와 높은 의존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험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 환경을 왜곡시킨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은 부모 상담을 통해 첫 아이 교육을 위해 우여곡절을 겪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맞지 않은 교육은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유연하게 둘째 아이의 교육에 임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부모들은 사교육 업체를 통해 교육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들의 불안 조장 마케팅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1~2년 사이 00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외 학생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의 등록 비율이 폭증했으며, 일부 동아리가 사교육 업체에서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그 원인을 조사해보니, 이는 자사고 입학 시 스펙에 도움이 된다는 학원가의 부추김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 대입과는 달리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학생이 무리하게 시간을 빼앗기고 학원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해야 할 일이 아니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안 하면 큰 불이익을 받는 줄로 생각해 무리한 경우가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공교육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업체에서 과장해서 부

추기는 내용 중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것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학부모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녀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청 주관 입시설명회, 진로 설명회, 자녀 교육 관련 세미나 등을 자주 개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학부모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임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식적인 정보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 중등학교급에서는 영재고, 자사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과도한 사교육으로 내몰고 학업스트레스를 주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재고의 경우 한 학교 졸업생 당 실제 합격 비율은 미미하나,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고 준비에 임하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는데, 실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영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정규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정도의 학생이므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지원을 고려해볼만 하다. 그러나 평범하더라도 성실한 태도를 가진 학생이라면 빠른 선행과 반복적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영재고에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일단 합격하면 명문대 입학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에 현혹된 많은 학부모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영재고 준비 과정에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안타깝게도 학생들 중 대부분은 중 1~2학년 무렵까지 혹독한 사교육을 겪은 후에야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급격하게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다. 실제 선발되는 영재들이 대부분 사교육의 훈련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 학생들이 진정한 영재인지 의구심도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을 고립시켜 지적인 영역에만 치중하여 교육시키기보다는 다양한 학생들과 섞여서 다양한 측면을 서로 배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최근 수 년 간 증원된 자사고, 영재고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온 일반고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공교육 전반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은 존중하지만 그로 인해 사교육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공교육이 약화되는 것에는 적극적인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학부모의 인식이 막대한 작용을 하므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 시험의 신뢰성에서 시험의 타당성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시험문화는 타당성(validity)보다는 신뢰성(credibility)에 큰 비중을 두면서 진화해온 듯하다. 이 신뢰성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시험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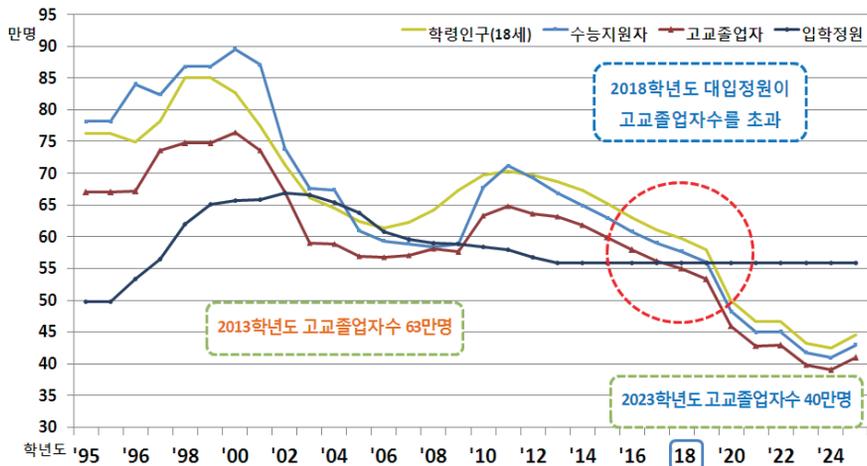
가 믿을한 것인가?’ 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로 점철되며, 이는 현재의 시험문화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가 되어왔다. 어떤 국가보다 한국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광범위한 까닭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시험 중심의 교육체제와 각종 선발방식이 이루어져 온 때문이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시험을 통한 선발은 사람들에게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놓았다.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일찍부터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 점은 시험의 부작용이 존재했다고 해도, 사회구성방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의 공적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 희망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평가의 내용이 가치로운 것인가?’ 또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 평가할 것인가’의 타당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가 격변하고 교육과 평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에 발맞추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역량을 기울일 때이다. Sahlberg(2015), Robinson(2015), William(2016) 과 같은 학자들은 경쟁(competi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시험기반 책무성(test-based accountability), 시장화(marketization) 등을 강조하는 ‘글로벌 교육개혁운동(global educational reform movement)’가 시장논리, 경제논리로 교육에 접근함으로써 교육을 병들게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여 협동(collaboration), 개인화(personalization), 신뢰기반 책임감(trust-based responsibility), 전문성(professionalism), 등을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와는 판이하게 달라질 미래에 필요한 기능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21세기 학습을 위한 기준틀(the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에 의하면 이는 ‘학습 및 혁신 역량(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정보, 매체, 테크놀로지 역량(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 ‘생활 및 직업 역량(life and career skills)’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력성, 의사소통, 다문화이해, 리더십, 정보 문해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p21.org). 이처럼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능을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2017년도 대선을 전후로 큰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을 위해서도, 교과, 학습주제와 평가 등 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며 지필평가에 의존한 현재의 평가체제는 그러한 요구와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타당도 낮은 형태로서 그 변화가 필수적이다.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학생들의 능력을 계량화하고 서열화해왔던 과거의 관행에 대해 시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근본적 기능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을 유도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시험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를 시

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교수 및 학습 방법의 총체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과연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역량을 탐색하게 하는 교육적 차원의 배려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교육은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소수 리더만 교육하고 배출하면 된다는 틀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수하지 않고 서열에서 밀린 학생들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어떻게 설득가능한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012)에 따르면, 2012학년도 이후 학령인구가 <그림 4>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당장 2018학년도에는 고교졸업자수가 대학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정원 축소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뿐 아니라 줄어든 학생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사회에 내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출처: 교육부(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그림 4> 학령인구 · 고교졸업자수 · 대학입학정원 변화 추이

따라서 학생은 이제 가르쳐야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각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함으로써 그의 질적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평가의 본질임을 돌이켜볼 때 시험의 개선은 이를 ‘교육의 과정(process of education)’으로 인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선불리 특정 시험만 콕 집어 ‘원 포인트’ 개선을 시도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다. 대학체제와 사회구조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시험문화는 변화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 종합적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로드맵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도

록 해야 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주체적 사고와 창의성, 종합적인 판단 능력과 주도적 문제해결력 등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역량의 학습과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시험이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해본다면, 역류효과를 통한 교육의 전반적 질 개선을 꾀할 만하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형식과 상황에 의해 통제된 시험 환경을 넘어서서 실제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수행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술형, 프로젝트형, 참여관찰형 등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밝히고 스스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학습의 과정을 여러 측면에서 세심하게 관찰하여 평가하는 질적인 평가방식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 이해당사자와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반발도 드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전체 구성원으로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차원의 다양한 능력을 보다 정교화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인류사적 진보의 시대정신을 거스를만한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시험문화는 더 이상 현실에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에 대응하여 임기응변 또는 미봉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형성 되서는 안 된다. 다양한 학습자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을 촉진하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신뢰기반 시험문화를 형성하도록 관련된 사람들과 사회가 노력할 때 시험이 가진 순기능은 강화되고 교육과정(process of education)의 한 부분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열의 긍정적인 전환

우리의 교육열은 비단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랜 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주목받아왔다. 그리고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종종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에게까지 시험 및 상위 교육단계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김필성(2016)은 새벽에 등교하고 야밤에 하교하여 심야 학원을 다니는 대한민국의 학생을 영국의 노동 조건과 비교하며, 이는 학업스트레스 및 경쟁심, 불안감 등을 가중시키고 일상 활동에 영향을 주며,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놀거나 경험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어 발달기회와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처럼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는 사교육의 주원인이 되는 교육열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비판한

다.

그러나 시험을 향한 한국인의 교육열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투자는 다음 세대 교육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세대간 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며, 다양한 불평등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한다. 2009년도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후 한국의 교육열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육열은 한국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아마 지필시험이 아니더라도 평가가 존재하는 한 평가를 둘러싼 이런 가치관과 사회적 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교육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된 힘이다.

교육열에 대한 주요한 비판 중 하나는 이것이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일부 타당하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이종각(2011)은 첫째, 경쟁은 비교육적인 경우도 있지만 교육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되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쟁이 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교육은 인간의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며 과정인데 필연적으로 경쟁이 존재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유독 교육의 장에서만 경쟁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교육은 오히려 건전한 경쟁을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교육의 현장과 사회적 현실에서 건전한 경쟁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성취욕구가 발현된 것이 바로 학부모의 교육열이며 이는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진취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욕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해야만 이를 자원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준상(1998) 역시, 교육이 출세를 위해서만 활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얻기 위한 구조와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하는 욕망이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종각(2011)은 우리 사회가 매우 정상적이고 능력에 따른 출세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교육은 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비난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가진 생산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으로 쏟아지던 투자가 공교육과 지역사회 등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어 이루어지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이 개인의 전문적 능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지언정, 적어도 중등학교 내신과 시험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틀안에서 학습과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실제적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대학서열화 대신에 평준화된 대학제도를 선호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환경과 교육체제에 대한 구체적 미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평가체제의 혁신을 위한 담론의 기획

학내 평가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기존의 평가담론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타당성 대신 ‘변별력’, ‘공정성’, ‘객관성’ 위주의 평가담론이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고 교육에 대한 신념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론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식 전환만으로 시험문화가 바뀌지는 않지만, 인식전환이 없이 시험문화가 바뀌지도 않는다.

특히, ‘변별력’ 담론은 절대평가 및 등급완화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이다. 사실 변별력 담론은 객관성과 공정성 논리마저도 삼키는 경우가 많다. 변별력이 있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변별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진원지가 유명대학과 언론이라고 지목하며, 변별력 담론으로 유명대학은 희망하는 학생을 쉽게 얻고자 하고 언론은 엘리트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교육에서 변별력이란 과연 무엇인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인간이 인간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한계지점이 어디까지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변별력을 극대화한 방식이 선다형 시험에 점수를 세분화해서 배분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점수대에 학생들이 산포해 있으면, 특히 고득점대에 동일점수 학생들이 적으면 흔히 변별력이 있다고 언론은 기사를 게재한다. 이 같은 변별력 담론은 결코 인간능력을 절대화해서 보여주지 못한다. 신동일(2003)은 여러 학습 및 습득이론에서 보편적인 객관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완벽하게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서 항상 배제되어야 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변별력 논리는 실은, 능력의 상대화를 요구하는 것일 뿐, 개인이 얼마나 교육을 통해 성장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관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평가 담론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평가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본 원칙을 중심에 두면서 평가에 대한 가치와 각종 평가방법 등을 위계화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대학 각각이 개별적 욕망을 전제로 개혁을 논의한다면 평가 담론의 전환은 골 깊은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을 위한 평가 담

론의 기본 원칙은 ‘모든 학습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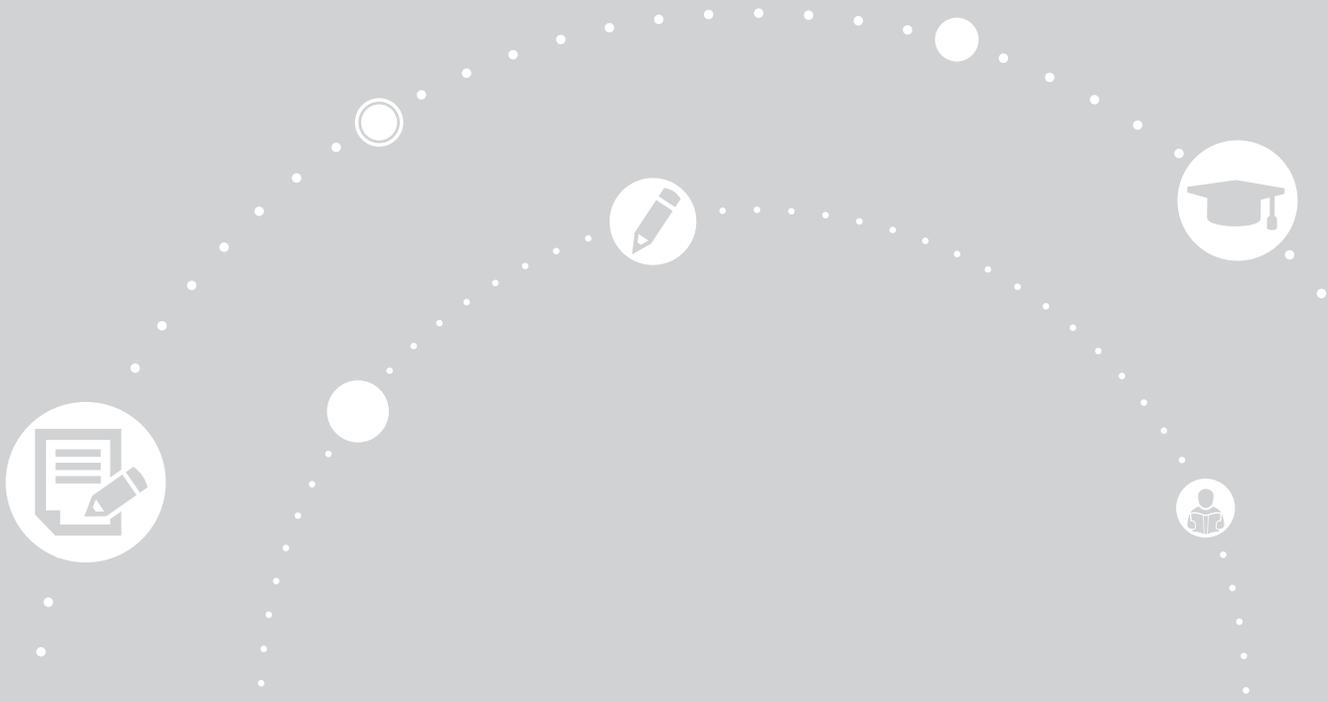
현 시점은 어쩌면 교육과정과 평가체제의 혁신을 위한 담론을 형성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2017년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교육이 화두가 되면서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대입과 평가에 대해서 전 국민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온·오프라인에서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개선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과 1993년부터 시작된 수능능력시험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은 단순한 교육적인 정책 결정을 넘어서서 마치 양측의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단판 승부라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부종합전型的 폐해에 대한 기사를 쏟아 내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금수저전형의 대표적인 산물인 것으로 호도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수능이 가장 공정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정함’은 숫자로 계량화하여 서열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쉬운 평가도구로서의 역할이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실현하고자 했던 사회적 정의실현, 사교육비 저감, 선발의 공정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수능은 EBS 연계율이라는 준거를 통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으로 변질된 바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선행과 반복이 가능한 사교육 시장의 주된 타겟이 되었다. 실제로 2015 고등학교별 수능지수와 지역과의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수능평균 지수가 높은 학교일수록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위 등급을 휩쓸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는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체계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라는 세 요소에 대해서 각자 담당자들만이 자기영역에서 열심이었던 과거와는 너무 다른 변화이다. 따라서 어떠한 말들이 쏟아지고, 반응이 나오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방향을 잡고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객관식 시험과 표준화 검사에서 교사가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교사의 평가권 또한 회복된다. 하지만 문제는 교사가 객관적인 평가자로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신동일, 2003). 또한 대안적인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를 하는 주체들과 평가를 받는 대상 모두 대안적인 평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를 위한 타당화 작업 및 평가지식교육과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정부 차원에서 시험문화의 개선과 관련하여 급하게 정책을 집행시키려고 한 경우가 존재했는데, 그 예로 도입 후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폐지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이 형성되기 전에는 R&D와 상

식 및 신념체제의 변화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평가를 받는 이는 물론이고 평가를 담당하고 주관하는 주체들조차 평가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의 지식이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평가 담론의 전환을 위한 실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단위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교육과 평가의 근본적 목적,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 평가 이후의 결과 활용방법 등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생들과 가정에 전달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한다. 그리고 새 학년이 시작되면,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학년별, 교과별로 평가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와 학교의 의무, 평가목적에 따른 적절한 평가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평가가 성취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장치가 아니라 관련자들이 함께 만드는 행위임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며,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어(論語)』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학교모범(學校模範)』

강선모, 심혜숙(2010).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부모학습관여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827-1840.

강창동(2002). 한국의 교육 문화사. 문음사.

강창동(2013). 한국의 교육문화사(개정판). 원미사.

고영복(2005). 철학사상과 사회과학의 만남.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고재욱(2013). 한국보건사회학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동 춘계학술대회 :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업 스트레스, 부모애착, 또래애착 중심으로.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2013(0): 153-153.

교육부(2011).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1.12.13.).

교육부(2013).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3. 5. 28).

교육부(2014).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교육부 보도자료 (2014. 1. 28.).

교육부(201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교육부 보도자료, 18.

교육부(2015).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5.9.23.).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2016.8.30.일자 보도자료.

국가기록원(2006). 대학 입학제도 변천. (2017년 8월 20일 열람).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73>

국사편찬위원회(1994). 한국사 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서울: 탐구당문화사

김경용(2014).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대동한문학, 40, 91-144.

김경용(2014). 조선의 교육현장. 박영스토리

김정운(2012). 한국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무원 시험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열, 김훈호(2015).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양상과 성과, 그리고 과제. 교육연구와 실천, 81, 27-56.

김세직(2014).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53(1), 3-20.

김소현(2014). 대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 “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 로-. 청담어문교육, 49, 135-164
- 김승태(2006).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6, 133-181.
- 김신영(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 22, 1-27.
- 김영화, 이인효, 임진영(1994).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2010).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 김필성(2016). 사교육이 학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성,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인성교육연구, 1(2), 19-43.
- 남명호(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 (ORM 2005-3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네이버 지식백과. 입신양명 [立身揚名] (선샤인 논술사전, 2007. 12. 17., 인물과사상사). 2017. 5. 23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8271&cid=42044&categoryId=42044>
- 두산백과. 가족주의. 2017. 5. 24 검색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9690
- 박혜정(2009). 학업 스트레스, 통제소재,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호순(2008). 평가하는 학교 사회: 한국교육평가체제를 말한다. 교육과학사.
- 박경호, 길혜지, 김주아, 박병영, 최유리(2016).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향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 박균열, 엄준용, 주영호(2015).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관리,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문제연구, 28(1), 81-107.
- 박환보(2015). “2장 해방 이후 학교교육 팽창의 규모와 특징”, 오성철 외(2015). 대한민국 교육70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2). 수학 선행학습 설문조사(2012)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손준중(2010). 한국 고등학교의 수평적 계층화에 관한 이해와 비판. 교육사회학연구, 20(4), 139-169.
- 신동일(2003). 문화간 의사소통과 수행평가의 새로운 이해: 질적 연구 논리와 개념에 서부터. 외국어교육 10(2), 131-154.
- 신동일(2010). 영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응용언어학 26(1), 57-89.
- 신동일(2011). 언어시험 개발과 사용의 철학적 고찰. 응용언어학 27(2), 27-51.
- 신철균, 김은영, 황은희, 송경오, 박민정(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4-17. 한국교육개발원.
- 양길석, 성열관(2009). 미국 NCLB 평가정책의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고찰. 교육방법연구 21(1), 69-88.
- 양선이(1997), 중학생의 시험불안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윤희, 장신혜, 성열관(2005). 초등학교 시험주도 교육과정 현상에 대한 협력적 실천연구. 43(4), 293-317.
-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 열린사회참교육학부모회(2013), 왜,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할까? 베이직북스.
- 오범호, 김성열, 오세희(2013). 자율형 고등학교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수상해양교육연구 25(1), 40-52.
- 오성철(2015). 한국 학제 제정 과정의 특질, 1945-1951. 한국교육사학, 37(4), 47-69.
- 오욱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 우정민, 정다운(2012). 입학 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을 통한 대학입학사정 관제도 실효성 고찰. 입학전형연구, 1(단일호), 153-179.
- 유정 · 김봄메 · 신형섭 · 정주영 · 최남희(201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심리적 충격, 우울, 불안)와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한국위기관리논집 6(3). 223-241.
- 윤성관(2012). 대한민국 교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살림터.
-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1996).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 이경숙(2017). 시험국민의 탄생. 도서출판 푸른역사.
-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83-107.
- 이기혜, & 최윤진(2016). 대학입학전형 선발 결정요인 분석: 가정배경 및 학교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2(1), 135-163.
- 이남희(2013). 고려시대의 과거제와 공공성(公共性).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2(2), 57-76.
- 이동원 외(1992). 대학입시와 가족. 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연구회. 매일유업주식회사
- 이민경(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 입시교육과 진로경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1, 79-102.
- 이상래(2005). 사교육과 공교육 현장에서의 논술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진(2013). 인조-숙종대 교생교강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2002).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의 청소년 학습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2(1). 135-171.
- 이정규(2003). 한국사회의 학력 · 학벌주의:근원과 발달. 집문당
- 이종각(2011). 교육열을 알아야 한국교육이 보인다. 이담Books.
- 이종승, 허숙(2003). 시험, 왜 보나? 교육과학사.
- 이혜영, 최광만, 윤종혁, 김규태(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해방 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정현진(2009).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현대 공개채용시험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대훈(2011). 고부담 시험 시대의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50(2), 23-40.
- 조봉래(편) (2012a).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 문민정부 교육부편 [2003-2007]. 한국교육개발원.
- 조장식(2011). 대학입시의 당락에 미치는 전형요소들의 영향력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1), 307-315.
- 조화대, 박종배(2010). 교육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지연정, 김병주(2015). 여고생의 입시준비와 학교생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행정학연구, 33, 29-53.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7). 대한민국 아동이 제안하는 제19대 대선 아동정책 공약. <http://www.srook.net/childfund/636286392108616109>
- 채재은, 한승희(2015). 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과정 분석. 평생학습사회, 11(4), 1-24.
- 최광만(2013). 조선시대 교육사 탐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 최광만(2017). 조선후기 교육사 탐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 최영표, 한만길, 이해영(1989).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재수생과 대졸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7).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 학교교육연구네트워크(2011). 일제고사를 넘어서: 변별을 위한 평가에서 교육을 위한 평가로! 살림터.
- 한국교육개발원(1988). 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만족도조사.
- 한국교육개발원(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 (KEDI POLL 2016).
- 한준상(1998).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청소년, 여성, 노인문제. 서울: 청아출판사.
- 황정규(2000).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교육과학사
- _____ (2012b).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 국민의 정부 교육부 편[2003-2007].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2c).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부 편 [2003-2007].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2d).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 이명박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편 [2008-2012]. 한국교육개발원.
- Bishop, J. (1998). Do curriculum-based external exit exam systems enhance student achievement?. *CPRE Research Report Series, 40*.

- Braun, H. (2003). Reconsidering the impact of high-stakes testing. *ETS Research Report Series, 2003(2)*.
- Byun, S. Y., Schofer, E., & Kim, K. K. (2012). Revisiting the role of cultural capital in East Asian educational systems: The case of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85(3)*, 219-239.
- Hursh, D. (2005). The growth of high-stakes testing in the USA: Accountability, markets and the decline in educational equality.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5)*, 605-622.
- Jung, H. (2008). The washback effects of English listening test in Korean CSAT on secondary school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3)*, 143-162.
- Kwon, S. K., Lee, M. & Shin, D. (2017). Educational assess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Lights and shadows of high-stake exam-based education system. *Assessment in Education: Principles, Policy & Practice, 24(1)*, 60-77.
- Lew, Y. I. (2000). *Brief history of Korea: A bird's-eye view*. The Korea Society.
- Madaus, G. & Russell, M. (2010). Paradoxes of high-stakes testing. *The Journal of Education, 190(1/2)*, 21-30.
- OECD (2017), *PISA 2015 results (Volume III): Students' well-being*, PISA, OECD Publishing, Paris.
- <http://dx.doi.org/10.1787/9789264273856-en>
- OECD (2017), Temporary employment (indicator). doi: 10.1787/75589b8a-en (Accessed on 24 April 2017)
- Pedulla, J. J., Abrams, L. M., Madaus, G. F., Russell, M. K., Ramos, M. A., & Miao, J. (2003). *Perceived effects of state-mandated testing programs on teaching and learning: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of teachers*. National Board on Educational Testing and Public Policy
- Peters, S., & Oliver, L. A. (2009). Achieving quality and equity through inclusive education in an era of high-stakes testing. *Prospects, 39(3)*, 265-279.
- Robinson, K., & Aronica, L. (2015). *Creative Schools*. NY: Viking.
- Rosenshine, B. (2003). High-stakes testing: Another analysis.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11*, 24.
- Ryan, R. M., & Weinstein, N. (2009). Undermining quality teaching and learn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high-stakes testing. *School Field,*

72), 224-233.

Sahlberg, P. (2015). *Finnish lessons 2.0: What can the world learn from educational change in Finland? (2ndEd.)*. NY: Teachers College Press.

Sorenson, CW (1994). Success and education in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8(1). 10-35

Suen, H. K., & Yu, L. (2006). Chronic consequences of high-stakes testing? Lessons from the Chinese civil service exam.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0(1), 46-65.

William, D. (2015). *Leadership for teacher learning: Creating a culture where all teachers improve so that all students succeed*. Learning Science International.

Weber, M. (1968).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연합뉴스(2017). 韓, 올해 청년실업 악화 OECD 최고...15~24세 실업률 11.2%. 2017.6.18.일자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7/0200000000AKR20170617060300002.H](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7/0200000000AKR20170617060300002.HTML?input=1195m)
TML?input=1195m (검색일: 2017.8.10.)

연합뉴스(2017). 수능개편 1년 미뤄 현 중2부터 적용. “절대평가 합의 불충분”. 2017.8.31.일자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0/0200000000AKR20170830163300004.H](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0/0200000000AKR20170830163300004.HTML?input=1195m)
TML?input=1195m (검색일: 2017.9.8.)

The Culture of Testing: Socio-cultural Drivers and the Effect on Youth in the Asia-Pacific Region

Case Study of Korea

Yewon Suh
Sangmoo Lee
Hyeji Kil
Heejoon Yang
Kangjoo Lee
Sung Hwan Hong

This study is a Korean case study of the regional study of ‘the culture of testing’ conducted by Asia and Pacific Regional Bureau for Education of UNESCO Bangkok. A total of 10 countries included Korea, Japan, China (Hong Kong), Fiji, India, Philippines, Tonga, Vietnam, Bangladesh and Kazakhstan participated in the regional study covering the culture of test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a comprehensive report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case study will be published by UNESCO.

UNESCO Bangkok have shown a keen interest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 particular with regards to the rise of ‘the culture of testing’ as a core focus of educational policy, and as a way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educational system to promote student achievement in many countries. Here, ‘testing’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quality or performance of a person’s proficiency or knowledge; the act of evaluating learners’, and it encompasses influences exerted by both ‘high-stakes exams’ used for the purposes of selection or promotion to the next school level, and various ‘low-stakes exams’ that are considered less important in impacting the test-takers’ future. The unique culture formed by the approach and methodology created to achieve better outcomes not only by the learners who take the exams, but also by other actors such as parents, teachers, schools, communities and nations with regards to testing is being called as ‘the culture of testing’.

Despite the rationalization that exams are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fact that the focus is set exclusively on achieving high scores undermines the essence of testing that has traditionally existed in the past, and thus the regional study can be regarded as a meaningful endeavor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the culture of testing in Asia where such phenomena is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culture of testing for better education.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ocio-cultural drivers that form the culture of testing in Korea and to understand its influence on learners. The study also aims to explore the various aspects and perceptions of how the culture of testing forms education policy and system and how this in turn affects the culture of testing,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ulture of testing.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 1) What are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that create a “culture of testing?”
- 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e of testing” and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 3) How does this “culture of testing” affect the achievement of learners and learning?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a desk study was first conducted, followed by primary data collection through survey and interview. Survey sampling was conducted through random sampling based on UNESCO’s proposed methodology standards, and a total of 2,323 student, teachers and parents from 31 schools were surveyed. As for the interview, 6 schools were selected, with one urban school and one rural school for each school level, and a total of 64 respondents were interviewed.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and meeting with experts were held to collect opinions on the various practices of testing and improvements to the culture of tes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vided into five areas: importance of testing, effects of testing, private education, impact on learn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e of testing and education policy.

First, looking at the importance of exams and testing, most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have 1-2 exams a semester (48.9%). In terms of time spent preparing for the exa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mostly answered 1 to 2 hours per week, while high school students mostly answered 7 hours or more, both in class and outside of class. Most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attend tutorial sessions organized by the school (80.6%), and the paper found that the higher the grade level, the more likely it was that the person who helps with the preparation for the exams extended from parents to friends/peers and teachers. As for the average free time a day, the most common response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as 3 or more hours (32.2%, 39.9%), while for high school students it was 1~2 hours (43.1%). For general tests,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urpose of testing is to evaluate learning, and to find out one's level, position, and shortcomings. For high-stakes testing, the most common response for all respondent groups was 'to assess students learning' (56.8%), followed by 'to get promotion to the next level' (54.9%). Most students and parents (82%, 83.9%) felt that testing was important, and they found testing to be important as a part of learning, and as a selection tool with fairness and discernment. While teachers mostly disagreed with the statement that they cannot do other activities due to the test preparation (64.8%), there were a quite large portion of responses that they do not teach contents/activities unrelated to the exam (63.4%).

Second, the study found that the culture of testing,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practice are closely related and constantly influence each other. As previously described in the part 5 of key findings, once any policy on the test is established, most people would try to understand and follow the policy, and a culture of testing would be formed in the proces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high-stakes exams, competition arises and people try to get a higher score even by a little. In this situation, if the intensity of the competition increases, there would also be the use of expedient or unfair methods. Consequently, it creates the culture of testing with negative aspects, and if the side effect becomes serious, a new policy would be established as a response. In Korea,

memorization-based education methods for selecting the correct answers, the prevalence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weakened state of public education have become major issues with regard to testing.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ulture of testing on this issue, policies such as test abolition, performance assessment, and Free Semester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Moreover, the culture of testing can be viewed as being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actual practice of education. Especially,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education of each stage and proces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high-stakes exam has a positive aspect that motivates students to achieve their goals and leads them to study harder, but it also leads to a learning asymmetry in which students learn only test-related contents, and render alternative evaluation methods ineffective. Similar to the education policy, if the adverse effect of test culture on education practice becomes too serious, new improvement methods are implemented and a corresponding culture of testing appear, forming a bilateral relationship.

Third, regarding the private education,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get private education (all respondents, 78.2%). The main reason for private education was ‘to improve students’ grades at school’ (all respondents, 78.2%), ‘to get higher scores on the exams’ (all respondents, 75.4%) , and so forth. Teachers mostly responded that the reason for private education was ‘parents’ recommendation/encouragement’ (81.4%). The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parents encourage their children to get private education because they have an anxiety that their children would fall behind in learning. Whi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t private education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arts and physical education with more than 8 hours of private education a week (33.8%), high school students tend to concentrate on one subject (48.3%) and get 3-5 hours (44.4%) of private education per week. Private education was shown to be beneficial to students in preparing for the exam (all respondents, 71.5%), and students in particular agreed the most that private education is beneficial for test preparation (83%). On the other hand, the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some teachers perceive private education to be not desirable because it focuses on achieving high scores rather than helping students grow and develop. When asked whether private tutoring classes improve students' overall grades, or whether it is necessary to achieve academic success, the answers were mostly neutral with the average score of 2.99 and 3.11 for all respondents, which suggest that private tutoring is not likely to have a huge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performance. The interview results also showed that there are various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about private tutoring.

Fourth, in terms of 'perception of exams and impact on learning,' most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are not enjoying exams (68.2%). In general, the response showed that 'exams are relevant to the content students have studied in class' (all respondents, $M=3.81$) and the most common response for the reason for the exam was to evaluate what the students have learned (all respondents, 4.8%).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showed that students tended to dislike tests more as the grade level increased, and some high school students were skeptical about the instrumental function of the test in selecting the right person for college admissions. The response that 'exams are necessary to achieve success' was just slightly above the average (all respondents, $M = 3.05$). The majority of students (69.1%) stated that expectation for test and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learning. While most students and parents responded that they do not think there are alternative ways to assess learning, teachers (50.9%) responded that they do think alternative ways exist. Alternative ways proposed by respondents included performance evaluation, evaluation through presentation or discussion and the like. Students (68.0%) responded that the teachers/schools do not do anything to lower exam pressure, and recommended 'lowering the frequency and number of exams' (5.5%), 'lowering the difficulty' (4.8%), 'complimenting/encouraging students' (2.7%), etc., a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too much exam pressure.

Lastly,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e of

testing and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the paper found that the policy of testing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ith emphasis on quantitative expansion in the early stages and quality development in the later period in relation to high-stakes testing. The policies of testing affect people's perceptions. In Korea, there ar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consider the fairness of the test as critical, and it seems that the culture of testing has been formed to obtain good results through maximum effort since people believe the test results are highly reliable, in general. The culture of testing, which is formed by the combined action of recognition and practice to occupy socially advantageous status through testing, affects the education policy in return. Furthermore, the effects of the test culture on education practice seem to be more directly manifested in learners and learning. Although the importance of tests in schools and its pressure vary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in general the ultimate test has always bee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which has a powerful influence on all stages and processes of education. Therefore, major improvements such as abolishing exams in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strengthening performance evaluation are not accepted as positive changes. 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level, the anxiety of the students and parents about the examinations that determine the advancement and future career paths grows progressively, leading to a phenomenon of learning asymmetry where student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subjects that are not needed for entrance examination. As competition gets more intense, the interest of stakeholders in the test is heightened and the intervention expanded. Teachers, who conduct the test, prefer knowledge-related questions with clear evaluation criteria to avoid complaints that questi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est questions, and it leads to them not having the time or the motivation to try various alternative evaluation method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findings of each research questions from the desk study, survey and interview results.

First, the factors that form the culture of testing in Korea are diverse and

complex. In general, even though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feel that they have a lot of psychological burden and pressure on the test from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y seem to strongly believe that the tes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he results showed that people trust the function of high-stakes exams as not only evaluating learning but also selecting someone for promotion to the next level, by assigning great value to fairness. Most of students get private education in order to prepare the college entrance exam, which is the representative high-stakes exam. Regarding private education, there are both pros and cons. The prevalence of private tutoring is a unique Korean phenomenon that i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the diligence and the desire for education of Korean people. High expectations and motivation to achieve better learning achievement push students to spend more time and energy to learn more. Parents also do their best to support their children, spending extra money.

Such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people are deeply related to the Confucian cultural tradition of Korea, and are connected with the sociocultural tradition of test institution, *Gwageo*, which allows people to acquire and maintain social status through testing. These days, competition in Korean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from college admission to employment and beyond, so the importance of the examination is more likely to increase. The value of fairness that guarantees equal opportunity according to one's own ability and the desire to accomplish the best achievement became the driving force in developing the culture of testing for attaining not only equality but also excellence in education.

Second, the study found that the culture of testing,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practice are closely related and constantly influence each other. As previously described in the part 5 of key findings, once any policy on the test is established, most people would try to understand and follow the policy, and a culture of testing would be formed in the proces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high-stakes exams, competition arises and people try to get a higher score even by a little. In this situation, if the intensity of the competition increases,

there would also be the use of expedient or unfair methods. Consequently, it creates the culture of testing with negative aspects, and if the side effect becomes serious, a new policy would be established as a response. In Korea, memorization-based education methods for selecting the correct answers, the prevalence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weakened state of public education have become major issues with regard to testing.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ulture of testing on this issue, policies such as test abolition, performance assessment, and Free Semester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Moreover, the culture of testing can be viewed as being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actual practice of education. Especially,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education of each stage and proces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high-stakes exam has a positive aspect that motivates students to achieve their goals and leads them to study harder, but it also leads to a learning asymmetry in which students learn only test-related contents, and render alternative evaluation methods ineffective. Similar to the education policy, if the adverse effect of test culture on education practice becomes too serious, new improvement methods are implemented and a corresponding culture of testing appear, forming a bilateral relationship.

Third, the effects of culture of testing on learners and learning were closely related to the findings from previous research and literature. The culture of testing stimulates learners' motivation and improves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learning by increasing the accountability of parents, teachers, administrators and other stakeholders. Unlike these positive effects, however, it also increases student anxiety and negatively affects academic satisfaction and happiness. A lot of previous studies support these results. The culture of testing also brings a 'washback effect' that changes the content or teaching method of the curriculum so that it is beneficial to the examination or to obtain good results. The massive size of private education markets due to the importance of testing also affects national and home economies. In addition, the inequality of education is caused by the limitation of opportunities due to economic 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culture of testing are divided into two parts: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for improving the culture of testing', an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for improving the culture of testing', the following four points suggested.

Firstly, the improvement of testing policies and systems must be made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trong influence of high-stakes testing such as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on school education, and the value attributed to the fairness of testing. In reality, it is hard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escape the influence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various poli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college entrance exams, while also securing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evaluation.

Secondly,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to improve the overall education environment to support new alternatives for traditional way of testing. It is worth considering the policies for teacher training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policies that guarantee autonomous evaluation rights of teacher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pand field activities that are desirable so that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pursue a career that suits their aptitudes, 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while establishing systems and policies that link these to moving on to the next school level.

Fourthly, to normalize public education, there needs to be policies to ease excessive anxiety of par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parents to engage in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with a longer-term perspective by clearly indicating what is inappropriate or inaccurate among the contents that are exaggerated by private education companies, and providing more concrete information on education in the public education sphere.

Next,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suggested as a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irstly, the focus of the culture of testing should be shifted from reliability to validity. Considering the ways to raise and evaluate the various high-level skills required in the future, we cannot continue on with the existing quantitative evaluation system that merely quantifies and stratifies students' abilities. Testing should be a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by playing a role in presenting a direction of education to maximize the potentials and abilities of various learners and to promote growth.

Secondly, there is a certainly a positive aspect to the education fever of Koreans for testing, which has been the main driver of Korea's economic growth and educational growth. Continued interest in testing and active investment will ensure intergenerational homogeneity and continuity through active intervention in the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cts as a watchdog of various inequalities and privileges. In order to make positive use of our productive and achievement-oriented education fever,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investment that has traditionally been directed towards private education is transferred to the public domain such as public education and local communities.

Finally, there needs to be a concerted effort to change the existing situation where more significance is given to the 'discernment',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esting rather than the validity of testing, and to create a new discourse to change the belief system about education. In particular, we need to focus on how the logic of 'discernment' that has been routinely brought up in education only demands the relativity of ability, and is not able to explain how an individual has grown through education. With this in mind, the discourse on testing and evaluation has to be focused around 'the growth of all learners'.

부록

1. 설문지
2. 세부 응답자 특성표



부록

1. 설문지(학생, 교사, 학부모용)

가. 학생용 설문지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설문조사 학생용]

연구 제목 :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연구 책임자 : 서예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치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더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는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일종의 '시험문화(culture of testing)'와 관련하여 이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시험의 문화가 학생들의 학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문화'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학생, 교사, 학부모 포함)의 다양한 생각과 접근방식, 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깊이 있는 면담과 설문지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자 합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직간접적 당사자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이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집단별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사립 또는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이 될 것이며(교사 집단의 경우, 다른 학년 담당도 참여 가능), 참여자 수는 각 집단별로 각 600명씩, 총 1,800명이 될 예정입니다.

3. 연구 참여자의 역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원이 제공하는 설문지에 응답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1회만 진행되며, 연구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선생님의 협조 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연구원, 또는 교사가 제공하는 설문지의 기본 사항,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설문 조사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여부의 선택

귀하는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혜택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의 시험문화와 시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함으로써 보다 즐겁고 행복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1,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증정 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 중단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8. 연구 참여자 보호

본 연구는 간단한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간단한 인적 사항,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특별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지켜집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9.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 서예원(연구책임자, 043-5309-549)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①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 5년 간 보존·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 ②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 및 조사 자료는 분석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사용됩니다.
- ③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연구관련 문의

- ①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예원 (연구책임자)

연 락 처: yskedi@kedi.re.kr / 043-5309-548

- ② 만일,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이메일: kedirb@kedi.re.kr, 전화번호: 043-5309-213

동 의 서

[설문조사 학생용]

연구 제목: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연구책임자: 서예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서를 모두 읽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법정대리인 동의

- 나는 상기의 동의 내용 및 상기인의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교사) 성명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유네스코 시험문화 연구 조사지(학생용)

LIST ID :

--	--	--	--	--	--	--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가 청소년 학습자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지켜집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서예원 연구위원(043-5309-548)
- 실사담당자: 백미애 사원(02-3484-3076) /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담당연구원: 홍성환 연구원(pikachu@kedi.re.kr)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우외로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소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_____ ID : _____	S/V 확인 : _____	검증원 확인 : _____	에디터확인 : _____
--	------------------------------	----------------	----------------	---------------

[주요 정의]

- * "시험(Testing)" - 개인의 지식이나 능숙함의 질 또는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학습자를 평가하는 행동.
- * "매우 중요한 시험(High-stakes exams)" - 미리 정해진 기준이나 지표에 따라 학생의 학습을 평가 하는데 사용되는 시험. 선발, 인증, 책무성을 목적으로 학생, 교사, 학교 및 지역사회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평가 시험(대개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 중요도가 높은 시험이나 특수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 "보충학습(Tutorial)" - 학교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설문지의 맥락에 있어서 보충학습(Tutorial)은 학교에 의해 준비되고 허가된 교육을 의미함.)
- * "사교육(Private Tutoring)"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와는 관련이 없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사교육기관이나 과외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행위.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PART 1. 기본정보

※ 다음 중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Q01.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 1) 초등학교 6학년 2) 중학교 3학년 3) 고등학교 2학년

Q02. 귀하가 태어난 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년
--	--	--	--	---

Q0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 1) 남자 2) 여자

Q04.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 1)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2) 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
 3) 다른 친인척(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조부모, 삼촌 이모 등등)
 4) 기타 _____

Q05. 귀하의 형제자매는 몇 명인가요?

- 1) 0명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Q06.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는 몇 명인가요?

- 1) 0명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Q07.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아래 보기 문항을 참고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1) 아버지의 직업 : _____ 2) 어머니의 직업 : _____
 3) 보호자의 직업 (나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만 응답) : _____

[보기]

① 농/임/어업 종사자	② 자영업자 (소규모 정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③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④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등)	⑧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수공업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직업군인
⑮ 무직	⑯ 기타 _____

Q16. 학기 중에 평균 얼마나 많은 자유 시간이 있나요?

※ 학교 활동 및 과외를 하지 않는 시간

- 1) 하루에 0~1시간 2) 하루에 1~2시간
3) 하루에 2~3시간 4) 하루에 3시간 이상

※ Q17번부터 Q25번 문항은 매우 중요한 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매우 중요한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 중요도가 아주 큰 시험이나 특수 중/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Q17.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세요.)

- 1) 상위 교육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등)
2) 학생들이 배운 것을 평가하기 위해
3) 학교나 지역 내에서 학생의 학습상황/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4) 졸업을 하거나 학위 및 증명을 받기 위해
5) 장학금에 지원하거나 수혜받기 위해
6)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7) 기타 _____

Q18. 이 시험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 1) 중요하다 2) 중요하지 않다

Q18-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19. 귀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을 이미 봤거나 곧 시험을 볼 예정이십니까?

- 1) 예 ☞ Q19-1번으로 이동 2) 아니요 ☞ Q26번으로 이동

Q19-1.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 시험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나요?

- 1) 예 ☞ Q20번으로 이동 2) 아니요 ☞ Q21번으로 이동

Q20. 이 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해 선생님들이 어떠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신 후, 선택한 항목의 순위를 매겨주시시오.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선택한 항목의 순위 기입
	(√로 표시)	(해당 칸에 순위 표시)
1) 선생님들이 추가적이거나 보충적인 수업을 제공함		
2) 선생님들이 숙제를 더 내줌		
3)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시험 연습에 시간을 더 많이 씀		
4) 선생님들이 전년도 시험 제출문제를 알려줌		
5) 기타.....		

Q21. 시험이 가까워지면 수업 시간 중에 본인은 이 시험 준비를 위해 몇 시간을 사용하나요?

- 1) 주당 1~2시간 2) 주당 3~4시간
3) 주당 5~6시간 4) 주당 7시간 이상

Q22. 시험이 가까워지면 수업시간 외(방과 후)에 본인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시험 준비에 사용하나요?

- 1) 주당 1~2시간 2) 주당 3~4시간
3) 주당 5~6시간 4) 주당 7시간 이상

Q23. 학교에서 이 시험을 위해 따로 보충학습을 시행하나요?

- 1) 예 ☞ Q24번으로 이동 2) 아니요 ☞ Q26번으로 이동

Q24. 보충학습에 참여하나요?

- 1) 예 ☞ Q25번으로 이동 2) 아니요 ☞ Q26번으로 이동

Q25. 보충학습에 몇 시간을 사용하나요?

- 1) 주당 1~2시간 2) 주당 3~4시간
3) 주당 5~6시간 4) 주당 7시간 이상

PART 3. 시험에 대한 기대, 동기 및 시험의 영향

※ 다음 문항들은 시험에서 생기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26. 나는 대부분 또는 모든 과목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고 싶다	1	2	3	4	5
Q27. 나는 졸업 후에 가장 좋은 기회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Q28. 나는 우리 반에서 최고의 학생 중 하나가 되고 싶다	1	2	3	4	5
Q29. 나는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Q30. 나는 과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초조해진다	1	2	3	4	5
Q31. 나는 시험이 어려울까봐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Q32.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매우 긴장된다	1	2	3	4	5
Q33. 나는 시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더라도 매우 걱정이 된다	1	2	3	4	5
Q34. 시험은 나에게 공부를 더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1	2	3	4	5
Q35. 시험은 나에게 학우들과의 경쟁을 부추긴다	1	2	3	4	5
Q36. 시험은 내 관심사와 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준다	1	2	3	4	5

Q37. 다른 사람들(부모님, 가족, 사회, 친구 등등)이 시험이나 학업 성취에 관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Q38. 이러한 시험과 학업 성취에 관한 기대와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신 후, 선택한 항목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로 표시)	선택한 항목의 순위 기입 (해당 칸에 순위 표시)
1) 부모/보호자		
2) 형제자매		
3) 학우/친구		
4) 교사		
5) 기타		

PART 4. 사교육

※ 다음은 사교육이나 과외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Q47.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1) 예 ☞ Q48번으로 이동 2) 아니요 ☞ Q57번으로 이동

Q48.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신 후 선택한 항목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선택한 항목의 순위 기입
	(√로 표시)	(해당 칸에 순위 표시)
1) 졸업 시험이나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2)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3)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		
4) 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5) 부모님의 권유/격려		
6) 학교/선생님들의 권유/격려		

Q49. 일주일에 사교육을 몇 시간 받나요?

- 1) 주당 0~2시간 2) 주당 3~5시간
3) 주당 6~8시간 4) 주당 8시간 이상

Q50. 몇 과목에 걸쳐 사교육을 받나요?

- 1) 1과목 2) 2과목 3) 3과목 4) 4과목 이상

*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51. 사교육은 나를 시험에 대비시켜준다	1	2	3	4	5
Q52. 사교육은 특정한 과목의 성적을 올려준다(수학 언어 등등)	1	2	3	4	5
Q53. 사교육은 내 전체 성적을 올려준다	1	2	3	4	5
Q54. 사교육은 내 학습과 과목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1	2	3	4	5
Q55. 사교육은 내가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1	2	3	4	5
Q56. 사교육은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1	2	3	4	5

Q56-1. 귀하는 Q56번 문항에서 사교육이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PART 5. 학습에 대한 영향

*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57. 나는 시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Q58. 나는 시험 보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Q59. 나는 시험 덕분에 더 많이 배운다고 느낀다	1	2	3	4	5
Q60. 나는 시험이 반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Q61. 나는 시험이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Q61-1. 귀하가 Q61번 문항에서 시험이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Q62. 성적을 잘 받고 시험을 잘 봐야한다는 기대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 1) 그렇다 ⇨ **Q62-1번으로 이동** 2) 그렇지 않다 ⇨ **Q63번으로 이동**

Q62-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63. 시험 이외에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 그렇다 ☞ Q63-1번으로 이동
- 2) 그렇지 않다 ☞ Q64번으로 이동

Q63-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64. 학교나 교사가 시험에서 오는 압박감(스트레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나요?

- 1) 예 ☞ Q64-1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 Q65번으로 이동

Q64-1. 시험의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Q65. 지나친 시험의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나. 교사용 설문지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설문조사 교사용]

연구 제목 :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연구 책임자 : 서예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치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련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더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소속한 일반적 교사로써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 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동료나 다른 이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일종의 '시험문화(culture of testing)'와 관련하여 이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시험의 문화가 학생들의 학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문화'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학생, 교사, 학부모 포함)의 다양한 생각과 접근방식, 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깊이 있는 면담과 설문지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자 합니다. 교사 대상 조사는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직·간접적 당사자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이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집단별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위치하는 사립 또는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이며(교사 집단의 경우, 다른 학년 담당도 참여 가능), 참여자 수는 각 집단별로 각 600명씩, 총 1,800명이 될 예정입니다.

3. 연구 참여자의 역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원이 제공하는 설문지에 응답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1회만 진행되며, 교육청 공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소속한 학교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연구원이 제공하는 설문지를 읽어보시고, 기본 사항,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설문 조사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여부의 선택

귀하는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혜택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의 시험문화와 시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함으로써 보다 즐겁고 행복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2,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증정 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 중단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8. 연구 참여자 보호

본 연구는 간단한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간단한 인적 사항,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특별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지켜집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9.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 서예원(연구책임자, 043-5309-548)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①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 5년 간 보존·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 ②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 및 조사 자료는 분석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사용됩니다.
- ③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연구관련 문의

- ①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예원 (연구책임자)

연 락 처: yskedi@kedi.re.kr / 043-5309-548

- ② 만일,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KEDI IRB): 이메일 lkdibrb@kedi.re.kr, 전화번호: 043-5309-213

동 의 서

[설문조사 교사용]

연구 제 목: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연구책임자: 서예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서를 모두 읽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유네스코 시험문화 연구 조사지(교사용)

LIST ID :

--	--	--	--	--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가 청소년 학습자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해주시는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지켜집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서예원 연구위원(043-5309-548)
- 심사담당자: 백미애 사원(02-3484-3076) /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담당연구원: 홍성환 연구원(pikachu@kedi.re.kr)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소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_____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	----------------------------	-----------------	-----------------	----------------

[주요 정의]

- * "시험(Testing)" - 개인의 지식이나 능숙함의 질 또는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학습자를 평가하는 행동.
- * "매우 중요한 시험(High-stakes exams)" - 미리 정해진 기준이나 지표에 따라 학생의 학습을 평가 하는데 사용되는 시험. 선발, 인증, 책무성을 목적으로 학생, 교사, 학교 및 지역사회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평가 시험(대개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 중요도가 높은 시험이나 특수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 "보충학습(Tutorial)" - 학교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설문지의 맥락에 있어서 보충학습(Tutorial)은 학교에 의해 준비되고 허가된 교육을 의미함.)
- * "사교육(Private Tutoring)"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와는 관련이 없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사교육기관이나 과외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행위.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 Q15번부터 Q21번 문항은 매우 중요한 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매우 중요한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 중요도가 아주 큰 시험이나 특수 중/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Q15.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상위 교육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대학교 진학 등)
- 2) 학생들이 배운 것을 평가하기 위해
- 3) 학생의 학교나 지역 내에서 학생의 학습상황/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 4) 졸업을 하거나 학위 및 증명을 받기 위해
- 5)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수혜를 받기 위해
- 6)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 7) 기타 _____

*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16. 나는 이 시험의 출제범위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1	2	3	4	5
Q17. 이 시험 준비 때문에 반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1	2	3	4	5

Q18. 이 시험이 가까워질 때,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가르치거나 기타 활동을 하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Q18-1.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Q19. 학교에서 이 시험을 위해 보충학습을 시행합니까?

- 1) 예 ☞ Q20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 Q22번으로 이동

Q20. 귀하는 보충학습을 지도하십니까?

- 1) 예 ☞ Q21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 Q22번으로 이동

Q21. 보충학습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몇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 1) 주당 1~3시간
- 2) 주당 4~6시간
- 3) 주당 7~9시간
- 4) 주당 10시간 이상

PART 3. 시험에 대한 기대, 동기 및 시험의 영향

※ 다음 문항들은 시험에서 생기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22. 나는 내 학생들이 대부분 또는 모든 과목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Q23. 나는 내 학생들이 졸업하면 최상의 기회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Q24. 나는 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Q25. 나의 학교는 학생들이 전부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1	2	3	4	5
Q26. 시험은 나에게 학생들을 더욱 준비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1	2	3	4	5
Q27. 시험은 내가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1	2	3	4	5
Q28. 시험은 내가 다른 교사/학교와 경쟁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1	2	3	4	5
Q29.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내 교사로서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Q30.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교사로서의 내 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Q31. 학생들을 시험에 준비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영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신 후, 선택한 항목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선택한 항목의 순위 기입
	(√로 표시)	(해당 칸에 순위 표시)
1) 학생		
2) 부모/보호자		
3) 교장/행정가의 평가		
4) 지역사회/사회		
5) 교육청		
6) 교육부		
7) 기타.....		

PART 4. 사교육

※ 다음은 사교육이나 과외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Q36. 귀하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1) 예 ☞ Q37번으로 이동 2) 아니요 ☞ Q39번으로 이동

Q37. 귀하의 학생들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1) 0~25% 2) 26%~50% 3) 51~75% 4) 76%~100%

Q38. 귀하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신 후, 선택한 항목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선택한 항목의 순위 기입
	(✓로 표시)	(해당 칸에 순위 표시)
1) 졸업 시험이나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2)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3)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		
4)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5) 부모의 권유/격려		
6) 학교/교사의 권유/격려		

Q39. 귀하는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가르치십니까? (학원강사 등 사교육 제공 역할)

- 1) 예 ☞ Q40번으로 이동 2) 아니요 ☞ Q42번으로 이동

Q40.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동안 사교육을 가르치십니까?

- 1) 1~2시간 2) 3~4시간
-
- 3) 5~6시간 4) 7시간 이상

Q41. 사교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 1) 1과목 2) 2과목 3) 3과목 이상

* 사교육은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42. 사교육은 학생들을 시험에 대비시켜준다	1	2	3	4	5
Q43. 사교육은 특정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준다 (수학, 언어 등)	1	2	3	4	5
Q44. 사교육은 학생들의 전체 성적을 올려준다	1	2	3	4	5
Q45.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과 과목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1	2	3	4	5
Q46.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1	2	3	4	5

Q53. 시험 이외에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Q53-1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 **Q54번으로 이동**

Q53-1.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Q54.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들이 가지는 시험의 압박감(스트레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Q55. 지나친 시험의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 학부모용 설문지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설문조사 학부모용]

연구 제목 :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연구 책임자 : 서예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치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련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더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디.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다른 이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일종의 '시험문화(culture of testing)'와 관련하여 이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시험의 문화가 학생들의 학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문화'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학생, 교사, 학부모 포함)의 다양한 생각과 접근방식, 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깊이 있는 면담과 설문지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대상 조사는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직·간접적 당사자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이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집단별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위치하는 사립 또는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이며(교사 집단의 경우, 다른 학년 담당도 참여 가능), 참여자 수는 각 집단별로 각 600명씩, 총 1,800명이 될 예정입니다.

3. 연구 참여자의 역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원이 제공하는 설문지에 응답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1회만 진행되며, 교육청 공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소속한 학교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연구원이 제공하는 설문지를 방과후 학생이 가져오면, 이를 읽어보시고, 기본 사항,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설문 조사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여부의 선택

귀하는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혜택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의 시험문화와 시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함으로써 보다 즐겁고 행복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2,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증정 될 것입니다.

7. 연구 참여 중단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8. 연구 참여자 보호

본 연구는 간단한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간단한 인적 사항, 시험의 중요성, 시험의 영향, 사교육, 학습에 대한 영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특별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지켜집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9.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 서예원(연구책임자, 043-5309-548)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①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 5년 간 보존·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 ②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 및 조사 자료는 분석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사용됩니다.
- ③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연구관련 문의

- ①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예원 (연구책임자)

연 락 처: yskedi@kedi.re.kr / 043-5309-548

- ② 만일,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KEDI IRB): 이메일 kediirb@kedi.re.kr, 전화번호: 043-5309-213

동 의 서

[설문조사 학부모용]

연구 제목: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연구책임자: 서예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서를 모두 읽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 / 월 / 일)

유네스코 시험문화 연구 조사지(부모/보호자용)

LIST ID :

--	--	--	--	--	--	--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험문화(The culture of testing)'가 청소년 학습자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지켜집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서예원 연구위원(043-5309-548)
- 실사담당자: 백미애 사원(02-3484-3076) /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담당연구원: 홍성환 연구원(pikachu@kedi.re.kr)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우외로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연구실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	----------------------	-----------------	-----------------	----------------

[주요 정의]

- * "시험(Testing)" - 개인의 지식이나 능숙함의 질 또는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학습자를 평가하는 행동.
- * "매우 중요한 시험(High-stakes exams)" - 미리 정해진 기준이나 지표에 따라 학생의 학습을 평가 하는데 사용되는 시험. 선발, 인증, 책무성을 목적으로 학생, 교사, 학교 및 지역사회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평가 시험(대개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 중요도가 높은 시험이나 특수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 "보충학습(Tutorial)" - 학교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설문지의 맥락에 있어서 보충학습(Tutorial)은 학교에 의해 준비되고 허가된 교육을 의미함.)
- * "사교육(Private Tutoring)"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와는 관련이 없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사교육기관이나 과외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행위.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 Q08. 귀하가 믿고 계시는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하기 곤란하다면 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1) 없음 2) 기독교 3) 불교 4) 천주교 5) 기타_____
- Q09. 귀하는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배우자 2) 자녀(들) 3) 부모
 4) 형제자매 5) 배우자의 형제자매 6) 배우자의 부모
 7) 기타 친인척

PART 2. 시험의 중요성

※ Q10번부터 Q16번 문항은 일반적인 시험 관련입니다.

- Q10. 귀하의 자녀는 한 학기당 평균 몇 개의 과목을 듣고 있습니까?
 1) 4과목 2) 5과목 3) 6과목
 4) 7과목 5) 8과목 6) 기타_____과목
- Q11. 귀하의 자녀는 한 학기당 얼마나 자주 시험을 봅니까? (전 과목 포함)
 1) 학기당 1~2번 2) 한 달에 한 번 3) 한 달에 두 번 이상
 4) 일주일에 한 번 5) 일주일에 두 번 이상 6) 기타_____
- Q12. 수업 시간 이외에(방과 후) 귀하의 자녀는 한 학기 평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험 준비에 사용합니까?
 1) 주당 1~2시간 2) 주당 3~4시간
 3) 주당 5~6시간 4) 주당 7시간 이상
- Q13. 귀하는 자녀에게 교과외 활동을 장려하십니까? (음악, 미술, 운동 등)
 1) 예 ☞ **Q13-1번으로 이동** 2) 아니요 ☞ **Q14번으로 이동**

Q13-1. 교과외 활동을 장려하신다면, 자녀는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Q14. 귀하의 자녀는 학교공부와 관련 없는 활동(집안일, 취미활동, 운동, 게임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1) 하루에 0~1시간 2) 하루에 1~2시간 3) 하루에 2~3시간
 4) 하루에 3~4시간 5) 하루에 4~5시간 6) 하루에 5시간 이상

Q15. 귀하의 자녀가 주로 하는 학교공부와는 관련 없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Q16. 학교를 가는 날에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 관련 활동, 사교육시간 등을 제외하면 귀하의 자녀는 얼마나 많은 자유 시간이 있습니까?

- 1) 하루에 0~1시간
- 2) 하루에 1~2시간
- 3) 하루에 2~3시간
- 4) 하루에 3시간 이상

※ Q17번부터 Q25번 문항은 매우 중요한 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매우 중요한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 중요도가 아주 큰 시험이나 특수 중/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Q17.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상위 교육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대학교 진학 등)
- 2) 학생들이 배운 것을 평가하기 위해
- 3) 학생의 학교나 지역 내에서 학생의 학습상황/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 4) 졸업을 하거나 학위 및 증명을 받기 위해
- 5) 장학금에 지원하거나 수혜받기 위해
- 6)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 7) 기타 _____

Q18. 이 시험은 귀하의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 1) 중요하다
- 2) 중요하지 않다

Q18-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Q19. 자녀가 아닌 귀하 자신에게 이 시험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 1) 중요하다
- 2) 중요하지 않다

Q19-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20. 귀하의 자녀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평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 1) 주당 1~3시간
- 2) 주당 4~6시간
- 3) 주당 7~9시간
- 4) 주당 10시간 이상

Q21. 자녀의 시험 준비를 도와주십니까?

- 1) 예 ☞ Q22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 Q24번으로 이동

Q22. 자녀의 시험 준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 1) 주당 1~3시간
- 2) 주당 4~6시간
- 3) 주당 7~9시간
- 4) 주당 10시간 이상

Q23. 자녀의 시험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Q24.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보충학습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 1) 예 ☞ Q25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 Q26번으로 이동

Q25. 귀하의 자녀는 보충학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 합니까?

- 1) 주당 1~3시간
- 2) 주당 4~6시간
- 3) 주당 7~9시간
- 4) 주당 10시간 이상

PART 3. 시험에 대한 기대, 동기 및 시험의 영향

※ 다음 문항들은 시험에서 생기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Q26. 나는 내 자녀가 대부분 또는 모든 과목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Q27. 나는 내 자녀가 졸업하면 최상의 기회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Q28. 나는 내 자녀가 반에서 최고의 학생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Q29. 나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Q30. 나는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Q31. 나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삶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1	2	3	4	5

Q32. 다른 사람들(지역사회, 교사, 가족, 친구, 학생 등)이 자녀의 시험이나 학업 성취도에 관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Q33. 시험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신 후, 선택한 항목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선택한 항목의 순위 기입
	(✓로 표시)	(해당 칸에 순위 표시)
1) 부모		
2) 형제자매		
3) 학우/친구		
4) 교사/학교		
5) 지역사회		
6) 기타_____		

Q40. 귀하의 자녀는 한 주에 사교육을 얼마나 받습니까?

- 1) 주당 0~2시간
- 2) 주당 3~5시간
- 3) 주당 6~8시간
- 4) 주당 8시간 이상

Q41. 귀하의 자녀는 몇 과목을 사교육 받습니까?

- 1) 1과목
- 2) 2과목
- 3) 3과목
- 4) 4과목 이상

Q42. 자녀의 사교육에 한 달 평균 대략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한 자녀 평균)

--	--	--	--

만원

* 항목별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43. 사교육은 자녀를 시험에 대비시켜준다	1	2	3	4	5
Q44. 사교육은 특정한 과목에 대한 자녀의 성적을 올려준다 (수학, 언어 등등)	1	2	3	4	5
Q45. 사교육은 자녀의 전체 성적을 올려준다	1	2	3	4	5
Q46. 사교육은 자녀의 학습과 과목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1	2	3	4	5
Q47. 사교육은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1	2	3	4	5
Q48. 사교육은 자녀가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1	2	3	4	5

Q48-1. 귀하가 Q48번 문항에서 사교육이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Q56. 시험 이외에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Q56-1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 Q57번으로 이동

Q56-1.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Q57. 자녀의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갖는 압박감(스트레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Q57-1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 Q58번으로 이동
- 3) 모름 ☞ Q58번으로 이동

Q57-1. 자녀의 학교나 교사가 시험의 압박감(스트레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Q58. 시험의 압박감(스트레스)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언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세부 응답자 특성표(학생, 교사, 학부모)

가. 학생 세부 특성표

		사례수	%
■ 전 체 ■		822	100.0%
■ 도시 유형 별 ■	대 도 시	437	53.2%
	중 소 도 시	385	46.8%
■ 학교 유형 별 ■	공 립	410	49.9%
	사 립	412	50.1%
■ 학 년 별 ■	초 6	353	42.9%
	중 3	209	25.4%
	고 2	260	31.6%
■ 성 별 ■	남 성	443	53.9%
	여 성	372	45.3%
	모름/무응답	7	0.9%
■ 동 거 자 별 ■	부 모	738	89.8%
	한 부 모	54	6.6%
	친 인 척	42	5.1%
	기 타	60	7.3%
	모름/무응답	4	0.5%
■ 형제 자매 수 ■	0 명	119	14.5%
	1 명	463	56.3%
	2 명	188	22.9%
	3 명 이 상	49	6.0%
	모름/무응답	3	0.4%
■ 윗형제자매수 ■	0 명	425	51.7%
	1 명	315	38.3%
	2 명 이 상	75	9.1%
	모름/무응답	7	0.9%
■ 아버지직업별 ■	농 /임/어업	11	1.3%
	자 영 업	133	16.2%
	블 루 칼 라	257	31.3%
	화 이 트칼라	328	39.9%
	직 업 군 인	7	0.9%
	무 직 / 기타	5	0.6%
■ 어머니직업별 ■	없다/모름/무응답	81	9.9%
	농 /임/어업	4	0.5%
	자 영 업	73	8.9%
	블 루 칼 라	115	14.0%
	화 이 트칼라	271	33.0%
	학 생	2	0.2%
■ 보호자직업별 ■	무 직 / 기타	12	1.5%
	없다/모름/무응답	345	42.0%
	농 /임/어업	1	2.3%
	화 이 트칼라	1	2.3%

	가 사	8	18.2%
	무 직/ 기타	1	2.3%
	없다/모름/무응답	33	75.0%
■ 아버지 최종학력 ■	초 졸 이 하	8	1.0%
	중 / 고 졸	217	26.4%
	대 졸 이 상	509	61.9%
	모름/ 무응답	88	10.7%
■ 어머니 최종학력 ■	초 졸 이 하	3	0.4%
	중 / 고 졸	256	31.1%
	대 졸 이 상	479	58.3%
	모름/ 무응답	84	10.2%
■ 종 교 별 ■	없 음	434	52.8%
	기 독 교	194	23.6%
	불 교	57	6.9%
	천 주 교	67	8.2%
	기 타	2	0.2%
	모름/ 무응답	68	8.3%

나. 교사 세부 특성표

		사례수	%
■ 전 체 ■		625	100.0%
■ 도시 유형 별 ■	대 도 시	326	52.2%
	중 소 도 시	299	47.8%
■ 학교 유형 별 ■	공 립	324	51.8%
	사 립	301	48.2%
■ 성 별 ■	남 성	218	34.9%
	여 성	403	64.5%
	모름/ 무응답	4	0.6%
■ 태어난 년도 ■	2 0 대	65	10.4%
	3 0 대	176	28.2%
	4 0 대	166	26.6%
	5 0 대이상	207	33.1%
	모름/ 무응답	11	1.8%
■ 담당 학년 ■	초 등 학 교	243	38.9%
	중 학 교	191	30.6%
	고 등 학 교	174	27.8%
	기 타	8	1.3%
	모름/ 무응답	9	1.4%
■ 담당 학급 수 ■	1 개 이 하	198	31.7%
	2~5 개 이 하	151	24.2%
	6~10 개 이 하	188	30.1%
	11 개 이 상	68	10.9%
	모름/ 무응답	20	3.2%
■ 한급당평균학생수 ■	2 0 명 이하	49	7.8%
	21~25 명 이하	125	20.0%

	26~30명 이하	271	43.4%
	31명 이상	170	27.2%
	모름/무응답	10	1.6%
□ 교 직 경 력 □	10년 이하	227	36.3%
	11~20년 이하	171	27.4%
	21~30년 이하	167	26.7%
	31년 이상	52	8.3%
	모름/무응답	8	1.3%

다. 학부모 세부 특성표

		사례수	%
■ 전 체 ■		836	100.0%
□ 도시 유형 별 □	대 도시	426	51.0%
	중 소 도시	410	49.0%
□ 학교 유형 별 □	공 립	365	43.7%
	사 립	471	56.3%
□ 성 별 □	남 성	144	17.2%
	여 성	681	81.5%
	모름/무응답	11	1.3%
□ 태어난 년도 □	20대	1	0.1%
	30대	40	4.8%
	40대	607	72.6%
	50대 이상	138	16.5%
	모름/무응답	50	6.0%
□ 자녀 수 □	1명	116	13.9%
	2명	521	62.3%
	3명 이상	193	23.1%
	모름/무응답	6	0.7%
□ 자녀 학년 별 □	초 6	373	44.6%
	중 3	200	23.9%
	고 2	263	31.5%
□ 본인 직업별 □	농 / 임 / 어업	4	0.5%
	자 영 업	90	10.8%
	블 루 칼 라	125	15.0%
	화 이 트칼라	283	33.9%
	학 생	5	0.6%
	가 사	283	33.9%
	직 업 군 인	2	0.2%
	무 직 / 기타	10	1.2%
	아동복지시설근무	2	0.2%
	없다/모름/무응답	32	3.8%
□ 배우자직업별 □	농 / 임 / 어업	6	0.7%
	자 영 업	159	19.0%
	블 루 칼 라	208	24.9%

	화 이 트칼라	334	40.0%
	학 생	2	0.2%
	가 사	55	6.6%
	직 업 군 인	4	0.5%
	무 직 / 기타	5	0.6%
	아동복지시설근무	2	0.2%
	없다/모름/무응답	61	7.3%
■ 최종 학력 별 ■	초 졸 이 하	7	0.8%
	중 / 고 졸	250	29.9%
	대 졸 이 상	564	67.5%
	모름/ 무응답	15	1.8%
■ 종 교 별 ■	없 음	369	44.1%
	기 독 교	226	27.0%
	불 교	132	15.8%
	천 주 교	83	9.9%
	기 타	2	0.2%
	모름/ 무응답	24	2.9%
■ 동 거 자 별 ■	배 우 자	740	88.5%
	자 녀 (들)	798	95.5%
	부 모	45	5.4%
	형 제 자 매	10	1.2%
	배우자형제자매	6	0.7%
	배 우 자부모	33	3.9%
	기 타 친인척	5	0.6%
	모름/ 무응답	8	1.0%

현안보고 OR 2017-01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

발행 2017년 8월 31일

발행인 김재춘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주소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7(한국교육개발원)

전화: (043)5309-114

팩스: (043)5309-499

인쇄처 인쇄: 형제아트(주)

전화: (02)2268-1216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UNESCO 참여연구 한국의 시험문화와 학습자에 대한 영향